

중·고등 국어 선생님을 위한 수업 자료

교과서가 사랑한 작가 99



강은교	2	박경리	52	윤동주	102	정지용	152
고은	4	박두진	54	윤선도	104	정철	154
고정희	6	박목월	56	윤오영	106	정현종	156
공선옥	8	박완서	58	윤희길	108	정호승	158
곽재구	10	박인로	60	이강백	110	조세희	160
기형도	12	박재삼	62	이규보	112	조지훈	162
길재	14	박지원	64	이근삼	114	주요섭	164
김광규	16	박태원	66	이문구	116	차범석	166
김광섭	18	백석	68	이상	118	채만식	168
김기택	20	생텍쥐페리	70	이상화	120	천양희	170
김만중	22	서정주	72	이순원	122	최인훈	172
김소월	24	성삼문	74	이양하	124	최일남	174
김소진	26	성석제	76	이용악	126	피천득	176
김수영	28	송순	78	이육사	128	하근찬	178
김승옥	30	신경림	80	이청준	130	한용운	180
김시습	32	신동엽	82	이태준	132	함민복	182
김영랑	34	신석정	84	이호철	134	허균	184
김용택	36	신영복	86	이항	136	헤르만 헤세	186
김유정	38	심훈	88	이호석	138	현덕	188
김종삼	40	안도현	90	임철우	140	현진건	190
김춘수	42	양귀자	92	장영희	142	황동규	192
나태주	44	염상섭	94	전광용	144	황순원	194
나희덕	46	오정희	96	정몽주	146	황지우	196
문정희	48	유치진	98	정약용	148	황진이	198
문태준	50	유치환	100	정지상	150		

강은표 (1945~)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허무시 #물의 시인 #원시적 생명력 #부산 #사회 참여 #치유의 시

문학이 절박했던 소녀

강은표는 1945년 함경남도 흥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뜻있는 독립 운동가였고, 피난 시절에 체신부 장관까지 지낼 만큼 엘리트였다. 그러나 어지러운 시대 상황으로 인해 가족의 곁에 머무르기는 쉽지 않았다. 광복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자 어머니는 백일 된 강은표를 업고 임진강을 건넜다. 어렵사리 가족이 만나 정착했나 싶을 때 이번에는 6·25 전쟁이 터졌다. 아버지는 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떠났고, 어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행 열차 꼭대기에 앉았다. 그렇게 강은표는 제2의 고향이 될 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강은표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즐겨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글쓰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가 법관이 되길 바랐고, 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문학을 반대했다. 밤늦게까지 강은표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노라면 어머니는 들어와 불을 꺼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강은표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문학을 절박하게 시작한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1968년, 《사상계》에 시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면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시인이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깨닫다

그토록 좋아하는 시도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고, 오랫동안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임정남과 결혼도 했다. 강은표에게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1972년 2월, 갑자기 뇌혈관이 터진 것이다. 병명은 ‘선천성 뇌동맥 정맥 기형’. 서른도 채 안 된 나이였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그는 두개골을 열어 뇌혈관을 잇는 큰 수술을 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임신했던 쌍둥이 중 하나를 잃었고 ‘출거나, 배고프거나, 긴장하면 (시, 〈나의 왼다리를 위하여〉 중에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강은표의 시 세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뇌 수술 이전 그의 작품은 소외감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 예정된 죽음이라는 생명의 한계 상황이 주는 허무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1971년 강은표가 낸 첫 시집의 이름이 《허무집》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수술 이후, 그는 삶을 위로하고 사람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시를 쓰기 시작한다. 〈우리가 물이 되어〉나 〈숲〉과 같은 시에서 그러한 따스함이 잘 드러난다. 시인은 시를 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시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시 치료’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L.J.N과의 사랑과 결혼

강은교는 <일어서라 폴아>와 같은 시에서는 폴, 즉 민중의 삶을 노래하면서 사회 문제를 자각하는 경향도 보인다. 강은교의 시에 사회적 색채가 깃든 이유 중 하나로 남편의 영향도 들 수 있다. 강은교의 남편은 임정남으로 그 역시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었다. 강은교와 임정남은 연세대 동문으로 만나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혼을 했다. 그 후 임정남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생을 민주 운동가로 사느라 가족과 건강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했고 결혼 생활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여 년 뒤, 임정남은 폐질환으로 먼저 세상을 떴다. 강은교는 자신의 동료이자 연인이며 반려자였던 그에 대한 담담한 회한과 추억을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시인인 당신이여 / 시 몇 편 남겨 놓지 않고 가 버린 시인 당신이여 / 거기 구름 위에 앉아서 매일 열 권이나 넘는 내 시집들을 질타하는 당신이여’ (<어떤 회의장에서-L.J.N.을 추모하며> 중에서)

교과서

Pick Up



숲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
다락	과거와 현재, 한옥과 양옥을 대조하면서 이제는 점차 사라져 가는 다락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수필
가을	슬픔과 기쁨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시
우리가 물이 되어	물과 불의 대립되는 이미지를 통해, 원시적 생명력을 갈망하고 상생과 합일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린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다대포 앞바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 강은교는 27편의 다대포 시편만 따로 쓸 정도로 부산 바다, 특히 다대포를 사랑함.



▶오프라인 낙동강

강원도 태백산에서 시작해 남해로 흘러드는 강. 강은교는 <낙동강>, <우리가 물이 되어> 등에서 낙동강과 같이 포용의 힘을 가진 물줄기를 소재로 삼곤 함.





작가 태그

#1960년대 이후 #무념무상 #참여시 #노벨 문학상 후보 #출가 #허무 #죽음 #민주화

고은 (1933~)

머슴 대길이가 있던 작은 마을

고은의 본명은 ‘고은태’로, 전라북도 옥구에 있는 미룡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는 내성적이고 병약했다. 그를 매우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웃 마을의 의형제를 맺은 친구의 집에 항상 그를 데리고 오갔는데, 바로 그 집에 ‘머슴 대길이’가 있었다고 한다. 대길이는 항상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상하게 돌보았다. 어린 고은은 그로 인해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사람의 품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정식 교육은 군산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받게 되지만, 1947년 무렵의 정세 때문에 그는 학업보다는 그림과 시에 열중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고 10대 소년 고은은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좌·우익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고, 어린 나이에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

어지러운 세상, 갈 곳을 찾아 방황하던 젊은 시절

마음을 잡지 못하던 10대 소년 고은은 우연히 떠돌이 스님 ‘혜초’를 만나게 되고, 그 길로 출가하여 전국을 유랑했다. 그러다가 25세 되던 해, 승려 생활을 하면서 쓴 시 <폐결핵>을 시인협회에 보내게 되고, 시인 조지훈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이 시를 발표하게 된다. 또 시인 서정주의 추천으로 <봄밤의 말씀>, <눈길> 등도 발표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시 <눈길>은 바로 6·25 전쟁 시기에 그가 접했던 어지러운 세상과 그로 인한 방황과 아픔을, 종교를 통해 지워 내고 이겨 내려 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한 승려의 몸이었지만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깊었던 고은은 4·19 혁명 이후 불교 교단의 혁신을 위해 청년 승려들의 단합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징계만 받고 만다. 현실에 실망한 그는 1962년, 10여 년의 승려 생활을 접고 환속했고 다시 술과 약물, 자살 시도 등 방황의 세월을 지내게 된다. 그런 그를 자신의 고통이 아닌 민족과 역사, 사회 현실에 눈뜨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이었다. 1970년 11월, 고은은 술집 바닥에 버려져 있는 신문에서 전태일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거기서 거대한 사회 현실의 모순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전태일의 이야기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때부터 고은의 시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문의 마을에 가서>를 낸 1974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허무의 정서, 생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심미적인 탐닉이 주를 이루던 그의 시는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담아내게 된다.

참여 문인으로서의 면모

고은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민족의 투쟁 의지를 담아낸 시를 발표하면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고문으로 고막이 두 번이나 터지는 등의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참여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 주었다. 북한의 시인과 합작하여 시를 쓰거나, 통일과 관련된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이렇게 빛어진 그의 문학은 약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5년 이후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되었다. 대표작인 <만인보>는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 소개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눈길	방향 끝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집착을 버리고 무념무상하는 가운데 찾아온 마음의 평안을 노래한 시
머슴 대길이	연작 시집 <만인보(萬人譜)>에 수록된 작품으로, 신분은 낮아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물인 대길이를 통해 민중 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그린 시. 시인이 실제로 만났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함.
그 꽃	산길에 핀 꽃을 통해 욕심을 버렸을 때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을 그린 성찰적인 시
문의 마을에 가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거듭하는 삶과 죽음, 산과 들, 마을과 길의 경계를 눈이 내리면서 덮어 버리는 것을 보며, 눈 이 온 세상을 포용하고 있음을 노래한 시. 친구 신문동 시인이 모친상을 당하자 조문하러 가서 쓴 시라고 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문의 마을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 <문의 마을에 가서>의 배경이 된 곳으로 구석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을 잘 보존하고 있음.



▶온라인 고은 홈페이지

(www.koun.co.kr)
고은에 관한 근황과 자료, 작품을 만날 수 있음.



고정희 (1948~1991)



작가 태그

#1980년대 #페미니즘 문학 #여성 운동가 #기독교 #지리산 #실족사

여성 해방을 노래하다

고정희는 1948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고성애이다.

고정희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를 ‘자그마하고 깡마른 몸집에 커다란 두 눈, 연약하면서도 완강한 조선 여자의 골상’을 하고 있던 시인으로 묘사한다. 그가 지닌 완강함은 다름 아닌 사회적 차별과 모순에 맞서는 완강함이라 할 수 있다.

고정희는 초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지상에서의 이상 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라 할 수 있는 시들을 썼다. 그러나 이후 민족·민중 문화와 여성 해방을 꿈꾸는 페미니즘 문학을 선도하면서 시인이자 여성 운동가로 성장하였다.

고정희는 살아 있는 동안 치열하게 시를 썼다. 31세에 공식적으로 등단하여 43세의 나이로 지리산에서 실족사하기까지 약 12년 동안 열 권의 시집을 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정좌하고 단정한 글씨로 시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 전라남도 해남 그의 생가에 있는 고정희의 방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고행, 청빈, 묵상’이라는 세 단어가 새겨져 있다. 그 단어만으로도 고정희라는 시인이 추구한 가치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시를 쓰면서 광주 YWCA와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판부 간사, 가정 법률 상담소 출판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80년대 초부터는 여자와 남자,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도 활동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해방을 그려 낸 시

고정희는 여성 해방 의식을 치열하게 시에 구현했다. 1990년에 출간한 시집 《여성 해방 출사표》에서 그는 황진이·이옥봉·허난설헌·신사임당 등 역사 속의 여성 문학가들을 시의 화자로 내세워 역사와 여성 해방을 연결하고, 그 인물들이 시공을 초월해 의식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시로 구현했다. 그는 이 시집에서 황진이를, 혁명을 꿈꾸며 스스로 기생이 된 선각자로 그리는 등 시대를 앞서 간 여성 문학가들의 생애를 재해석하며, 억압된 여성들의 삶을 해방할 것을 힘차게 노래했다. 고정희는 여성 운동이 단순히 남녀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해방 운동의 차원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시에 구현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구자명 씨>와 같은 시에서는 늘 당연한 듯한 희생을 강요당

하는 여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에서도 드러난다. 고정희의 시는 무기력한 슬픔이 아닌, 투쟁의 힘이 탄탄하게 넘쳐 나는 슬픔을 지녔다. 이것은 탄탄한 시적 구성과 힘찬 리듬, 높은 문학적 완성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문학사에서 고정희는 여성의 경험과 역사성, 그리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 방식을 특별한 문학적 가치로 강조하고 이론화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

1991년 6월 9일 소낙비가 퍼붓는 날씨임에도, 고정희는 해마다 가던 지리산 산행을 감행하다가 뱀사골에서 실족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그를 기리는 ‘고정희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그가 중추적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과 ‘해남 여성의 소리’, ‘고정희 기념사업회’ 등이 추모 사업을 겸한 문화제 진행을 맡아 고정희가 이루고자 했던 여성 해방의 맥을 이어 가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상한 영혼을 위하여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며 견디어 나가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
우리 동네 구자명 씨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삶을 구자명 씨 개인의 일상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시상을 전개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고정희 생가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 고정희의 문학적 자취가 있는 곳으로 ‘고정희 문화제’ 때 생전 사진과 육필 원고 등 유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함.



▶오프라인 고정희 시비

광주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위치. 조각가 박광규의 작품으로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전면에 새겨져 있음.





작가 태그

#1990년대 이후 #소외 계층의 삶 #여성 #기난 #광주 #5·18

공선옥 (1963~)

참외 파는 소녀, 버스 안내양

공선옥은 1963년 전라남도 곡성에서 출생하였다. 빛 때문에 늘 쫓기는 아버지와 몸과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앓아누운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 병간호는 세 자매 중 둘째였던 그의 몫이었다. 생계를 해결하고자 참외를 팔기도 하며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전남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에는 고속버스, 관광버스, 직행버스에서 안내양을 전전하기도 하고 구로 공단에서 직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공선옥은 당시를 회고하며 “근대에 태어났지만 전근대적인 삶을 살았다. 같은 연배 또래들이라고 해서 같은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뜻한 시선을 지닌 작가가 되다

공선옥은 1991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 소설 〈씨앗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등단했다. 그는 ‘궁핍한 시절이 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소설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귀퉁이를 들여다보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의 작품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끈질기게 살아 내는 이주 여성, 이혼 여성 또는 소외 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등장한다. 또한 시대적인 관점에서 소외되었던 광주의 1980년대를 소설에 담아내었다. 그런데 공선옥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모성을 발휘하며, 끈질기게 삶을 살아 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명랑한 밤길〉에는 치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도시로 떠나지 못하고 시골 병원에서 일하는 20대의 젊은 간호조무사가 나온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이 작품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독자 커뮤니티인 ‘문학동네’에 일일 연재되어 화제를 모았다.)에는 19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꽃다운 스무 살 무렵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아빠 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거나,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 등 쓸쓸하고 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그리는 모습이 그려진다. 소설집 《나는 죽지 않겠다》에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무난하고 뻘한 청소년들이 아닌, 농촌이나 관심의 사각 지대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설 〈나는 죽지 않겠다〉에서는 가난이 주는 자괴감과 편견에 눌리지 않고, 삶의 희망으로 돌이켜 고개 드는 당당한 10대 소녀가 나오고, 〈일가〉에서는 어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소외당한 이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농촌의 10대 소년이 등장한다.

수사나 기법이 아닌 핏진함으로 풀어낸 삶의 이야기

딱히 소설을 쓰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창작 테크닉을 연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품을 잇달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공선옥은 이렇게 말한다.

“아마 자라 온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핏진한 이야기를 쓰도록 강제하지 않나 싶어요. 왜 있잖아요? 작가는 자기가 살아온 만큼 소설을 쓰게 된다는 말이. 굴절된 삶과 그 가운데서 옹트는 생명력은 문예 기법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네요.”

생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아도 마침내 다시 일어나고 마는 강한 의지를 지닌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다름 아닌 공선옥의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Pick Up

일가	16세 소년 희창이 자신이 좋아하는 미옥의 편지로 부모가 싸우고, 그러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걸들며 지내던 당숙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는 일을 그리면서 가족의 의미와 이기주의에 대해 짚어 낸 소설
명랑한 밤길	시골 병원 간호조무사인 '나'와 제대로 임금도 못 받으며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 하여, 소외당한 사람들이 현실을 이기고 견뎌 내는 모습을 보여 준 소설
내가 가지지 않은 세 가지 수필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일컬어지는 휴대폰, 자동차, 신용카드에 대한 단상을 통해 작가가 삶의 가치관을 담아낸 수필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구로 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 1960~80년대 구로 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곳. 한때 구로 공단 직공으로 일했던 공선옥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임.
(홈페이지: laborhouse.geumcheon.go.kr)



▶**오프라인** 5·18 기념 문학관
광주시 서구에 위치.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5·18 기념문화센터에 가면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자료를 볼 수 있음. 홈페이지도 운영 중임. (홈페이지: www.518.org)



곽재구 (1954~)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
#서민들의 애환 #사평역 #기행
수필 #동화집

국민 애송시가 된 첫 작품

곽재구는 195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삶을 진지하고 생생하게 그려 내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평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곽재구를 대표하는 시로 꼽힌다. 소설가 임철우는 이 시를 같은 이름의 소설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는 시만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쓴 몇 편의 여행집과 동화집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여행집으로는 옛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며 쓴 기행 산문집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시인 78명의 시 80편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담고 거기에 곽재구 자신의 생각을 곁들인 산문집 《별밭에서 지상의 시를 읽다》 등이 있다. 동화집으로는 《아기 참새 찌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내었다.

곽재구의 시 세계

곽재구의 시 세계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사평역에서〉부터 〈서울 세노야〉에 이르는 전반부의 작품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시 속에서 그려 내고자 하였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실의 억압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수하고 내면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불합리한 사회에 분노를 토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노를 아름다운 시어들을 통해 끌어안고 가슴속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후반부의 작품들을 보면 시인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지 않는다. 인간이 지닌 순수함과 사랑 등을 회복하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주로 담아내고 있다.

‘사평역’은 어디 있을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읽고 실제로 ‘사평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에 등장하는 ‘사평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강남 지역에 ‘사평’이라는 역명이 존재하지만 시에 등장하는 역이 아니다.

어떤 이는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리에 있는 역이라고도 하였지만, 그곳에는 간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만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순옥
김시습
김영광
김용택
김유정
김종삼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동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현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장주
성삼문
성석제
송순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용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익
이육사
이청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장영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오석
차범식
찬양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이역이 없다. 시인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남광주역을 모델로 하고, 전라남도 장흥 회진 포구에 있는 다방에서 본 톱밥 난로의 모습을 시 속에 가져와 〈사평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역’이라는 공간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는 ‘역’이라는 공간이 시인이거나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민중 대부분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철도나 역을 주제나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역은 대부분 깔끔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났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역은 그러한 공간이 아니었다. 특히 시골 ‘간이역’들은 더욱 그러했다. 역장도 없는 조그맣고 한적한 간이역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공간이면서 목적지 없이 떠도는 이들의 쉼터였다. ‘역’은 인생의 여정과 닮아 있는 공간으로서 시 속에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평역’은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Pick Up 

사평역에서	쓸쓸한 역 풍경을 배경으로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을 담은 시
구두 한 켤레의 시	고향에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보고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드러낸 시
묵언의 바다	순천만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시 짓기 활동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사색한 내용을 담은 기행 수필
그림엽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와 몇 차례 만나면서 삶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가꾸어 가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그려 낸 수필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남평역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 남평역은 ‘사평역’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사평역에서〉의 배경이라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함. 참고로 실제 모델이 된 역은 현재는 사라진 남광주역이라고 함.



▶온라인 희망의 간이역장 카페

(cafe.daum.net/lifepoet)

‘오월’ 시 동인인 최두석과 곽재구가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카페임.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입하면 〈사평역에서〉와 관련한 이야기나 자료를 볼 수 있음.



기형도 (1960~1989)



작가 태그

#1980년대 #가난했던 유년기
#요절 #광명 #절망

빈방에서 찬밥처럼 담겨 보낸 어린 시절

기형도는 1960년 경기도 연평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란 곳은 광명이다. 어릴 때, 공무원 출신이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어머니가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돌보아 주는 이 없던 어린 시절은 그의 시 <엄마 걱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머리가 좋고 성적도 좋아 술하게 상장을 타기도 했지만, 마땅히 자랑할 일이 없었던 그는 상장을 접어 종이배를 띄우기도 하고, 아프신 아버지만 누워 있는 집으로 오는 가정 방문도 늘 거부하곤 했다.

그러나 세 살 때부터 어깨 너머로 한글을 뿔 정도로 영특했던 기형도는 신림중과 중앙고를 수석으로 졸업했고(당시에는 광명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9년 연세대에 입학한 후에도 줄곧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의 모 부대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한 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 기자가 되었다.

절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

1989년 3월 7일 새벽, 기형도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심야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 만 28세로 생일을 엿새 앞두고 있었고,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가 숨진 극장은 그 당시 성적 소수자들이 자주 찾던 곳이기도 해서 기형도를 둘러싸고 그 역시 성적 소수자라느니, 무슨 불치병이 있었다느니, 혹은 자살한 것이라느니 하는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의 시집은 그가 죽은 후, 연세대 문학 동아리 때부터 함께 활동하던 친구인 소설가 성석제, 평론가 김현 등이 발간했다. 그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시들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우울하다. 기형도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민중시나 노동시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가 살아 있었다면 우울함을 벗어 내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형도가 죽기 전 누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기형도가 시집의 제목을 <정거장에서의 충고>로 짓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거장에서의 충고>의 첫 구절은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 하련다.’로 시작한다. 어둡고 우울한 시대상을 묘사한 다른 시들과는 달리, 그가 시집의 제목으로 삼고 싶어 했던 이 시의 구절로 미루어 기형도가 살아 있었다면 희망을 노래하는 시를 더 많이 썼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보는 것이다.

대중문화에 영감을 주다

비록 한 권의 유고 시집만 남겼지만, 감각적이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기형도의 시는 대중가요나 드라마 등에 많은 영감을 주고,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엄마 걱정>은 가수 조하문이 곡을 붙인 ‘열무 삼십 단’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졌고, <질투는 나의 힘>은 그 제목 그대로 영화에 사용되었다. 2016년에 방영된 드라마 <청춘시대 3>화의 제목은 <질투는 나의 힘>의 끝 구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였다. 2015년 드라마 <회색도시 2> 6부의 예고편에는 기형도의 시 <시월>의 일부가 차용되기도 했다. <시월>은 가수 심수봉의 앨범에 수록된 곡의 노랫말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대중가요로 만들려고 지은 시이다. 1980년대 중반, <중앙일보> 기자였던 기형도는 당시 <코리아헤럴드> 기자였던 박광주와 가요를 만들기로 했다. 박광주가 곡을 만들고 기형도가 가사를 붙였다. 그런데 노래를 만들고 나자, 가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수봉이 그 노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형도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2007년, 심수봉은 콘서트 뒤풀이를 하다가 가사를 만든 이가 기형도였다는 말을 듣고는 뒤늦게 <시월>을 앨범에 수록한 것이다.

교과서

Pick Up



빈집	다양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사랑을 잃은 후에 느끼는 슬픔과 공허함을 그린 시
엄마 걱정	유년 시절 외롭던 삶을 회상하며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애뜻한 마음을 담아낸 시
질투는 나의 힘	자신의 삶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를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광명 중앙도서관 기형도 코너

기형도가 성장기를 보낸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 기형도의 주요 작품과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음.



▶오프라인 광명 기형도 문학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 기형도의 육필 원고와 영상 자료를 전시하고 시민을 위한 문학 체험 공간 등이 있음.





작가 태그

#고려 말~조선 초 #여말삼은
#개혁 #실용 #성리학 #영남 사
림파

길재 (1353~1419)

격동기의 인재

길재의 호는 야은(冶隱)이다. 목은(牧隱) 이색(1328~1396), 포은(圃隱) 정몽주(1338~1392)와 함께 여말삼은(三隱)으로 불린다.(여말삼은에는 야은 길재 대신 도은(陶隱) 이승인을 넣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고려 말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었다. 고려가 망하자, 신진 사대부들은 새 왕조 조선에 참여하는 쪽과 고려에 대한 충정을 지키는 쪽으로 나뉘었다. 정도전, 권근 등은 새 왕조 건설에 참여하였고, 이승인, 길재, 박상충 등은 정몽주와 같이 충(忠)과 의(義)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몽주는 목숨을 내놓았고, 길재와 같은 이들은 새 왕조가 주는 벼슬을 거부하고 낙향을 선택했다.

길재는 1374년(공민왕 23)에 생원시에 합격한 이래, 1388년에 성균박사(成均博士)가 되었다. 길재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태학(太學)의 생도들이, 낙향한 후에는 귀족의 자제들이 몰려와 그에게 배우기를 청할 만큼 학식이 뛰어났다고 한다.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큰 권력을 잡았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던 이방원은 문득 길재를 떠올렸다. 열두 살 무렵부터 길재와 한마을에 살면서 친분이 무척 두터웠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길재의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칭찬하며 그를 천거하기에 이르자 이방원은 삼군부를 뒤흔들며 길재를 데려오라 명했다. 성질 급한 이방원은 길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벼슬을 예전보다 두 단계나 높게 정해 두었다. 그러나 그토록 반갑게 데려온 길재가 정작 이방원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옛정으로 불러 주셔서 뵙고 가려고 했을 뿐 벼슬에는 뜻이 없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무안해진 이방원은 길재에게 다음과 같이 청했다.

“그 옛날, 공이 시경과 서경을 아주 잘했는데 그 강의나 한번 들읍시다.”

길재가 시경 한 편을 강의하고 나자 이방원은 임금(이방원의 형 정종)이 벼슬을 내렸으니 임금을 뵙고, 그에게 벼슬을 못 하는 이유를 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길재는 임금 앞에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며 한사코 벼슬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정종이 좌우 신하들에게 어찌할 것인지 의논하자 아까까지도 길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신하들이 길재를 벌하거나 죽이

자며 앞다투어 고했다. 이때 길재의 스승이었던 권근이 나서서 굳이 죽이지 말고 벼슬을 더 높이 올려 주고 굳이 가려고 하면 보내 주자고 하며 중재하였다고 한다.

낙향한 선비의 활약

그렇다면 낙향한 길재는 초야에 묻혀 옛 왕조만 그리며 살았을까?

길재는 낙향해서도 후학을 많이 길러 내었고, 학문 보급에도 앞장섰다. 그의 학문은 제자인 ‘김숙자-김종직-김굉필’로 이어져 영남 사람과의 근간을 이루고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개혁과 실용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길재 자신은 조선 왕조가 주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새 왕조에 기여하게 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다. 스승 길재의 권유에 따라 출사한 제자 박서생은 조선 최초의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길재의 영향을 받은 박서생은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세종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수차와 물레방아를 이용해 관개(灌漑)를 혁신할 것, 화폐 사용을 통해 상업을 증진할 것, 교량의 건설을 활용해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할 것 등을 건의하여 농업과 상업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과서 Pick Up

오백 년 도읍지를~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망국의 한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
한거(閑居)	시냇가 초가집에서 한가롭게 살며 독서한다는 내용의 시, 세상의 욕심을 떠나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는 삶을 그려 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채미정**

경상북도 구미시 남동동에 위치. 길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로 중국 주나라 충신 백이 숙제의 고사에 착안해 ‘채미정’이라고 이름 지음.



▶오프라인 **청풍사**

충청남도 금산에 위치. 길재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백세청풍비, 불이유허비, 그리고 지주중류비가 세워져 있음. 원래 부리(副禮)였던 마을 이름도 청풍사가 들어서면서 불이(不二: '임금은 둘이 아니다.')로 바꾸었다고 함.



김광규 (1941~)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일상시 #비판 의식 #늦깎이 시인 #소통

늦깎이 시인

김광규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5년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했고, 일상의 평범한 현실을 순수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밝혀 시에 담아 왔다. 2016년에 등단 40주년을 맞아 시집 《오른손이 아픈 날》을 《문학과 지성》에서 펴냈는데 한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열한 권의 시집을 낸 것이다. 서울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독일 유학을 마치고서야 시를 쓰기 시작했다. 등단 당시 35살 ‘애 아빠’로 ‘늦깎이 시인’이기도 했다.

쉽고 분명한 언어로 쓰인 일상시

김광규의 시는 ‘일상시’라고도 불리운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평범한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작품 색깔 때문이다. 여기서 ‘일상’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활과 현실로서 부딪는 체험으로서의 삶이다. 그의 일상시는 비판 의식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견되는 것이며, 시인과 독자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그의 시가 단지 쉽지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쉬움 속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다양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울림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다. 김광규는 그렇게 쉬우면서도 쓰기 어렵고, 일상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를 써 왔다.

김광규의 시는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그의 시는 독일을 비롯해 10여 개국에서 번역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됐고, 영국 BBC 방송의 시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으며 일본에서 그의 시를 읽는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올 정도이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대 중문학대학원 입학시험에 그의 시가 출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김광규는

“해외 독자들이 제 시를 읽고 ‘시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한다고 해요. 시가 베스트셀러가 될 순 없지만 삶의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시가 번역돼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한다.

멕시코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의 대표작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멕시코 노래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가 착안한 노래는 멕시코 출신 3인조 그룹인 로스 트레스 디아만테스

의 〈보름달(Luna Ilena)〉인데 1960년대에 70개국 이상의 가수들이 불러 라틴 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노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남성 4중창단이었던 블루벨즈(Blue Bells), 정희숙·희정·희옥 세 자매로 이루어졌던 정시스터즈가 각각 1960년대 초에 〈보름달〉 음반을 발표했다. 〈보름달〉의 가사는 ‘푸른 저 달빛은 호숫가에 지는데 / 멀리 떠난 그 님의 소식 꿈같이 아득하여라.’로 시작한다.

그 노래를 만든 로스 트레스 디아만테스가 1978년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김광규가 ‘보름달’의 번안 제목을 차용한 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를 발표했다.

교과서 Pick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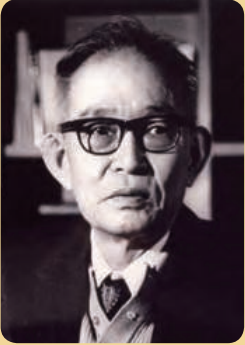
동서남북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이지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덮은 눈보라처럼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
서울평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뒷산을 배경으로 평들의 터전이 파괴되어 가는 현실을 노래하며, 자연을 잃고 자유를 잃은 서울 시민들의 현실을 비판한 시
때	가을이 왔음을 깨닫고 삶의 결실을 거두겠다고 다짐하는 시적 화자를 통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한 시
달팽이의 사랑	느리고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달팽이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순수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던 청춘 시기를 지나 기성세대가 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홍제동 개발 제한 구역 뒷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 〈서울평〉에 등장하는 곳으로 개발과 발전의 뒤안길을 보여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음.



김광섭 (1905~1977)



작가 태그

#1960~1970년대 #도시 개발
#소외 #성북동 #자연의 소중함
#평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시인

김광섭은 1905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다. 호는 이산이다. 1933년, 모교인 중동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공연히 창씨 개명을 반대하고 학생들에게 민족 사상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1941년 2월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그는 3년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나의 옥창 일기>에서 당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기상 나팔 소리에 뛰어 일어나 단별 이불을 개고 수건에 물을 짜서 몸을 흠친다. (중략) 훌쩍 벗고 문 앞에 선다. 무명 수건 하나를 들고 문이 열리자 고개를 끄덕하고는 복도를 달려 층계를 내려와 큰 문에 나서면 겨울물에 풍덩 뛰어드는 듯 찬바람을 훑 느끼며 창창한 대한천에 뛰어든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문 가운데 놓인 허들을 훌쩍 뛰면서 입을 아~ 벌려야 한다. 뛰는 것은 항문에 감춘 것이 없다는 표시요, 아~하는 것은 입에 문 것도 없다는 증거이다. 감방과 공장 사이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고 다니다간 벼락이 떨어진다.”

뇌출혈, 마비, 그리고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은 야구를 매우 좋아했다. 김광섭이 살던 당시에는 고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프로 야구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런데 1965년 한 고교 야구 대회에서 응원을 하는 도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다. 함께 있던 문인 동료가 당황해서 돕지 못하는 사이, 옆자리에 있던 대학생이 그를 업고 적십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고 만다. 그러나 투병하는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였고,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하게 된다. 이 시를 쓰고 나서 그의 시는 한층 더 원숙한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얻었다. <성북동 비둘기>는 2016년, 서울시가 미래 세대에 전할 100년 후 보물을 선정하여 소개한 ‘서울 미래유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그는 1961년부터 약 5년 동안 서울 성북동에 집을 짓고 살았다. 성북정보도서관 블로그를 보면 그가 살았던 2층 기와집의 집터와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의 집은 당대 유명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것으로 40년 가까운 세월에도 단아한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과 노래를 만든 시 <저녁에>

<저녁에>의 마지막 구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평범한 일상어로 쓰여 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과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짙은 소망의 의미가 깃들여 있어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리고 그 울림은 같은 구절을 제목으로 한 다른 작품을 탄생시킨다.

김광섭은 시 <저녁에>를 1969년 11월, 《월간중앙》을 통해 발표한다. 그리고 이 시를 뉴욕에 있는 화가 김환기에게 보낸다. 김광섭과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김환기는 이 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는다. 그리하여 김환기 특유의 점묘 기법으로 수많은 별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해 내었고 그림의 제목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붙였다.

<저녁에>는 1980년대 인기 남성 듀엣 유심초(유심형·유의형)가 노래로 만들어 크게 히트하기도 했다. <저녁에>의 시 전문을 노래 가사로 쓰고, 2절 후렴을 유심형이 추가했는데, 이 노래는 1981년 MBC 10대가수상 남자 부문 신인가수상을, 1982년 KBS 가요대상에서는 중창단 부문을 수상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교과서 Pick Up

나의 사랑하는 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미가 아닌,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그려 낸 시
성북동 비둘기	서울의 성북동이 한창 개발되던 1960년대, 개발되는 도시를 배경으로 자연이 훼손되면서 산업화에서 소외당하는 존재들의 모습을 그려 낸 시
저녁에	밤하늘을 제재로 삼아 관조적·사색적 어조로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과 운명을 성찰한 시. 시의 마지막 구절은 비록 인간이 고독한 운명일지라도 인연을 이어 갈 따뜻한 소망이 있음을 암시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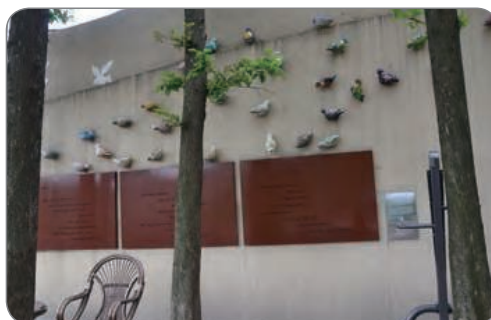
▶오프라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공원에 위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 4만여 명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에는 김광섭을 비롯한 민주 투사들이 옥고를 치름.



▶오프라인 성북동 북정 마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 도시 개발이 제한되어 198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형상화한 벽 장식이 있음.



김기택 (1957~)



작가 태그

#1990년대 이후 #동화 작가
#번역가 #상상력 #공정 #사회
문제 #소시민

김기택의 시 세계

김기택은 1957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경희대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8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다가 1989년 《한국일보》에 시 〈가뭄〉과 〈곶추〉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김기택은 현대적인 일상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일상의 풍경 속에 숨어 있는 비일상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작품을 주로 쓰고 있다.

김기택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의 소재로 삼으며,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굴레 아닌 굴레를 지닌 소시민을 그린다. 또한 그는 일상적 소재를 사용해 흥미롭고 쉬운 시를 쓰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어려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여러 번 곱씹을 수 있게 한다.

시 〈맨발〉과 시인의 ‘맨발’

김기택의 시 〈맨발〉을 읽고 시인의 ‘맨발’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 보면, 김기택의 시에 관한 생각을 잘 느낄 수 있다. 〈맨발〉에는 ‘맨발’에 관한 단상이 상쾌하게 드러나 있지만, 김기택 본인에게 있어 ‘맨발’은 약점이기도 했다. 그의 산문집 《다시, 시로 숨쉬고 싶은 그대에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중학생 시절 김기택은 짝의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는 초여름인 데다 양말도 귀해서 학생들은 맨발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집에 들어가자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했는데 김기택은 친구에게 그의 발을 도저히 보여 줄 수 없었다. 김기택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늘 작은 신발을 억지로 신었던 탓에 발가락이 심하게 뒤틀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기택은 친구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고 몹시 섭섭해하는 친구를 뒤로 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대단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남루할 수도 있는 그런 기억들이지만, 김기택은 그것들이 언제든 부르면 다가와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 주고 고단한 시간들을 위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시의 소재라고 말한다. ‘시 속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들어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의 힘으로 시를 쓰다

김기택 자신이 눈만 뜨면 출근하는 무감각한 일상을 이십 년 넘게 살았고, 출근

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누구에게도 반복되는 일상과 고단함을 달래고 즐겁게 해 줄 그 무언가는 있게 마련이고, 김기택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시였다. 아무리 시 쓰기가 즐겁더라도 직장 생활과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삼십 년 넘게 시집을 꾸준히 내었기에 오히려 시를 통해 삶과 현실을 견뎌 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김기택의 경험에서 녹아 나온 작품이 <사무원>이다. <사무원>은 직장인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어느 날 맛닥뜨린 바퀴벌레에 놀라서 지은 시이다. 먼저 그 크기에 압도되었고, 다음으로 바퀴벌레 역시 사람처럼 뛰어난 생명력과 적응력을 지닌 ‘생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또 한번 놀랐다고 한다.

그의 시는 이렇듯 사람과 동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한다. 비판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읽는 이들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김기택의 시가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Pick Up 

맨발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되었을 때의 상쾌함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시
멸치	자유로움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멸치에 빗대어 노래한 시
바퀴벌레는 진화 중	바퀴벌레를 통해 근대 이후 인류가 쌓아 온 문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문명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낸 시
사무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무실에 매여 있는 직장인의 비애와 애환을 고행에 빗대어 묘사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온라인 한국 시집 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org)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의 시집을 수집·전시하고 있는 강원도 인재군에 위치한 한국 시집 박물관에 대해 소개함. 김기택에 대한 자료와 시집이 소장되어 있음.



김만중 (1637~1692)



작가 태그

#조선 후기 #한글 문학 #유배 문학 #가정 소설

피란 중 배 위에서 태어난 아이

김만중은 병자호란 이듬해 일어난 정축호란 때, 아버지 김익겸이 강화도 싸움에서 순절한 후 유복자로 태어났다. 김만중의 아명은 '선생(船生)'이었는데, 피란 중에 배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만기와 만중, 두 형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항상 걱정하면서 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았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중에도 곡식과 옷감을 팔아 책을 샀고, 또 이웃에 사는 홍문관 서리에게 책을 빌려 손수 베껴 쓰며 교본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학》, 《사략(史略)》, 《당률(唐律)》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김만중의 삶과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를 위해 지은 <구운몽>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아래서 공부한 김만중은 14세인 1650년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였고, 1665년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이 서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대 당과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 서인의 한 사람이었던 김만중도 여러 차례 파직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야 했다. 1687년, 대제학이던 김만중은 희빈 장씨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에 반대하다가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된다. 이때 지은 것이 <구운몽>인데, 이 작품은 자식의 귀양살이를 걱정할 어머니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혹은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김만중이 중국 소설을 사다 달라고 한 어머니의 부탁을 잊어버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랴부랴 이 작품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소설의 격을 높이다

이 당시는 사대부들이 소설을 읽거나 쓰는 것이,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구운몽>의 창작 의도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려는 것이었고, 유·불·선의 가르침을 담아 부귀영화의 덧없음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사대부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구운몽>의 인기에 힘입어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구운몽>을 바탕으로 지어진 <옥루몽>, <옥련몽> 같은 소설들도 널리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한글 소설의 황금기를 이끈다

김만중은 귀양지에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남해의 노도로 유배된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아들을 걱정하다가 끝내 사망하였고, 김만중은 어머니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죽고 만다. 이곳에서 지은 <사씨남정기>는 인현 왕후를 폐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인 숙종의 마음을 바로잡아 보려고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만중은 당시에 천시되던 한글로 <사씨남정기>를 집필하였다. “한글로 쓴 문학이라야 진정한 국문학”이라는 문학관을 피력하며 인물과 사건을 우리말로 생생하게 그려 낸 김만중은 이후에 이어지는 한글 소설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어 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교과서 Pick Up

구운몽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 육관 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여 여덟 선녀의 환신인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깨어 보니 꿈이었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음.
사씨남정기	양반 가문의 처첩 간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 유연수가 첩 교씨의 모함에 속아 착하고 현명한 본처 사씨를 내쳤으나, 교씨의 음모가 발각되어 유연수가 교씨를 벌하고 사씨를 다시 맞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음.
서포만필	제자백가 가운데 의문 나는 점을 해석하고, 부록으로 신라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는 명시(名詩)에 대해 비평한 수필집이자 시화 평론집. 특히 한글로 지은 정철의 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주장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남해 노도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섬. 김만중이 유배되었던 곳으로, 복원된 초옥과 헛무덤(임시로 묻혔던 무덤)이 있음.



▶오프라인 남해 유배 문학관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 향토 역사실, 유배 문학실, 유배 체험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김만중의 삶과 주요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 있음.



김소월 (1902~1934)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민요시 #전통적 한의 정서 #향토적 시어 #여성 화자

옛날이야기와 민요를 좋아하던 아이

김소월은 평안북도 정주 광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명인 ‘정식’보다 ‘소월(素月)’이라는 호로 더 유명한데, 소월은 ‘소산에 뜬 달’이라는 뜻이다. 그의 고향 마을에는 소산(素山)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위로 뜨는 달이 유달리 하얗고 밝아서 이 달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소월’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한다.

김소월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철도 공사장의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 버린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소월의 가족은 광산을 경영하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어린 김소월은 숙모인 계희영에게 옛날이야기와 민요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유년기에 들은 숙모의 이야기들은 김소월의 문학적 자양이 되었고, 여성적이고 민요적인 그의 시 세계가 이로부터 발전하였다고 전해진다.

학창 시절의 시를 모아 펴낸 시집 《진달래꽃》

김소월은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던 오산학교에 진학하는데, 여기서 문학 스승 김억을 만나 본격적으로 시를 창작하게 된다. 그리고 《창조》 동인이었던 김억의 소개로 1920년 3월 《창조》에 〈낭인의 봄〉 등 다섯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한다. 김소월은 오산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던 오순이라는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김소월은 어린 나이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오순이 19세에 시집을 가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진다. 그러나 오순이 22세에 사망하게 되자 김소월은 매우 슬퍼하며 훗날 《진달래꽃》에 실리게 되는 많은 시를 창작하게 된다. 3·1 운동의 여파로 오산학교가 폐교하자,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한 김소월은 졸업할 때까지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먼 후일〉과 같은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한다.

1923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김소월은 그해 일어난 관동 대지진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한다. 그 후 경성에서 지내다가 김억의 도움으로 1925년, 그의 생전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을 펴낸다. 당시의 문단은 카프(KAPF)와 같은 정치성 짙은 문학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는데, 김소월은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언어로 자신만의 색채를 표현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한을 떨쳐내지 못했던 허무한 이별

경성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소월은 자신에게 상속된

전답을 팔아 식솔을 이끌고 처가인 구성군으로 이사한다. 그곳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인계받아 경영하지만 사업 수완이 없고 처세에 서툴렀던 그는 곧 파산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유난히 이별과 소멸에 대해 많이 노래했던 그는 삶의 마지막도 허무와 슬픔 속에서 마무리한다.

“세기는 저를 버리고 혼자 앞서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독서도 아니 하고 습작도 아니 하고 사업도 아니 하고 그저 다시 잡기 힘든는 돈만 좀 놓아 보낸 모양이옵니다. 인제는 또 돈이 없으니 무엇을 하여야 좋겠느냐 하옵니다.” (김소월이 김억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후 점차 문학과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린 김소월은 술에 기대 세월을 보내다가, 1934년 서른세 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교과서

Pick Up



진달래꽃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 온다면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하면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승화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
먼 후일	임을 '잇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헤어짐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
접동새	의붓어미의 시샘에 억울하게 죽은 소녀가 접동새가 되어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전래 설화를 차용하여 애절한 혈육의 정을 노래한 시
가는 길	임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망설임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민요조 율격으로 노래한 시
산유화	산에 피고 지는 꽃을 소재로 하여 삶과 자연 모두에 스며 있는 근원적 고독을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한국 근대 문학관

인천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위치. 1층에서 김소월의 전 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김소월의 시로 만들어진 노래도 들을 수 있음. (홈페이지: lit.ifac.or.kr)



▶오프라인 소월 시비

서울시 남산 소월길에 위치. 소월길은 남대문에서 시작하여 남산까지 이어짐. 시비에는 〈산유화〉가 새겨져 있음.



김소진 (1963~1997)



작가 태그

#1990년대 #사실주의 #미아리 산동네 #도시 서민의 삶 #부부 작가

미아리 고개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김소진은 다섯 살 때 미아리 산동네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이십육 년을 살았다. 성장기를 거쳐 어른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미아리 산동네는 김소진의 문학을 형성하는 뿌리 깊은 토대가 되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장석조네 사람들>은 미아리 고개 넘어 길음동 판자촌을 배경으로 하는 자전적인 소설이다. 그 이외에도 그의 작품은 미아리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등장하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산동네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에 마음을 두다

김소진은 198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에 입학하였고, 2학년 때 영문학을 선택하여 전공하였다. 대학 시절 김소진은 학생 운동과 함께 야학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이 무렵 그는 사회 변혁의 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황석영, 이문구, 박완서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소설 습작을 하거나 학회지에 글을 발표하는 등 집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한겨레 신문에 취직하였고,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쥐잡기>(1991)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작가 부부가 되다

김소진은 신문사 기자이던 시절, 한 해 먼저 등단하였던 함정임을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로 처음 만났다. 함정임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로 등단하였으며, <문학 사상>, <작가 세계>와 같은 문예지의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라 온 환경이나 집필 습관, 문학 세계 등이 아주 달랐다. 김 한 장을 책갈피에 끼워 놓고 아껴 먹으며 살았을 정도로 가난했던 김소진은 결혼에 대한 현실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순수한 사랑이 함정임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어 알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

짧은 생이 남긴 아쉬움과 그리움

1995년에 김소진은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 기자 생활을 그만두었다. 선배와 친구들이 일하던 서교동의 출판사 한편에 자리를 얻고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문체부가 수여하는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이듬해 병원에서 검사를 하던 중 뇌장암 진단을 받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연희동의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990년대의 주목할 만한 작가로서 막 꽃을 피우던 시기에 찾아온 그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서른다섯의 짧은 삶이었지만, 진실한 시선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여전히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맨발로 뛰어라	한 철강 회사의 명물인 '맨발의 철강인상'에 운동화가 신겨진 일을 계기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며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세태를 풍자한 소설
타는 목마름으로	계곡에서 살던 남생이 형제가 사람들에게 잡혀 어항 속에서 살아가다가 형 남생이가 도망치는 사건을 바탕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소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욕쟁이 할머니의 항아리를 깨트린 실수를 감추기 위해 항아리를 눈사람으로 위장하고 가출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유년 시절을 그린 소설
불나방과 하루살이	끈끈이에 달라붙어 애교풀을 빨아먹던 파리, 하루살이와 불을 보고 뛰어든 불나방의 대화를 보여 주면서 아름다움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한 소설
소문의 꼬리	아파트에 버려진 검은 봉지를 둘러싸고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 나가지만, 봉지 안에 인형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민망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미아리 고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 돈암동에서 길음동으로 넘어가는 미아리에 있음. 김소진이 성장한 곳으로, 그가 지은 소설의 배경이 됨.



▶오프라인 **용인공원 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위치. 김소진, 최남선, 전혜린, 김영랑, 박완서 등의 문학인은 물론 김수환 추기경, 가수 이재하 등의 묘소가 있음.



김수영 (1921~1968)



작가 태그

#1950~1960년대 #4·19 혁명 #
참여시 #자유와 저항 #자기비판
#온몸의 시학

예술을 향한 열정이 피어올랐던 청년

날카로운 저항 정신으로 시대의 불의를 노래한 시인 김수영은 1921년 서울 종로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을 비교적 유복하게 보낸 김수영은 1941년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학병 징집을 피해 만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한동안 연극에 빠져들게 된다. 8·15 광복과 함께 귀국한 김수영은 연극에서 시 창작으로 진로를 굳히고, 《예술 부락》 제2집에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며 문단으로 나왔다.

삶의 동반자와의 만남

일본 유학 시절 김수영은 학교 선배에게 얹혀살았고, 그 무렵 선배와 잘 알고 있던 김현경을 만나게 된다. 김현경은 정지용에게 시를 배웠으며 불문학에 심취해 있었던 학생이었다. 김수영과 김현경의 첫만남은 스승과 제자에 가까웠으나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950년 결혼하여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 김수영의 애독자이자 비평가 역할을 했던 김현경은 김수영이 죽고 난 이후에도 시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전쟁과 궁핍의 경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서울 의대 부설 간호학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던 김수영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북한으로 끌려간다. 그는 두 달 만에 훈련소에서 탈출하여 서울로 돌아왔지만, 다시 남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3년 만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로 석방된다. 이후 마포구 구수동으로 이사한 김수영은 양계와 번역 작업을 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였다.

분단 현실과 독재 정치, 물질적 궁핍 등 자신을 둘러싼 비참한 현실에 깊은 번민을 느낀 김수영은 예술가가 지녀야 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한 채 진정한 시, 자유로운 시를 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959년 출간된 시집 《달나라의 장난》은 시인 생전에 출판된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으로, 한계 상황인 암담한 현실과 죽음을 뛰어넘어 완전한 자아와 사회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려 내고 있다.

시여, 침을 뱉어라

1960년 봄,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김수영은 시대와 예술가의 참여라는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고 현실에 대한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4·19 혁명이 군사 정권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져 자신의 소시민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해 항의하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196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김수영은 자유와 저항을 부르짖는 시들을 치열하게 창작하였다. 삶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곧 삶을 온몸으로 증명한 김수영의 시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던져 주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눈	젊은 시인에게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라고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할 것을 권유하는 시
폭포	곧은 절벽에서 두려움도 없이 아래를 향해 쏟아져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그려 내어 부정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의 고매함을 형상화한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못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 힘없는 자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자세를 반성한 시
파발 가에서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자연물의 변화에 빗대어 묵은 사랑을 떨쳐 내야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음을 노래한 시
풀	풀이 바람에 의해 눕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려 내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형상화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김수영 문학관

시인이 시작 생활을 하였던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 시인의 시 원고와 평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유물 등이 전시됨.
(홈페이지: kimsuyoung.dobong.go.kr)



▶오프라인 김수영 생가 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 김수영이 태어난 곳은 아니나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낸 곳으로, 종묘 주차장 입구 건너편에 생가 터 표지석이 있음.



김승옥 (1941~)



작가 태그

#1960년대 #순천 #감수성의 혁명 #감각적인 문체 #영화 작업

상실의 슬픔을 겪었던 어린 시절

김승옥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도쿄 유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오사카에 이민을 와 있던 상황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주했으며, 이후 김승옥은 어머니의 고향인 순천에서 성장하게 된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아버지가 이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된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었던 여동생은 태어난 지 3년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가족이 죽는 비극을 연달아 겪게 된 김승옥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창작의 싹을 틔우다

학창 시절 김승옥은 독서를 무척 좋아했던 모범생이었으며, 글쓰기에도 소질을 보였다. 그는 순천중학교 교지 편집부에서 활동하면서 교지에 콩트나 수필 등을 발표하였으며, 월간 《소년 세계》에 동시를 투고하기도 하였다. 1960년에는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로 창간하는 《서울경제신문》에 만화가로 지원하였고, 계약이 성사되면서 <파고다 영감>이라는 시사만화를 연재하게 되었다. 그는 고향 집 번지수에서 따온 ‘김이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였는데, 5·16 군사 정변 이후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만화 연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국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생명 연습>(1962)이 당선되어 등단하게 된 김승옥은 최연소로 당대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큰 주목을 받는다. 만화가로 활동하던 김승옥이 이처럼 문학을 하게 된 첫걸음은 ‘산문 시대’라는 모임과 관련된다. 김승옥은 김현, 김치수, 서정인 등과 함께 ‘산문 시대’라는 동인을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무진기행>, <역사>, <서울, 1964년 겨울> 등은 이 동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이다. 1964년 《사상계》에 발표하여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무진기행>은 김승옥이 고향인 순천과 첫사랑의 느낌을 모티프로 하여 쓴 소설이라고 한다. 이 시절을 전후로 김승옥이 펼친 작품 세계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치밀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그리고 절필 선언

소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승옥은 영화로 관심을 돌려, <무진기행>을 영화로 각색하거나 김동인의 <감자>를 영화화하는 등 영화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그는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을 각색하여 대중상 각본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 후로 한참 동안 소설을 쓰지 않던 그는 1980년 <동아일보>에 <먼지의 방>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군 검열이 시작되자 집필 의욕을 잃고 절필 선언을 하게 된다.

2003년 뇌졸중이 발병하여 투병하던 김승옥은 병을 이겨 내고 복귀한 후 최근 까지 극본 작업에 참여하는 등 창작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무진기행	무진으로 귀향했다가 서울로 복귀하는 여정을 바탕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현대인의 삶과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이라는 주제를 그려 낸 소설
역사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하는 하숙집 사람들과 원시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괴력의 사나이를 대조하면서 현대인의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풍자한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우연히 만난 세 명의 남자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소외된 현대인의 절망감과 권태를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순천 문학관 김승옥관

김승옥이 성장한 곳이자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이 된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 김승옥의 소설 원고, 영화 대본과 포스터, 신문 기사 등이 전시되어 있음.



▶온라인 지리산권 문화 연구원(남도 문학 작가)

(jirisanin.org/writer/kimso)
김승옥의 삶과 대표작, 인터뷰 자료, 영화 이야기 등을 소개함. <무진기행> 전문을 수록해 놓음.



김시습 (1435~1493)



작가 태그

#조선 전기 #생육신 #방랑 생활 #한문 소설 #전기 소설

세종에게 비단을 하사받은 김오세

김시습은 서울의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유모가 맷돌을 가는 것을 보고 한시를 짓자 신동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세종은 그를 궁궐로 불렀다. 그가 세종의 요구에 맞추어 시를 척척 지어 내자 세종은 비단 50필을 하사하며 훗날 성장하여 학문을 이루면 큰 인재로 쓰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하사받은 비단을 홀로 가지고 가라는 명령에, 김시습은 비단을 허리에 묶고 궁궐을 나섰다. 이 일화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5세의 나이로 임금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 김시습을 ‘김오세’라고 불렀다.

계유정난 후의 유랑 생활

김시습이 21세 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유정난이 일어난다. 수양 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들은 그는 사흘간 통곡하고 보던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다. 이로써 그는 살아 있으면서 세조의 부름을 거역하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별별 떨고 있을 때, 거리에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에 묻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시습이었다고 전한다.

이후 그는 산천을 유랑하며 다니게 되는데, 그가 쓴 《탕유관서록》 발문에 방랑을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질탕하여 명리를 즐겨 하지 않고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여, 다만 청빈하게 뜻을 지키는 것이 포부였다. …… 하루는 홀연히 감개한 일(수양 대군의 왕위 찬탈)을 당하여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는데도 출사하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

30대가 된 김시습은 경주로 내려가 매월당이라는 호를 짓고 금오산에 칩거하였다. 이때 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이다. 그는 소설 외에도 많은 글을 썼는데, 유·불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다.

이후 경주 생활을 청산한 김시습은 서울로 올라와 수락산 등지에서 승려로 10여 년을 산다. 그러다가 40대 후반 문득 머리를 기르고 안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환속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폐비 윤씨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길을 떠나 강원도 일대를 방랑하며 지냈다.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지방의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행지마다 시를 써서 남기기도 하였다. 시와 문장을 벗 삼아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낸 김시습은 부여의 무량사에서 병사하였고, 그의 유해는 평생을 살아온 대로 불교식으로 화장되었다.

교과서 **Pick Up** 

이생규장전	이생이 부모의 허락을 얻어 몰래 만나던 최랑과 혼인하지만, 흥건적의 무리가 최랑을 죽이는 바람에 현세에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하여 최랑을 지극히 생각하다가 병이 들어 죽는다는 내용의 한문 소설
만복사저포기	남원의 노총각 양생이 부처와 내기를 하여 아름다운 배필을 맞았지만, 여자는 죽은 처녀의 환신이었고, 여자와 이별한 양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홀로 지냈다는 내용의 한문 소설
용궁부연록	글재주가 뛰어났던 한생이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한문 소설
남염부주지	박생이 꿈에 남쪽 염부주(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흉악한 죄인을 다스리는 곳)에 가서 염왕과 사상적인 담론을 벌이고 돌아온 후 크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한문 소설
취유부벽정기	개성상인 흥생이 취하여 부벽루에 올라갔다가 수천 년 전 기자(箕子)의 후손으로 선녀가 된 기씨녀를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의 한문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 김시습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와 매월당 문집 영상 자료, 관련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음.



▶오프라인 부여 무량사

충청남도 부여군 만수산에 있는 절. 김시습이 삶의 마지막을 보낸 곳으로 영정각 안에 그의 초상화가 있음.



김영랑 (1903~1950)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시문학파 #섬세한 언어 #여성적 어조 #순수시

순수 서정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다

본명은 김윤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랑은 그의 아호이다. 그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열세 살에 결혼하였으나, 일 년 뒤 사별한다. 그 후 휘문의숙(현재의 휘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선배 홍사용, 후배 정지용, 이태준과 교류하며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된다. 3·1 운동 때 그는 고향 강진에서 의거하다 체포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듬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青山]학원에 입학하여 중학부와 영문과를 거치며 크리스티나 로세티, 존 키츠 등의 시를 탐독하여 서정의 세계를 넓혔다. 그러다 관동 대지진 때 귀국하여 후배 정지용과 함께 《시문학》 동인에 가입하고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을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당시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던 문단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인 서정적인 순수시로 빛을 발한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김영랑의 초기 시는 이념적·사회적 사상을 배제하고 오직 언어 본연의 아름다움과 서정성을 추구하는 순수 서정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의식적으로 언어를 아름답게 다듬어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시에 부드러운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 ‘ㄴ, ㅁ, ㅇ, ㄹ’ 등의 울림소리를 첨가하거나, 의도적인 조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적 어조를 통해 섬세한 정서를 부드러운 어감으로 표현하였으며,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두운과 각운 등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얻었다. 이처럼 김영랑은 언어만으로 감정, 분위기, 깨달음을 정밀하게 표현한 순수 시인으로 한국 순수시의 극치라 평가받고 있다.

전설의 무용가와와 열애

관동 대지진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랑은 서울을 오가며 작가 최승일과 교우한다. 1923년 최승일의 집에 드나들던 그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최승일의 누이동생이자 해방 후 월북한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와 사귀며 문단에 염문을 뿌린다. 그러나 김영랑 부친의 반대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이 사랑이 모티프이자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시는 1934년 《문학》에 발표되었고, 1935년에 간행된 《영랑시집》에도 실렸다. 그만큼 최승희와의 실연의 상처가 오래 지속된 것이다.

현실 참여적인 색다른 면모

김영랑이 순수 서정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절필 선언을 했으며, 해방 후에 민족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현실 참여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의 후기 시에는 이러한 참여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거문고>, <독을 차고>, <묘비명> 등을 대표로 하는 후기 시는 우리 민족이 처한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노래하며 죽음을 강렬하게 의식한다. 이때의 죽음은 현실 자체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것으로, 일제 강점기 말기의 어려운 우리 현실을 잘 보여 주며 참여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교과서

Pick Up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순수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마음을 밝고 순수한 이미지의 시어와 비유를 통해 드러낸 시
내 마음 아실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한 시. 부드럽게 다듬은 시어와 동일한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음악성을 높임.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의 피어남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모란의 떨어짐으로 인한 상실과 소멸을 보여 주면서 '찬란한 슬픔의 봄'에 대한 동경과 저항을 노래한 시
독을 차고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시대 상황에 대한 신념을 결연한 어조를 통해 드러낸 시
오-매 단풍 들것네	빠른 계절의 변화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전라도 방언을 통해 드러내어 향토적인 정서를 부각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김영랑 생가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 김영랑이 1903년에 태어나 1948년 9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45년간 살았던 집으로 2007년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됨.



▶오프라인 시문학파 기념관

강진 김영랑 생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 1930년대 순수시 운동을 전개한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등 시문학파 동인들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문학관임.
(홈페이지: www.gangjin.go.kr/simunhak/)



김용택 (1948~)



작가 태그

#서정시 #섬진강 시인 #자연과
아이들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

김용택은 섬진강 연작으로 유명하여,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 진메 마을에서 태어나 순창농림고를 졸업하고, 이듬해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 교사 시험을 본 뒤 스물한 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1982년 《창작과 비평 21 신인작가상-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 외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고향에 흐르는 섬진강은 김용택 문학의 시작과 끝을 잇는 가장 중요한 줄기이다. 그는 진메 마을의 산, 강, 나무, 샘, 징검다리, 이웃 등을 성실하고, 아름답고, 정겹고, 눈물겹게 표현했다. 김용택의 시는 모더니즘이나 민중 문학 등의 문학적 흐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로 독자들을 감동하게 한다. 또 자연을 삶으로 끌어들이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한다. 그는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면 저절로 시를 쓰게 된다.”라고 말한다. 김용택이 특히 좋아하는 시인은 김소월과 김수영으로, 그는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을 가진 문학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섬진강〉, 〈그 여자네 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등이 있다.

어린이 같은 시인

38년의 교직 기간 중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쓴 김용택의 작품 속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자연이 등장한다. 그는 아이들과의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과 교감하며 세상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작품은 어엿한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한다. 가르친 아이들의 시를 모아 《우리도 섬진강 시인》 등을 펴내기도 했다. 그의 동료인 광명창 작가는 김용택을 두고 “제아무리 거창한 이름으로 그를 꾸미려 한다 해도 ‘아이들과 한세상 잘 논 섬진강변의 어른아이 같은 시인’ 그 이상의 찬사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참 잘 놀았으며 진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논 사람인 것이다. 놀되, 아무 형식도 격식도 없이 그 아이들의 속에 들어가서 같은 숨소리, 같은 웃음, 같은 미소를 나누며 논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 농촌의 황폐함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김용택이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과 아이들만이 아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는 한국 농촌의 황폐함에 주목했다. 험난한 세월을 견뎌지만,

이제는 폐가만 남은 황량한 농촌 마을과 피폐해진 땅을 갈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아픔을 발견한다. 김용택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시절, 사라져가는 고향 마을에 대한 것들, 철 지나고 낡은 것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름이 알려진 후에도 그는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들국	'하얀 들국'을 통해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기다림과 절망감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감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
섬진강 1	삶의 젓줄처럼 살아온 섬진강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과 연대 의식을 노래한 시
그대 생의 슬숨에서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을 보내고 슬숨에서 깨달은 긍정적인 가치를 드러낸 시
사랑의 노래	조국과 국토는 자신에게 준 복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노래하리, 조국의 국토'라는 구조의 반복을 통해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강조한 시
그 여자네 집	옛날의 아름다운 고향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어떤 여인에 대한 남성의 설렘과 그리움,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진메 마을**

김용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섬진강가 전라북도 임실 진메 마을에는 김용택의 생가와 서재, 현재 거주하는 살림집이 한 곳에 모여 있음.



▶오프라인 **구례 시의 동산**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 구례 화엄사로 가는 길목에 조성된 '시의 동산'에 20개의 시비가 있는데, 여기에 김용택의 <섬진강> 시비가 있음.



김유정 (1908~1937)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구인회 #농촌 소설 #해학 #토속성

말더듬이 먹서리

김유정의 아호는 ‘먹서리’이다. 먹서리란 곡식을 담는 데 쓰는 그릇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김유정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였고, 형 유근의 무책임하고 방탕한 소비로 인해 궁핍한 삶을 전전하였다. 또한 말더듬이어서 휘문고보 시절 놀던 교정소를 다녀 고치기는 하였으나 늘 과묵하였고, 이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석이 잦아 제적 처분을 받았다. 1933년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였으며, 2년 뒤 <소낙비>, <노다지>로 등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한다. 이 시기 구인회 후기 동인으로 가입하여 이상 등과 교분을 쌓았는데, 특히 폐결핵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이상과의 친분이 주목받기도 한다. 등단하던 해 <만무방>, <봄·봄> 등 10편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지만 악화된 늑막염에 치질, 폐결핵까지 겹친 그는 1937년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

날카로운 현실 비판, 고통을 감싸는 해학의 힘

춘천 실례 마을에서 태어난 김유정은 자연스럽게 작품 안에서 농촌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었다. 그가 주목한 당대의 현실은 피폐한 농촌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농민이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김유정의 소설에서 농촌과 도시의 하층민들의 모습은 해학적 웃음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의 소설에는 소위 ‘바보형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혹은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김유정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은 주인공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자신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껏 웃는다. 그러다 작품을 다 읽고 냅을 때, 웬지 모를 비애와 동정에 사로잡힌다.

또 인물의 순박함과 그로 인한 웃음을 더욱 부각하는 것은 그의 토속적인 문체이다. 김유정은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 그리고 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탁월한 언어 감각을 보였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서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방언과 비속어의 구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현은 김유정 소설의 토속성, 그리고 웃음의 미학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어머니를 닮은 그녀에게 반하다

일곱 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의고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던 김유정은 휘문고보를 졸업하던 해 당대 유명한 명창이자 기생이었던 박녹주를 만난다. 어머니를 닮은 박녹주에게 2년여 동안 광적으로 구애하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박녹주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김유정은 실의에 빠지고 고향인 춘천 실례 마을로 돌아온다. 고향에서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눈다. 당시 마을의 돌쇠 어멈에게 들은 어떤 들병이 여자 이야기는 이후 <산골 나그네>의 모델이 되고, 실례 마을에 딸만 여럿 낳아 데릴사위를 들여 부러먹으며 욕을 잘하는 박봉필이란 사람은 <봄·봄>의 모델이 되었다. 그의 작품 중 10여 편의 작품이 모두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쓴 것이다.

교과서

Pick Up



만무방	응칠과 응오 형제의 비참한 생활상을 통해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촌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보여 준 소설
동백꽃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계층적 갈등을 뛰어넘은 순박한 소년, 소녀의 사랑을 해학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린 소설
봄·봄	우둔하고 순박한 '나'와 교활하고 의뭉스러운 장인 간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소설
금 따는 콩밭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황된 꿈을 꾸는 인물을 통해 당시 피폐해진 농촌 사회의 실상을 드러낸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의 고향 마을인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실례 마을은 마을 전체가 김유정 작품의 산실이며 배경으로, 이곳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에는 생가, 기념 전시관, 이야기 집, 천연 염색 체험방 등이 있음.

(홈페이지: www.kimyoujeong.org)



▶오프라인 김유정 문학비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조각 공원에 위치. 춘천 시민의 휴식 공간이 공지천 조각 공원에 김유정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데 문학비 하단에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의 첫머리가 새겨져 있음.



김종삼 (1921~1984)



작가 태그

#순수시 #죄의식 #여백의 미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광

김종삼은 1921년에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났다.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토요시마상업학교에 편입한다. 이후 일본 귀족들만 다니는 도쿄문화학원에서 문학부에 입학하지만, 작곡을 하고 싶어 음악 공부를 시작한다. 그 사실을 안 부친이 일체의 송금을 끊어 버리자, 그는 도쿄문화학원을 중퇴하고 도쿄출판배급주식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다 곧 회사를 나와 부두에서 막노동하며 고학을 한다. 그 시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비롯해 외국 고전 시들을 열심히 탐독하였으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여 도쿄의 르네상스 다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나들었다. 해방 뒤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극단 '극예술협회' 연출부에서 일하기도 한다.

클래식 음악광이었던 김종삼은 전봉래, 전봉건 형제들과 함께 명동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인 '돌체 오아시스 라아뿌림'에 매일 드나드는 단골이었다. 전쟁이 터지고 '돌체'가 피난지 부산 역전으로 옮겨지면서 그곳은 피난지로 몰려든 예술가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김종삼도 이곳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을 때 돌체의 홀에서 자고, 아침이면 바흐를 틀어 놓고 세수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꽃과 이슬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

김종삼은 전쟁 중인 1951년에 시 <돌각담>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문단에 시를 선보인다. 이후 <원정(園丁)>, <G. 마이냐>와 같은 초기 원고를 본 시인 김윤성이 <문예>에 추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김종삼의 원고를 가져가지만 결국 추천은 무산되고 만다. 그의 작품들은 꽃과 이슬을 노래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이유로 <문예>의 추천 위원들로부터 거절당하였기 때문이다. 김종삼의 공식적인 문학 활동은 1953년부터 시작한다. 그는 <문예>에서 거절당한 뒤 종합 잡지 <신세계>에 <원정>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김춘수에 의해 극찬을 받은 <원정>은 그의 초기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다.

도깨비 시인

생전에 김종삼의 별명은 도깨비였다고 한다. 그가 도깨비처럼 출판사 편집실에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김종삼은 출판사의 말단 사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민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승옥
김시습
김영랑
김용택
김유정
김종삼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원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삼문
성석제
송수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익
이육사
이청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정연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요섭
차범석
채만식
천양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허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원인 풋내기 시인에게 다짜고짜 2천 원을 내놓으라고 한 뒤, 소주를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책을 들고 나와 헌책방에 넘기고 받은 몇 푼으로 소주를 사서 마시거나, 동네 세탁소 주인에게 구걸하듯이 소줏값을 빌리기도 했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던 말년의 김종삼에게 황야처럼 딱딱한 세상을 살아 가는 데 술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이자 도피처였고,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알콜 중독자로 살며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는 말년에 자신의 죄의식을 가졌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형벌로 받아들였다.

교과서 Pick Up 

북 치는 소년	두 소년의 대비를 통해 절대적인 미(美)나 순수의 가치가 가난한 소년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시
묵화	물 먹는 소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담아 낸 시
장편 2	손바닥만큼(掌) 짝은 문학 작품을 이르는 '장편(掌篇)'이라는 장르명을 제목으로 하여, 거지 소녀가 전 재산을 털어 부모의 생일상을 마련해 주는 몽클한 장면을 담은 시
물통	물통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인식을 통해 평화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수변 공원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 1993년 광릉수목원에 세워졌던 김종삼의 시비(詩碑)가 경기도 포천시로 2011년에 이전함. 대표작인 <묵화>, <북치는 소년> 등을 비롯하여 시인의 다양한 작품을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온라인 김종삼 시인 기념사업회

(cafe.daum.net/kimjongsampoet)

김종삼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연구하고자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로, 김종삼의 삶과 작품 등에 대한 자료가 있음.



김춘수 (1922~2004)



작가 태그

#1950~1960년대 #꽃 #존재의
본질 #인식의 시인 #무의미 시

방황하던 소년, 릴케에 감명받다

김춘수는 1922년 통영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당시 외국 선교사 부부의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의 의식도 상당히 자유롭게 깨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복한 환경에 우울감을 느끼기보다 또래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서 비롯된 소외감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사춘기의 방황과 고민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5년제 중학교를 자퇴한다. 얼마 후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데 법학과 지원을 목표로 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으나 집에 가는 길에 들른 헌책방에서 우연히 구매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니혼대학교 예술학부에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화물선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휴식 시간에 일본 제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혐담을 해서 결국 퇴학을 당하고 불경죄로 7개월 동안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김춘수는 교도소에서 나온 뒤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던 중, 1946년 자비로 그의 첫 번째 시집인 《구름과 장미》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한다.

꽃에 매혹된 꽃의 시인

김춘수가 6·25 전쟁 무렵 마산의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방과 후 해가 어둑어둑할 때 교무실에 혼자 앉아 유리컵에 담긴 두어 송이 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이틀 뒤에 <꽃>이라는 그의 대표작을 쓰기 시작한다. <꽃>을 창작하던 때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던 시기로, 그는 언어와 존재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탐구하였다. 김춘수는 “시를 잉태한 언어는 피었다가 지는 꽃들의 뜻을 든든한 대지처럼 제 품에 그대로 안을 수가 있을까?”라며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품을 수 있을지, 또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붙은 이름들이 제대로 붙여진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이 시기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흔적이 많이 드러난다. 그는 사물이 있고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있기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언어가 없는 사물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미가 없는 시를 쓰다

김춘수는 1960년대를 거치며 대상이 갖는 순수한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무의미 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는 ‘관념, 즉 의미 이전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시를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과 의미를 부정하며, 시적 상상력만을 가지고 시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의 성향은,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상상한 것을 형상화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자신의 친구였던 이중섭의 그림 〈서귀포 환상〉,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를 보고 쓴 〈이중섭 2〉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교과서 Pick Up

꽃	꽃을 제재로 하여 서로를 인식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간절함을 노래한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고 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수한 심상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화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부각한 시
꽃을 위한 서시	꽃을 통해 사물 속에 담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시
강우	아내의 죽음에 대한 회한의 정서가 주를 이루는 작품으로,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과 절망감을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김춘수 유품 전시관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 김춘수의 육필 원고 126점과 서예 작품을 비롯해 생전에 사용하던 가구와 옷가지 등 유품이 전시됨. 특히 전시관 한쪽에는 시인이 생전에 거거하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김춘수 방’을 꾸몄고, 나머지 공간에는 옷가지와 책, 평소 쓰던 소지품,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음.



▶오프라인 산사(山史) 현대시 100년관

천안시 백석대학교 내 위치. 김춘수, 조병화, 김지하의 육필 액자와 족자 외에 현대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홈페이지: poem.bu.ac.kr)



나태주 (1945~)



작가 태그

#2000년대 #풀꽃 시인 #관찰력 #자연의 아름다움 #서정시

일상적인 소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인

나태주는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공주대학 사범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태주는 박목월의 제자로 두 사람의 인연이 깊다. 길에서 만난 중매쟁이의 소개로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박목월이 주례를 섰으며, 첫 시집의 서문도 박목월이 써 주었다. 교직에서 평생을 아이들과 보내서인지 그의 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좀처럼 눈여겨보지 않는 주변의 사물에 세심한 눈길을 주고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대표작으로, 무엇이든 관심을 두고 깊이 들여다보면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음을 노래한 <풀꽃>은 그의 시업의 결정(結晶)이다. 그는 자신의 시를 가져와서 평가해 달라는 중년의 남자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다고 한다. “시는 왜 쓰세요? 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만물을 하나하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좋은 시가 나올 수 있어요.”

나를 태워 주세요

광화문에 가면 서점에서 게시하는 글판을 볼 수 있다. 25주년을 맞이하여 서점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광화문 글판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풀꽃>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나태주의 시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힘이 되어 주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비가 있었다. 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두고 복막염과 췌장염으로 5개월간 입원해 있으면서 아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지 못한 채 주사에 의해 살았으며, 장례위원회까지 발족했었다고 한다. 당시 의사들은 치료 불가,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병상에서 <꽃을 던지다>라는 책과 시집을 내기도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의 시는 한층 맑아지고, 담백해졌다. 나태주는 퇴직 이후 충남 공주에 있는 풀꽃 문학관에 머무르며 가까운 거리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 ‘나태주’를 ‘나를 태워 주세요.’라고 풀이하는데, 이는 차가 없어 늘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주는 아직 자가용도 없이는 것이 자연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믿고 있다.

다작(多作) 시인

나태주에게는 ‘다작 시인’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그는 1971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 이후 47년간 38권의 창작 시집을 출간하였다. 그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다작이라서 꼭 나쁜 것이 아니고 과작이라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인생의 사이클과 문학(시)의 사이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시, 감동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지요.” 그에게는 시가 물이고, 공기이며, 밥 같은 것으로 시는 생존 수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나태주는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재주가 있었는데, 소설가의 꿈도 있어서 《외톨이》라는 장편 동화집을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그림 솜씨가 수준급이라 글에 그림을 더하여 산문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교과서 Pick Up

사는 일	길을 걷는 여정에 삶을 비유함으로써 수고로움을 통해 얻는 삶의 가치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그린 시
축	새싹이 지구를 들어 올린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표현한 시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 바람 소리	등 너머로 남의 집 대숲 바람 소리를 듣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희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공주 풀꽃 문학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에 위치. 나태주의 흔적과 작품이 있는 공주 풀꽃 문학관은 옛날 일본식 주택을 손봐서 만들어졌으며, 이 문학관에는 나태주의 시와 기록들이 있으며 야생화가 만발하고 북카페가 있음.



▶온라인 공주 문화원

(www.cnkccf.or.kr/gongju.do)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 공주 문화원은 현재 나태주가 원장으로 있으며, 향토 민속 발굴 사업, 공주의 문화 예술인 공연, 문화 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주의 문화를 알리고 있음.



나희덕 (1966~)



작가 태그

#2000년대 #여성시 #모성(母性) #서정시 #민중시

보육원에서 나고 자라다

나희덕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친지가 운영하고, 어머니가 총무로 일하는 ‘에덴 보육원’에서 태어났다. 나희덕은 ‘고아 아닌 고아’로 소외된 아이들과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다. 열 살 때 서울 면목동으로 이사 온 후에는 어머니의 직장인 보육원 ‘애향원’에서 스무 살까지 있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없는 외로운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적 분위기에 젖어서 살았다. 하지만 행여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까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도 나희덕은 그때 일은 시의 소재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일상적인 소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나희덕이 처음 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되면서부터이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종로에 있는 종로서적 바닥에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이해할 수 없는 시집들을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문예반에 꼭 빠져 이곳을 학교처럼 등교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대학에 들어가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조금씩 작품을 창작했다. 나희덕은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투고한 것이 당선되어 얼떨결에 시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모순된 교육 제도와 가족사 속에서 놓치기 쉬운 아픔을 여교사의 예리한 시선과 모성적 본능을 통해 이야기한 첫 시집 《뿌리에게》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친다. 이후 그는 일상 속에서 삶의 쓸쓸함과 고통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썼다.

모성(母性)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다

나희덕은 모성에 기초하여 자연적 생명이 이지러지는 것을 가슴 아파 하는 서정적인 시를 주로 쓴다. 그는 모성을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현실의 불모성을 건너는 다리”라고 말한다. 희생적, 헌신적, 숙명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자연의 생명력을 연결해 척박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고자 한다. 그는 나무, 뿌리, 흙 등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자아 성취까지 나아가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대표작인 <뿌리에게> 또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모성애를 뿌리와 흙의 관계에 비유한다. 그러나 나희덕은 여성의 모습을 모성만을 가지고 그리고자 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현대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아픔과 고충을 다루었다. 나희덕의 시는 좀처럼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동요하는 법이 없다. 그의 시에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삭히려고 노력하고, 반발이나 거부보다는 수용이나 관용하는 태도가 더 많이 드러난다. 이처럼 나희덕의 시는 자기 절제와 담백한 태도를 통해 자칫 감성에 빠질 수 있는 어머니, 모성과 거리를 유지하며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교과서 **Pick Up** 

못 위의 잠	제비와 아버지의 삶을 대응하여 제시하며 유년 시절 초라했던 아버지의 삶과 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시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시
땅끝	절망 속에서 땅끝을 방문함으로써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희망을 찾아낸 시
배추의 마음	밭에서 자라는 배추를 보면서 교감을 나누고 그로부터 삶의 의미를 깨달은 시
그런 저녁이 있다	저녁 무렵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 땅끝 마을은 많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으로, 나희덕의 시 <땅끝>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음.



문정희 (1947~)



작가 태그

#2000년대 #여성시 #서정시
#육망 #여성 생명주의

탄탄대로를 걷는 시인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문정희는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이던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하며 문단에 나온다. 그는 일찍이 진명여고 시절부터 각종 백일장을 석권하며 문명(文名)을 날렸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재능에 빚댄 ‘한국의 사강’이 그의 별명이었고, 전국 문학 청년들의 팬레터가 쇄도했다고 한다. 여고생의 신분으로 《꽃숨》이라는 시집도 냈다.

문정희는 미당 서정주의 문하에 들어가 시를 배웠다. 스승 서정주는 문정희에게 언어를 다루는 법을 전수하였고, 이를 전수받은 문정희의 앞에 열린 시의 길은 탄탄대로였다. 문정희는 순조롭게 등단하고, 시집을 내고, 이름을 널리 알렸다. 1975년에는 ‘현대문학상’을 받고, 1996년에는 ‘소월시문학상’을 받는 등 국내외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2012년 프랑스 킬트르의 인기 프로그램에 번역 시선집 《찬밥을 먹던 사람》이 소개되었고, 프랑스 예술 전문 방송에서 취재를 하기도 했다. 보통 시인들의 내면에는 가난, 육체의 결손, 불행 등 결핍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에게는 그늘이나 그림자가 없이 탄탄대로이다.

여성의 삶과 피가 되어 주는 시

문정희의 초기 시에서 여성은 소외의 존재이자 박탈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즉 여성 주체를 둘러싼 사람들은 끊임없이 빼앗아 가고, 여성은 빼앗기는 존재, 잃어버리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의 시 〈작은 부엌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똑같은 하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고 썩어 가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후기로 넘어오면서 문정희의 시는 남성에 대한 적대성이 완화된다. 여성과 남성이 평화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여성은 피와 살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당당하게 되살아났다. 한편, 문정희는 그의 시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별 후에 겪을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은 처절하거나 죽을 것 같다가보다는 건조하고 사실적인 것이 많았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부풀린 감정 대신 이별 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조각들을 소소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별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라고 말한다.

물의 시인

문정희는 1993년에 발표한 박사 학위 논문 〈서정주의 시 연구—물의 심상과 상징 체계를 중심으로〉를 기점으로 ‘물의 시인’으로 불려 왔다. 그의 스승인 서정주는 생명의 원형으로서의 물의 순환에 주목했다. 문정희 또한 스승의 영향으로 물에 집착했다. 문정희는 ‘물’을 여성의 물, 양수, 즉 여성의 생명성으로 보고 시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물’에 주목하는 문정희는 물의 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지내면서 원 없이 물을 바라보며, 물과 관능을 연결하여 형상화한 시집 《카르마의 바다》를 내기도 하였다.

교과서 Pick Up

작은 부엌 노래	여성의 상징적인 공간인 부엌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본질을 포착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 가는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 시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 등으로 매몰된 여성들의 삶을 드러낸 시
비망록	과거의 소망을 옛 사랑에 비유하여 정신적 가치에서 멀어진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시
찬밥	찬밥의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보성 명봉역

문정희의 고향인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명봉역은 전형적인 간이역으로, 역 앞 공원에 문정희의 〈명봉역〉 시비가 서 있음. 드라마 〈여름 향기〉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한국 철도공사가 지정한 준철도기념물로도 등재되어 있음.





작가 태그

#2000년대 #시심 동인 #서정시 #농촌 서정시의 복원 #느림에 대한 성찰

문태준 (1970~)

뽕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자라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난 그는 황학산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가 살던 흙담으로 만든 집에 방이 두 칸 있었는데 안방에는 잠박(누에치는 것)을 들여놓고 그 방에서 살았다. 유년 시절 문태준은 초여름이 되면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이고, 염소 풀을 먹였다. “누에에게 젖은 뽕잎을 먹이면 안 돼요. 설사를 하거든요. 비가 내려 뽕잎을 따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빗방울이 뽕잎에 떨어지면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요.” 그는 책에서 배운 것보다 자연에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의 앞마당은 거대한 들판이고, 뒤의 정원은 산이고, 흐르는 냇물이 생수였다. 그의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시가 되어 나왔다. 시 쓰는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릴 때 놀았던 것만을 써도 되겠더라고요.”

책이라고는 교과서가 전부

문태준은 어린 시절, 세계 명작 동화와 같은 책을 읽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책이라고는 교과서가 전부인 그가 중학교 때 처음 경주에 가서 화랑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한다.

문태준의 시 창작 활동은, 기자가 되고 싶어 입학한 고려대 국문과에서 시작했다. 문예 창작 모임에 가입하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첫 시를 발표한 뒤에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방학이 되면 시골로 내려와 농사일을 돕다가 밤이 되면 시집을 읽었다. 그때 읽은 시집이 신경림, 김용택, 고재중, 고은 등과 같은 농촌 정서가 배어 있는 시인들의 시집이었다. 그의 시에 대한 열정은 군에 입대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군대에는 시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시집을 낱장으로 모두 뜯어 온몸에 감추고 복귀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분해해서 가지고 들어온 시는 읽은 뒤에는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 이때 이성복, 황지우의 시에 눈을 떴다고 한다. 시를 읽으니 자신도 쓸 것이 많았다. 한편의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는 시에 대한 사랑을 불태웠다.

가재미를 닮은 여인

문태준의 대표작인 <가재미>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기억 속 장면들이 언어의 표면으로 서서히 인화되는 순간을 채록하여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색한 작품이다. 이 시는 2005년 시인과 평론가 120인이 그해 ‘문예지에 실린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되었다. 이 시의 ‘가재미’는 바로 그의 큰어머니이다. 어릴 적부터 고향 마을에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큰어머니의 병문안을 모티프로 하여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을 압축하여 담아냈다.

교과서 Pick Up 

마음에 뜨는 보름달	추석과 관련한 시에 대한 감상과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을 드러낸 수필
산수유나무의 농사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농부의 농사에 빗대어 표현한,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시
이제 오느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오느냐.’라는 말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표현한 시
평상이 있는 국숫집	소박한 식당의 평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위로하는 모습을 그려낸 시
노모	입가에 주름이 진 노모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문정현(文庭軒)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에 위치. 문태준의 고향 집으로,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강은교
- 고은
- 고정희
- 공선옥
- 곽재구
- 기형도
- 길재
- 김광규
- 김광섭
- 김기택
- 김민중
- 김소월
- 김소진
- 김수영
- 김수옥
- 김시습
- 김영랑
- 김용택
- 김유정
- 김중삼
- 김춘수
- 나태주
- 나희덕
- 문정희
- 문태준**
- 박경리
- 박두진
- 박목월
- 박완서
- 박인로
- 박재삼
- 박지원
- 박태원
- 백석
- 생텍쥐페리
- 서정주
- 성삼문
- 성석제
- 송순
- 신경림
- 신동엽
- 신석정
- 신영복
- 심훈
- 안도현
- 양귀자
- 염상섭
- 오정희
- 유치진
- 유치환
- 윤동주
- 윤선도
- 윤오영
- 윤홍길
- 이강백
- 이규보
- 이근삼
- 이문구
- 이상
- 이상화
- 이수원
- 이양하
- 이용악
- 이육사
- 이철준
- 이태준
- 이호철
- 이항
- 이효석
- 임철우
- 장영희
- 전광웅
- 정몽주
- 정약용
- 정지상
- 정지용
- 정철
- 정현중
- 정호승
- 조세희
- 조지훈
- 주오성
- 차범석
- 채만식
- 천양희
- 최인훈
- 최일남
- 피천득
- 하근찬
- 한용운
- 함민복
- 허균
- 헤르만 헤세
- 현덕
- 현진건
- 황동규
- 황순원
- 황지우
- 황진이

박경리 (1926~2008)



작가 태그

#1950년대 #고통과 불행에 대한 자의식 #토지 #장편 대하소설

문학을 위해 목숨을 건 고투

본명 박금이. 박경리는 1926년 10월에 통영에서 태어나 아버지와의 불화 속에서 성장기를 거쳐 1946년 김행도와 결혼한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이어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상처를 문학으로 풀어낸 그는 진주여고 선배였던 김동리의 부인을 통해 자신이 써 둔 원고를 김동리에게 보인다. 습작 원고를 보고 반응이 없던 김동리는 얼마 뒤 작품을 들고 ‘문예살롱’으로 나오라는 전갈을 보낸다. 그곳에서 김동리로부터 시보다는 소설을 써 보라는 권유를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하지만, 낮가림이 심했던 그는 곧 ‘문예살롱’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경리의 습작 원고를 가지고 있던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다. 단편 소설로 시작한 박경리는 약 26년이 걸린 장편 소설 《토지》로 작품 활동을 마친다. 한국 전쟁의 고통과 군사 독재 시대의 참혹함 속에서 사위인 김지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2008년 5월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정부는 박경리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다.

폐쇄적인 자아에서 사회적 현실까지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군사 독재 등의 파란만장한 현대사 속에서 박경리의 삶은 남편과 아들의 죽음 등 불행에 물들어 있었다. 박경리의 초기 소설은 한국 전쟁을 체험한 직후의 상처를 문학으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자전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의 작품 대부분에서 한국 전쟁 중 남편을 잃은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지식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이들을 통해 그 시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그리워하고, 부정과 악, 허위와 위선, 금전적 이윤 추구만 가득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증오를 나타낸다. 박경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문학적으로 사실감 있게 담아내었고, 그가 겪은 불행이 개인의 운명이 아닌 시대와 사회의 부조리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었다. 이후 1959년 《표류도》를 기점으로 박경리는 단편 소설에서 장편 소설로 중심을 옮기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개인의 불행에만 집중하다가 중기로 오면서 타인과의 유기적 관계로 초점이 옮겨 간다. 《김 약국의 딸들》에서는 딸들의 운명을 통해 자기 체험의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점을 확보하고 기법과 소재 등도 다양해진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와 삶, 그리고 한(恨), 대하소설 <토지>

<토지>는 구한말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를 배경으로 첫 장을 연다. 박경리는 1969년 《현대문학》에 <토지> 1부를 발표한 후 1994년에 탈고할 때까지 약 26년간 이 작품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다. 총 5부 16권으로 구성된 이 대하소설은 대지주인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하여, 최 참판 댁을 둘러싼 친척, 다른 양반집, 하인들, 농민들, 목수, 포수, 노비, 천민 등 다양한 신분과 여러 사정을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설을 끌고 나간다. <토지>는 개화기의 개혁, 의병 항쟁, 동학 농민 운동, 독립운동 등 우리 민족의 현재를 만들어 낸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낸 소설로 민족의 한과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시장과 전장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
토지	구한말에서 해방까지 경남 하동 평사리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담은 장편 소설
김 약국의 딸들	경남 통영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김 약국 집안의 몰락이 지닌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조명한 장편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최 참판 댁과 평사리 문학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 <토지>의 주 무대인 경남 하동 약양면 평사리에 소설 속의 최 참판 댁이 한옥 14동으로 구현되어 있음. 인근의 평사리 문학관에는 <토지> 외에 김동리의 <역마> 등 하동 문학 작품을 수집, 전시, 보존하고 있음.



▶오프라인 박경리 기념관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 박경리의 고향인 통영에 위치한 이 기념관은 박경리 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하고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립됨. 인근에 박경리의 묘소와 박경리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홈페이지: pkn.tongyeong.go.kr/main)



박두진 (1916~1998)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해방기 #청록파 #자연 #평화 #화합 #기독교 #실천

자연을 벗 삼았던 유년기와 외로운 청소년기

박두진은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동신리의 평촌 마을과 양북리의 양협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곳은 나지막한 청룡산과 드넓은 들판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의 시 속 '자연'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18살 되던 해, 그는 서울로 올라와 하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누나가 사흘마다 복음이 담긴 편지를 보내었다. 그 편지들은 그의 외로움을 털어 낼 뿐만 아니라 그가 문학과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한다.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

박두진은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향현〉, 〈묘지송〉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다. 이 당시에는 감상적인 낭만주의와 모더니즘 문학들이 주류였는데, 그는 평화와 화합의 이상 세계로서의 자연에 주목한다. 이후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를 결성하여 시집 《청록집》을 발간한다. 청록파는 자연의 본성을 통해 인간의 염원과 가치를 표현하는 시를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며 그의 시는 사랑과 평화의 이상향으로서 자연을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이다. 이 시에서 그는 해가 솟아 이 세계에 화합과 평화가 올 것을 노래했다. 한편 6·25 전쟁 이후에는 부패한 권력을 직접적으로 비평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옳은 것을 실천하는 의인

박두진은 평생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다. 4·19 혁명 때는 시위 선두에 서서 행진했으며, 5·16 군사 정변 때는 이에 대한 비판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운동 때는 한일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동참하였다. 또한 김지하가 〈오적〉으로 필화 사건을 겪을 당시 감정서를 통해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 4·19 혁명 이후에 연세대에서 해직되었다가 복직되고 5·16 군사 정변 때는 구속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한번은 제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돈 봉투를 받고 크게 노해 봉투를 내던지며 평생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박두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림을 도와주었던 이가 있었는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혼수를 마련해 주기도 했으며,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 후배 문인이나 제자들이 어려울 때는 알게 모르게 그들을 도왔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해	해가 솟은, 화합과 평화의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시
청산도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이상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시
어서 너는 오너라	광복을 맞아 일제 치하에서 상실했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노래한 시
꽃 구름 속에	봄 기운을 느끼며 과거의 고통을 잊기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시.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보기도 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박두진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북리 안성 시립 보개도서관 3층에 위치. 박두진의 친필 원고와 유품, 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음.



박목월 (1915~1978)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해방기 #청록파
#향토적 정서 #민요적 울격 #가
난한 가장

동시와 동요로 시작한 문학 활동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난 박목월은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고 학창 시절에는 독서를 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우던 그가 제일 처음에 썼던 것은 동시였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되었고, 《신가정》에 동요 <제비맞이>가 당선되어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많이 알려진 동요 <얼룩송아지>도 그가 작사한 것이다. 이 당시 그는 평생을 문학에 걸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북의 소월, 남의 목월

그가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정지용에게 “북에는 소월이 있고, 남에는 목월이 있다.”라는 찬사를 들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사용했던 필명이 목월(木月)인데, 이는 자신이 좋아했던 변영로의 호 ‘수주(樹州)’의 ‘수(樹)’에서 ‘나무 목(木)’과 김소월의 호 ‘소월(素月)’에서 ‘월(月)’을 따온 것이다. 1946년에는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를 결성하고 3인 시집 《청록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시문학에 큰 수확을 안겼다. 박목월은 그의 시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였으며 민요조를 개성 있게 수용하여 발전시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나그네>이다. 한편 그는 6·25 전쟁을 겪으며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시의 소재로 가족이나 생활 주변의 것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가정>이다. 이 시에는 다섯 남매를 키우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드러나 있다.

엄격했지만 우리나라의 시를 사랑했던 시인

박목월은 시인 추천에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그는 시를 잘 쓸 뿐 아니라 어떤 시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쓰며 죽기까지 시인으로 살 것인지 짚어 본 뒤에 시인을 추천했다. 유안진 시인도 처음에는 추천을 거절당했는데, 박목월은 문학 전공자들도 힘들면 시를 버리는데 전공자가 아닌 그를 추천했다가 그가 시를 안 쓰면 자신이 무엇이 되냐며 시인 추천을 거절했다고 한다. 어떤 시인은 그의 추천을 받는데 11년이 걸렸다고도 하고 어떤 제자는 그의 집 대문을 발로 박차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나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시인을 추천하는 데 인색하고 엄격했

던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여러 잡지를 편집하고 간행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3년에 발행한 월간 시 전문지 《심상》이다. 당시 재산가에게도 월간 시 전문지 발행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시 발전을 위해 시 전문지 발행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심상》을 발간한 것이라 한다. 오늘날까지도 《심상》은 그의 시 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나그네	남도 길을 걷는 나그네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그려 낸 시
하관	죽은 아우를 하관하며 아우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시
가정	현관에 놓인 아홉 켤레의 신발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감을 표현한 시
산도화	산도화로 대표되는 구강산 깊은 산중의 풍경을 묘사하여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노래한 시
청노루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며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동리·목월 문학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에 위치. 경주 태생인 김동리와 박목월의 생애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용품, 유품 원고 등을 관람할 수 있음.

(홈페이지: www.dmgyeongju.com)



▶오프라인 **박목월 시비**

서울시 한양대 내에 위치.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박목월을 기리는 시비로, 그의 시 〈산도화〉가 새겨져 있음.



박완서 (1931~2011)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해방 #6·25 전쟁 #전쟁 문학 #분단 소설 #가족 #여성 #어머니 #자전적

신여성을 꿈꾸던 어린 시절

경기도 개풍군(휴전선 이북 지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 편입하고 있음.)에 위치한 박적골에서 태어난 박완서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일곱 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주하여 신식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 사대문 밖에 살던 그는 학군 위반을 하여 매동국민학교에 다녔고, 이후에는 서울의 명문인 숙명여고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여성이 교육받는 것이 흔치 않던 시대에 그가 신식 교육을 받았던 배경에는 그를 신여성으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다. 한편, 박완서는 숙명여고 시절 소설가인 박노갑 담임 선생님 아래에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며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한다. 이 당시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소설가 한말숙이다.

6·25 전쟁의 고통

박완서가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한 지 닷새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며, 또한 전쟁으로 가족과 고향을 잃었다. 전쟁 중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부상을 입은 오빠와, 인민군의 강압에 의해 그들의 숙식을 담당했던 숙부의 죽음은 그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인 박적골이 북한 영토가 되어 버려 다시 발을 디딜 수 없게 되었다. 이때의 전쟁과 분단의 체험을 이후에 소설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는 당시 지금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글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쟁·분단 소설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쟁과 분단 속에서 개인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수근 화백과의 인연

박완서는 전쟁 중에 어머니와 올케, 조카들의 생계를 위해 미8군 초상화부에 취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박수근 화백을 만나게 된다. 당시 그는 미군들에게 그림을 사라고 권유하는 일을 했고, 박수근을 비롯한 화가들은 그렇게 요청받은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했다. 자신의 불행에 빠져 있던 그는 전직 간판장이었던 화가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곤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박수근이 진짜 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남의 불행을 바라보게 되며 불행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의 인연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 이후 등단작 <나목>

이 탄생하게 된다. 박수근과 그의 그림이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되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잘 알려진 <나무와 두 여인>이다. <나목>은 박수근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데 일조한 작품이기도 하다.

늦깎이 문학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4녀를 둔 박완서는 문학과 멀어지다가 박수근 유작전을 보고 글을 쓸 결심을 하게 된다. 그의 나이 마흔이 되던 해였다. 등단작 <나목>은 장편 소설로 원고지 1,200매의 분량인데, 이 작품은 그의 첫 작품이라고 한다. 즉, 습작을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쓴 장편 소설이 바로 당선되어 등단한 것이다. 그는 그 비결을 다독(多讀)이라 밝힌 바 있다. 등단을 늦게 한 편에 속하나 그는 문학 활동을 한 30여 년 동안 장편 소설 14편, 단편 소설로 10권 분량을 발표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교과서 Pick Up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가 박적골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서울로 이주해 학교를 다니고 6·25 전쟁을 체험했던 기록을 담은 자전적 소설
나목	6·25 전쟁으로 인한 불행한 삶 속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화가와 그를 통해 주인공이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는 내용의 소설
엄마의 말뚝 2	세 편의 연작 소설 중 두 번째 편으로, 오빠를 잃은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통해 6·25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과 한을 그린 소설
그 여자네 집	일제 강점하에서 징병과 정신대 차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
해산 바가지	아들딸 따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 며느리의 산후를 돌봐 준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박완서의 노란 집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 박완서가 생전에 살던 집으로, 현재는 딸인 호원숙 작가가 살고 있음.



▶오프라인 박완서 자료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도서관 2층에 위치. 박완서의 책과 친필 원고 등을 관람할 수 있음.





작가 태그

#조선 시대 #문인 #무신 #은거
#가난 #시조 #가사 #한시

박인로 (1561~1642)

글재주가 뛰어난 소년

어렸을 때부터 시 짓기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열세 살 때 한시 <대승음(戴勝吟)>을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시골에서 낮에 뿔뚜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지은 한시로 이 시의 제목은 뿔뚜기 노래라는 뜻이다. 뿔뚜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화자가 농사짓는 시골 사람만 재촉 말고 서울 부잣집 지붕에서도 울어서 밭갈이를 권하는 새가 있음을 알리라고 말하는 내용의 시이다. 어린 나이에도 세상의 불공평함을 비판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점에서 그의 비범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무신으로서의 삶

박인로는 그의 나이 31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정세아 아래에서 별시위가 되어 왜군을 무찔렀다. 그리고 경상도 좌절도사 성윤문의 막하에서 수군으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성윤문의 명으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사 <태평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 <태평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박인로는 39세가 되던 해 무과에 급제하여, 그 후 수문장, 선전관을 지내고 조라포 만호가 되었다. 이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몇 년 뒤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이덕형과의 교류

박인로는 한음 이덕형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지은 시조가 <조흥시가>이다. 사도체찰사였던 이덕형이 영남의 고을을 순찰하던 중 영천에 이르게 되어 시조묘에서 성묘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박인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흥시가 나오자 이덕형이 사친의 정을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박인로가 <조흥시가>를 지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제곡>과 <누항사>도 이덕형과의 친교에서 지어진 것이다.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이덕형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뜻을 대신하여 <사제곡>을 지었다고 한다. 작품의 제목인 ‘사제’는 이덕형이 살던 곳으로, <사제곡>은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덕형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한 가사이다. 그리고 이덕형이 박인로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박인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누항사>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누항사>에는 생활의 어려움만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 속에서도 안빈낙도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박인로의 삶의 가치관도 나타난다.

문인으로서의 삶

박인로가 문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사제곡〉, 〈누항사〉, 〈영남가〉, 〈노계가〉 등을 지었다. 그는 정철, 윤선도와 함께 조선 3대 시인이라 불린다. 그는 곤궁한 삶 가운데에서도 유가서를 읽고 시조와 가사를 지으며 안빈낙도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후 후학들이 그의 인덕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도계에 서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도계서원이다. 도계서원에서는 해마다 봄가을로 박인로의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조흥시가	홍시를 보고 아버이를 생각하나 이미 그들이 돌아가신 후여서 홍시를 드릴 수 없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효 사상이 나타난 시조
선상탄	임진왜란 후 전쟁에 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고향에서 놀잇배를 타고 즐기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가사
누항사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할 때 지은 가사로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안빈낙도를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나타낸 가사
노계가	그가 남긴 최후의 작품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 가사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박인로 묘소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위치. 도계서원 근방에 위치하고 있음.



▶오프라인 도계서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위치. 박인로의 문집을 인쇄한 목판각 박노계집판목(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68호)을 보관하고 있음.



박재삼 (1933~1997)



작가 태그

#1960년대 이후 #전통적 어조
#한의 정서 #일상 #자연 #가난
#투병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박재삼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네 살 때 경상남도 삼천포(현 삼천시)로 이주한다. 그의 아버지는 지게꾼이었고, 어머니는 어물전 생선 행상이었으며 그의 유년 시절은 무척이나 가난했다. 그는 이 시기를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추억에서>라는 시이다. 이 시 속에 차가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남편과, 진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고 돌아오며 눈물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등록금이 없어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삼천포여중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듣고 싶어 교실 창밖에 붙어 서서 수업을 엿들었다고 한다. 이를 본 교장 선생님이 그를 야간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그는 여기에서 현대 시조 시인으로 유명한 김상옥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문학의 길

박재삼은 김상옥 선생님 아래에서 문학을 배운다. 그리고 개천예술제에서 차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장원을 받았던 이가 <낙화>로 유명한 이형기 시인이란다. 이후 모윤숙, 서정주, 유치환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게 된다. 이 시기 그는 현대문학사에 취직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시를 썼으며, 이후 여러 출판사와 신문사에서 일하며 문학 활동을 하였다.

그의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은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인데, 이 시에서 그는 전통적 어조를 사용하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한(恨)을 나타냈다. 그는 김소월, 박목월, 서정주를 이어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인 한을 전통적 음색으로 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혼을 둘러싼 일화

박재삼과 그의 부인이 만난 곳은 사천시였다. 그의 부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이웃집에서 찾는다고 하여 갔는데, 낯선 사내 몇 명을 보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것은 선 자리였고, 그는 부인을 잠시 본 뒤에 그날 밤 부인의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찾아왔다고 한다. 부인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으나 주변의 권유로 결혼을 허락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이들은 곧 결혼하였으나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신히여행도 가지 못하였으며 5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고 한다.

힘겨웠던 투병 생활

박재삼은 서른넷부터 세상을 떠난 예순넷의 나이까지 고혈압과 그 합병증에 시달렸다. 그는 서른넷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이때 반신불수가 되고 만다. 그 이후에도 기자 생활과 편집자 생활을 이어 가나 결국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문학 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한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도 그는 13권의 시집, 9권의 수필집을 남기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

교과서 Pick Up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저녁 노을이 비친 가을 강을 바라보며 느끼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한을 노래한 시
추억에서	박재삼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난한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을 회고한 시
흥부 부부상	흥부 부부의 웃음을 통해 가난한 삶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노래한 시
매미 울음 끝에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놓고 사라지는 매미를 보며 사랑의 속성을 깨닫는 내용의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박재삼 문학관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에 위치. 박재삼이 생전 자주 찾았던 서산공원 내에 있으며, 그의 유품, 소장 도서, 일대기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음.



▶온라인 박재삼 온라인 문학관

(parkjaesam.or.kr)

박재삼 문학관의 온라인 사이트. 박재삼의 연보를 살필 수 있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박지원 (1737~1805)



작가 태그

#조선 시대 #북학파 #실학 #이
용후생 #청나라 #가난

연암골에 은거하는 선비

대대로 서울에서 살던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집안은 무척 가난하였다. 조부가 벼슬길에서 물러나자 십여 명 남짓한 그의 식구들은 먹고살 길이 요원해졌으며 거처도 여러 번 옮겨야만 했다고 한다. 그는 생원진사사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인재였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연암골에 자리잡게 된다. 그 이유를 두고 집안의 가난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 갔을 것이라고도 하고, 당대 정치가 홍국영에게 벽파로 몰려 그를 피하기 위해 서울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암골에 정착하게 된 박지원은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의 호인 연암은 이 연암골에서 비롯한 것이다.

청나라로의 기행

박지원은 실학자인 홍대용과 교류하며 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청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친족형 박명원이 진하사 겸 사은사로 청나라에 방문할 때 동행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에 다녀왔던 홍대용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바가 있었다. 청나라를 여행하게 된 박지원은 여행을 하면서 접했던 청나라의 기술과 문화에 크게 놀라고 청나라의 좋은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에 돌아와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집필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의 사회를 비판하며 자신이 생각한 개혁안을 밝혔다. 또한 이 책에서 한문 단편 〈허생전〉, 〈호질〉 등을 통해 조선 사회의 모순과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문체반정과 속죄 편지

《열하일기》를 집필한 후 그는 벼슬길에 올랐다. 1786년에 뒤늦게 음사(蔭仕)로 선공감감역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사복시주부, 의금부도사, 제릉령, 한성부판관, 안의현감, 면천군수, 양양부사를 지냈다.

한편, 그가 안의현감에 재직하던 시기에 정조가 문체반정을 추진하였다. 문체반정은 조선 정조 때에 시행된 문예 운동으로, 한문 문체를 개혁하여 순정 고문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당시에는 《열하일기》의 문체와 같은 참신한 문장이 유행하였고, 사람들은 그러한 문체가 유행하는 원인이 그에게 있다고 여겼다. 그는 규장각직각 남공철의 서신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문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을

수정한다면 관직을 주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중죄로 다스리겠다는 정조의 명이 쓰여 있었다. 그리하여 박지원은 정조에게 속죄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정조는 그의 편지를 보고 글재주를 칭찬하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북학 사상의 선두 주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청나라를 정벌의 대상으로 삼고 북벌론을 내세웠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박지원이 내세운 것은 북학 사상이었다.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가 관직에 있을 때에 수차나 베틀, 물레방아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하고 중국식 건물을 축조하거나 농서를 짓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 정책, 화폐 정책, 중상 정책 등을 제창하기도 했다. 그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또 개혁할 것을 주장한 북학 사상의 선두 주자였다.

교과서 Pick Up

양반전	천한 신분의 부자가 신분 상승을 위해 가난한 양반에게서 양반 신분을 사려는 상황을 바탕으로 양반의 부패와 허위를 고발한 소설
허생전	허생이 만 냥으로 매점매석하여 백만 냥을 만든 상황과 정승 이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한 소설
호질	학자로서 이름 높은 북곽 선생과 수절 잘하는 부인인 동리자가 밀회를 하다가 동리자의 아들에게 발각되고, 북곽 선생이 달아나다가 범을 만나 꾸짖음을 듣는 내용으로, 양반의 위선적 모습을 비판한 소설
광문자전	비천한 거지이지만 따스한 성품을 지닌 광문의 일화를 제시하여 신의 없고 위선적인 양반들을 풍자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박지원 사적비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학교에 위치. 안의초등학교는 옛날 안의현청이 있던 자리로, 박지원이 안의현감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사적비를 세웠다고 함.



▶오프라인 실학 박물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 실학과 관련된 문화유산과 자료를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박지원의 초상을 소장하고 있음.



박태원 (1909~1986)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해방기 #모던 보이 #구인회 #모더니즘 #리얼리즘 #월북

모던 보이 박태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태원은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도쿄 호세이 대학으로 유학하였으나 2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유학하는 동안 공부보다는 영화, 미술, 음악, 술에 빠져 지냈다고 한다. 동그란 검은 뿔테 안경에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바가지 머리를 하고 경성 거리를 거닐던 그를 당시 사람들은 ‘모던 보이’라 불렀다. 여담으로,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역센 머리카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헤어스타일을 위해 그는 취침 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한 후 수건을 씌워 머리를 즐라매고서 잤다고 한다.

문학 활동과 구인회

박태원은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조선 문단》에 〈누님〉이 당선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광수를 사사하고 시, 소설, 평론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 시기는 일본에서 귀국한 뒤 구인회(九人會)에 가입하면서부터이다. 구인회는 9명의 문학인이 조직한 문학 단체인데, 유치진, 이효석 등이 단체를 탈퇴하자 이상과 함께 단체에 가입했다. 이 시기에 대표작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천변 풍경〉을 창작하여 이상과 함께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가 된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세태 소설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다.

절친 이상과의 일화

구인회에서 그는 매우 각별한 친구들을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상이었다. 박태원과 이상은 스스로를 천재로 여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이상의 제비다방과 박태원의 집을 오가며 밤새 문학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태원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은 그가 결혼 후 자신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일까 봐 우려하였는지 그의 결혼식 방명록에 ‘면회 거절 반대’라고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이상이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를 찾아간 지 사흘째 되는 날 그의 방 창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박태원은 한동안 신혼의 재미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불행한 삶

박태원은 6·25 전쟁 중 월북하여 북조선예술가동맹에서 활동한다. 북한에서 평양문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남로당 계열 숙청 작업으로 인해 4년간 집단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한다. 이후 작가로 복귀하였으나 건강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이 무렵의 후유증으로 이후 망막염으로 실명하고 뇌졸중으로 전신불수가 되었으나 그 와중에도 역사 장편 소설 <갑오 농민 전쟁>을 집필하는 등 펜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는 아내(북에서 혼인한 두 번째 아내)에게 원고를 불러 주고 아내가 대필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하였다고 한다. 이때 창작한 <갑오 농민 전쟁> 3부작 중 마지막 3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출판되는데, 이 소설은 북한 최고의 역사 소설로 평가된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식민지 지식인인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것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소설
천변 풍경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쓴 작품으로, 당대 청계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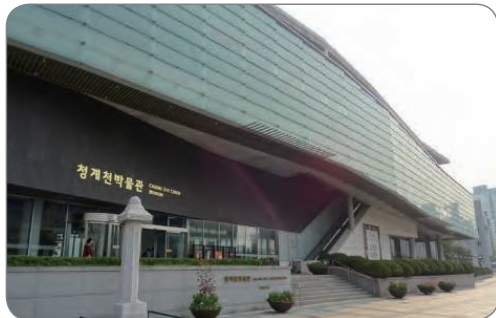
▶오프라인 청계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소설 <천변 풍경>의 배경임.



▶오프라인 청계천 박물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 소설 <천변 풍경>의 배경인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관련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음.



백석 (1912~1996)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평안북도 #토속적 #방언 #공동체 #북한

고향을 그리는 시인

키 185cm의 잘생긴 얼굴의 시인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군의 ‘여우난골(여우가 많이 나오는 골짜기)’로 불리던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산보통학교 재학 시절에 문학과 영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18세의 나이에 소설 <그모(母)와 아들>로 등단하게 된다. 이후 조선일보사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의 아오야마학원 전문부 영어사범학과에 진학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귀국하여 조선일보사에 입사하면서 신문, 잡지 등의 편집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다. 이때 첫 시집 《사슴》을 발간하여 문단에서 크게 주목받게 된다. 이 시집은 100부 한정판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집을 구하지 못한 운동주는 시집 전체를 직접 베껴서 《사슴》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그가 발표한 시는 화제에 올랐으며 그의 시가 수록된 잡지는 찾는 이가 많아 책방에서도 금방 팔려 나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른이 되기 전에 ‘한반도 최고의 서정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 방언 등을 조사하여 시에 담아내고 고향의 모습을 그려 냈는데, 그에게 고향이란 인간, 자연, 귀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그는 시 속에서 고향을 자신의 현실과 상반되는 공간을 그림으로써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백석은 절친한 친구 신현중의 소개로 ‘란(蘭)’이라는 통영 출신의 이화여고 여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몇 번 통영을 방문할 정도로 그녀를 좋아했으며, ‘통영’이라는 제목의 시를 세 편이나 남겼다. 그러나 친구의 배신과 집안의 반대로 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의 친구인 신현중이 란의 외삼촌과 동석한 자리에서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언급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란과 혼인할 뜻이 있음을 밝혀 그 자리에서 란과의 혼인 허가를 얻는다. 사랑하는 이와 절친한 친구를 동시에 잃은 백석은 그것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지 몇 번 그 일을 자신의 시 속에 남기기도 한다.

그 후 어느 회식 자리에서 기생 김영한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자야’라는 애칭을 붙여 준다. 이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 나오는 ‘자야오가(子夜吳歌)’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집안의 강권으로 김영한이 아닌 다른 여자와 혼례를 치렀지만 김영한에게 도망쳐 왔다고 한다. 백석은 김영한과 세 달

가랑 동거했으나 일제 강점하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만주로 떠나며 그녀와 헤어진다. 백석과 헤어진 김영한은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한다.

해방 후 처량한 삶

만주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측량 보조원, 소작농으로 일하며 갖은 고생을 하던 백석은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인 정주에서 남북 분단을 맞게 된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그는 북한에서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기도 하고 시작 활동도 하였으나, 이념의 선전 도구로서의 문학만이 허용되는 북한 문단에서 소외된다. 그 이후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으나 1996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서 Pick Up

여우난골죽	명절을 즐기는 가족의 풍요롭고 흥겨운 장면을 표현해 일제 강점하에서 상실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그려 낸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가족과 떨어져 회한과 비애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다 갈매나무를 보며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
모닥불	모닥불에 타고 있는 온갖 사물들과 모닥불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일체가 된 마을 공동체의 정겨운 삶을 노래한 시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위안으로 극복할 것을 노래한 시
고향	타향에 혼자 앉아 누웠던 화자가 만난 의원이 자신이 아버지로 섬기는 이와 막역지간인 것을 안 후 파스함을 느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길상사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 백석의 연인이었던 자아 김영한이 운영하던 고급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여 만들어진 사찰임.



▶온라인 한국 근대 문학관

(lit.ifac.or.kr)
인천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위치. 백석뿐만 아니라 한용운, 김소월 등 근대 문학 작가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음.



생텍쥐페리 (1900~1944)



작가 태그

#제2차 세계 대전 #프랑스 #비행사 #공군 #동화

글 쓰는 비행사

생텍쥐페리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비행과 관련된 제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생텍쥐페리가 비행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그가 공군에 입대하였을 당시에는 정비 부대에 속해 있었으나, 개인 교습을 받은 후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따고 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대 후에는 우편 비행을 하며 민간 항공 업무에 봉사하기도 했다. 이때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남방 우편기>와 <야간 비행>을 창작한다. 그리고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문학상을 수상하여 작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어린 왕자>를 둘러싼 비화

제2차 세계 대전 중 공군 대위로 활약했던 생텍쥐페리는 전역 후에 드골의 자유 프랑스 진영에 가담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1년여의 미국 생활 중에 그는 대표작 <어린 왕자>를 창작한다. <어린 왕자>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독특한데, 1942년 초 뉴욕의 어느 식당에서 그가 냅킨에 그린 아이 그림을 보고 출판업자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용으로 써 보자고 제안한 데서 <어린 왕자>가 시작되었다. 특히 책에 실려 있는 삽화는 그가 직접 그린 것인데, 처음에는 삽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했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삽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왕자>는 8,0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1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었다.

비행 중의 행방불명

<어린 왕자>를 발간한 후,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옛 비행 중대에 복귀한다. 그러나 연합군 반격 작전을 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행방불명된다. 그의 나이 44세 때의 일이었으며 그 후 50여 년 동안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에서 어부들의 그물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발견되었으며 몇 년 뒤에는 그의 비행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수거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공군 조종사가 그가 탄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 독일 공군 조종사는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가 그가 탄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그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

기를 매일 기도했다고 한다. 만일 그 조종사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추락시키진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화폐가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인 1993년에 사망 50주기를 앞두고 그의 얼굴과 어린 왕자의 그림을 넣은 50프랑 지폐를 유통하기도 했다.

교과서 Pick Up 

어린 왕자	비행 사고로 불시착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 겪은 일들을 다룬 소설
남방 우편기	생텍쥐페리의 첫 작품으로, 비행기 조종사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야간 비행	야간 비행 조종사들의 공포와 나약함,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생텍쥐페리 기념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의 뽀띠프랑스에 위치. 생텍쥐페리의 생애와 관련된 사진뿐 아니라 그가 그린 그림 원본 6점 등을 관람할 수 있음.



서정주 (1915~2000)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해방기 #토속어
#생명파 #시인부락 #설화 #친일 #친군부 독재

방황의 유년 시절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서정주는 선운리, 질마재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여담으로, 그의 시 <자화상>의 ‘아비는 종이였다’라는 행으로 그의 아버지가 종의 신분이라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노름빚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선운리에 정착하여 마름으로 일하였기에 그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유복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와 고창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나,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한 데모에 가담하여 두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력이 있다. 이때는 그가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데모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그는 톨스토이 문학을 접하며 물질로써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주의 사상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적·육체적 방황 후 그는 니체와 보들레르 문학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문학은 그의 초창기 문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시인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 당선되고 김광균, 오장환과 함께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의 초기 문학 작품들은 생명 탐구에 관한 것으로, 원초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의 대표작 <화사>에서는 ‘뱀’을 통해 원시적 생명력과 관능적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후에는 동양 사상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작품 세계가 변화하였는데, 특히 시집 《신라초》에서는 신라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였다. 시집 《질마재 신화》는 그의 고향 질마재 마을의 설화를 소재로 하였는데, 대표작인 <추천사>는 춘향이 그네 타는 장면을 모티프로 하여 쓴 작품이다. 그의 문학은 언어적 아름다움과 시적 상상력으로 문단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 평론가는 ‘한국 현대시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라 극찬하기도 하였다.

친일, 친군부 독재

서정주의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가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빼돌어진 정치적 행보이다. 서정주는 일제 강점기에 다츠시로 시즈오로 창씨개명한 후 친일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마쓰이 오장 송가> 등의 작품을 통해 태평양 전쟁을 미화할 뿐 아

나라 학병 지원을 권유하고 식민 정책에 동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친일 시를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과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군부 독재자가 된 전두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지원 연설을 했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전두환 탄신송시를 창작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고은 시인은 <미당 담론>에서 그의 권력 의존적 생존 행위를 크게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뛰어난 시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가 남긴 과오들로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추천사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을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과 그에 닿을 수 없는 운명적 한계를 나타낸 시
귀족도	귀족도 설화를 차용하여 임과의 사별로 인한 한을 드러낸 시
국화 옆에서	국화가 피는 과정을 그리며 시련을 거쳐 얻게 된 생의 원숙미를 노래한 시
자화상	가난하고 험난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자아를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
무등을 보며	의연한 무등산처럼 삶의 역경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 내는 삶의 여유를 가질 것을 강조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서정주 시인 생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 서정주가 유년 시절을 보낸 질마재 마을의 생가를 복원한 것임. 근방에 미당 서정주 문학관이 있음.



▶오프라인 미당 서정주 시 문학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 서정주의 생가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의 친필 시, 시작 노트, 유품을 관람할 수 있음. (홈페이지: seojung.gochang.go.kr)



성삼문 (1418~1456)



작가 태그

#조선 시대 #집현전 #훈민정음
#사육신 #지조 #절개 #단종

특이한 출생 설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난 성삼문은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낳았느냐?”라는 세 번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여 이름을 ‘삼문(三問)’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성삼문은 1435년 18세 되던 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3년 뒤인 21세에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었다. 안평대군을 통해 그의 학문과 인품의 됴됨이를 전해 들은 세종이 직접 집현전의 학사로 발탁한 것이다. 이때 성삼문과 함께 집현전 학사로 발탁된 인물은 박팽년, 신숙주, 하위지, 이개, 이석형 등이다. 성삼문은 이들과 함께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였다. 이후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면서 수찬(修撰), 직집현전(直集賢殿)으로 관직이 올라갔다.

훈민정음 창제에 큰 역할을 하다

25세 때에는 박팽년, 신숙주, 이개, 하위지, 이석형 등과 함께 휴가를 받아 삼각산 진관사에서 독서에 열중하기도 하였다.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는데, 집현전 학사에게 준 특별한 혜택이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학문 수양에 힘쓰던 중 성삼문은 세종의 명을 받고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1443년, 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 때 정인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개 등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충직하고 깨끗한 절개의 아이콘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성삼문은 성리학적 정치 윤리에 충실하여 어린 임금을 보필하였다. 그러나 1453년, 왕위를 탐내던 수양 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를 죽인 후 집현전 신하들에게는 정난공신의 칭호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성삼문은 공신의 칭호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결국 어린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당시 단종의 옥새를 수양 대군에게 전달하는 임무는 예방승지로 있었던 성삼문이 맡았다. 양위식을 담당할 성삼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자 세조가 울고 있는 그를 한참 차갑게 노려보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현전 출신의 젊은 관료들과 단종 및 문종의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성삼문과 박팽년이었다.

승정원에 근무했던 성삼문은 나름대로 세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1456년 6월 1일에 거사를 이루기로 했다. 그러나 단종 복위를 함께 도모하던 김질이 계획을 누설하여 실패로 끝나게 되고 성삼문은 극심한 고문을 당한다.

성삼문은 세조를 자신의 군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세조가 즉위한 후 녹봉으로 받은 것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세조를 향해 ‘나으리’라는 호칭으로 군신 관계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그가 죽은 뒤에 가산을 빼앗아 보니 세조 즉위년부터 받은 녹봉을 별도로 한곳에 쌓아 두고 ‘어느 달의 녹’이라고 기록해 놓았으며 집 안에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오직 거적자리만 있었다고 한다.

봉래산 제일봉에 있는 낙락장송(落落長松)처럼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과 함께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당하였고, 그의 아들 5형제와 동생 등 남자는 적목이까지도 살해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겪었다. 한번 옳다고 여긴 신념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키려고 했던, 높은 산봉우리의 낙락장송과 같았던 성삼문. 그의 끈고 맑은 지조와 절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이 몸이 죽어 가서~	상징적 시어인 소나무를 통해 입(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와 충절을 노래한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은나라의 충신인 백이숙제의 절개도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면서 임금에 대한 굳은 절개와 지조를 노래한 시조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성삼문 유허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 성삼문이 태어난 곳으로, 유허지 주변에 사당인 충문사와 유허비각이 있음.



▶오프라인 문절사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 성삼문의 위해를 모신 사당으로, 성삼문의 영정과 유품이 소장되어 있음.



성석제 (1960~)



작가 태그

#1990년대 이후 #해학 #풍자
#농담과 진담 #재치 #유머러스
한 문체

글쟁이의 피를 물려받다

1960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난 성석제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가운데서 농촌 사회를 보며 자랐다. 그의 소설에서 ‘문중’과 ‘농촌’이라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의 외가는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마을에 살았다. 시집을 낸 사촌 형과 한시를 쓰는 외삼촌을 둔 탓에 그는 어머니께 ‘글쟁이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의 취미는 바둑과 독서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영한 대역판 《햄릿》과 중고생용 교양서적까지 독파한 그는 4학년 때부터 무협지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문학에 눈을 뜬 시기

성석제는 1974년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시 가리봉동으로 전학을 가고 이후 경신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이곳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그의 문예적 소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어 선생님을 만난다. 고전 문학 담당 주호수 선생님은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무서운 선생님 덕분에 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성석제는 선생님을 잘 따라서 문예반에 들어가 교지 편집 활동도 한다. 이 시기에 그는 문학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

문학의 길에서 만난 벗, 기형도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석제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다.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시생이 많아 출석을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이유였다. 이곳에서 문학계에 발을 들이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시인 기형도를 만난다. 그는 기형도와 집으로 가는 방향이 비슷하여 함께 다니며 많은 시간 동안 문학에 대해 대화했다. 기형도는 일찍이 문학에 뜻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 소양이 탄탄했고 성석제에게 문학을 공부할 것을 권하게 된다. 기형도의 권유로 ‘연세대문학회’에 가입한 그는 대학 생활 동안 문학인들과 가까이 지낸다. 이후 입대를 하는데 군에서의 생활은 파블로 네루다의 저서들과 문학사, 미술사, 철학사, 음악사, 전쟁사, 예술사 등에 관한 책들을 비롯한 다양한 독서와 편지 쓰기의 기회가 많아 문학적 소양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제대 후 역시 기형도의 권유로 교내에서 주관하는 ‘운동주문학상’의 시 부문에 응모해서 가작으로 입선하고, 이어 ‘박영준문학상’에 소설이 당선된다.

영동하고 발달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졸업 후 성석제는 한 선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취직하지만 넉 달 만에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제주, 해남, 상주 등지를 여행한다. 주로 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는데, 이때 떠돌아다니며 수집했던 글감들은 농담과 신화, 현실을 오고 가는 성석제만의 소설을 만드는 재료들이 된다. 1년 후에 그는 유명한 시멘트 회사의 홍보 업무를 하는 부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이 회사가 후원하고 있던 세계 바둑 대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특이한 활동도 하게 된다. 1991년 그동안 발표했던 시를 모아 첫 시집 《낮선 길에 묻다》를 출간하고, 곧 이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 소설가라는 업에 전념하게 된다. 이어서 1994년 이번에는 시집이 아닌 소설집을 내는데 바로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이다. 시로 등단하여 엽편 소설, 단편 소설, 장편 소설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성석제는 소재, 기법, 인물, 문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평단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초등학교 시절의 사생 대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배경으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아이들이 겪는 갈등과 성장을 담은 소설
소년 시절의 맛	어린 시절 동네 형과 함께 먹던 라면을 소재로 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년 시절부터 청년기를 아쉬워하며 쓴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경상북도 상주

성석제의 고향. 이곳에서 성석제는 어린 시절 농촌 사회를 경험함.





작가 태그

#조선 시대 #강호가도 #자연
친화 사상 #유교 #가사 문학
#호남 가단

송순 (1493~1582)

어린 시절과 출사의 과정

송순은 전남 담양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자식을 가르치는 데 남달리 힘을 썼고, 어머니는 효성과 인자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송순은 글 읽기를 좋아했고, 예술에도 재능이 있었다. 10세에 숙부에게 글을 배웠고, 20세가 되어 늘재 박상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21세에 진사에 올라 성균관에서 공부하였으며, 중종 14년 그의 나이 27세에 별과에 급제했다.

원만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오랜 관직 생활을 하다

중종 26년(1531년), 동궁 생일에 쥐를 잡아 사지와 꼬리를 자르고, 이를 동궁 뜰 은행나무에 걸어 동궁을 저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후궁인 경빈 박씨가 아들 복성군과 함께 서인이 되어 쫓겨났는데, 송순은 이 사건의 처리가 옳지 못함을 주장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와 ‘면양정’을 짓고 유유자적하게 지내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홍문관 부응교에 등용되고, 사헌부집으로 승진하였으며 충청도 어사, 통정대군, 도승지, 예문관 직제학, 경상도 관찰사 등을 두루 거쳤다. 송순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중종, 명종, 선조 세 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내외직을 두루 거치고 비교적 순탄한 벼슬길을 달렸다. 관료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성실하고 원만한 인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면양정을 중심으로 한 호남 제일의 가단

‘면양정’은 정자의 이름이면서 송순의 호이기도 하다. ‘면양(俛仰)’이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뜻으로, 아무런 사심이나 꾸밈이 없는 너그럽고 당당한 경지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원래 이 면양정 터에는 광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금어(金魚)와 옥대(玉帶)를 두른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오락가락하는 꿈을 꾸는 그는 자기 아들이 벼슬을 할 것이라 여겨 공부를 시켰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집안의 형편은 가난해졌다. 광씨는 이곳의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송순이 그 터를 사 놓았다가 나중에 정자를 지었던 것이다. 결국 이 정자에서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이 탄생했으니 광씨의 꿈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송순이 처음 이 정자를 지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민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수옥
김시습
김영랑
김용택
김유정
김종성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현
박태원
박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삼문
성석제
송순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익
이육사
이철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장영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요석
차범석
채만식
천안희
최인훈
최인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은 것은 나이 41세 때였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던 그는 당시 조정에서 김안로 일파가 세력을 잡자(앞에서 언급한 동궁 사건이 계기가 됨.) 고향으로 돌아와 뒷산에 소박한 정자를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3년여를 은거하던 송순은 김안로 일파가 실각하자 다시 조정에 나아가, 몇 차례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77세에 의정부 우참찬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관직 생활을 했다. 마침내 관직을 은퇴한 그는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면양정에 머물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많은 가사를 남겼다. 또한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정철, 임제, 양산보, 김성원, 기대승 등이 좋은 경치와 노학자를 찾아 이곳을 드나들며 시 짓기를 배우고 즐겨, 이곳은 호남 제일의 가단을 이루었다.

자연을 좋아하다 자연으로 돌아가다

송순은 80세가 넘어 바둑 두기, 활 쓰기, 독서 등을 하는 것이 젊었을 때와 다름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582년 2월 초하루, 송순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하얀 기운이 지붕에서 하늘로 닿아 무지개와 같았고 붉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했다가 흩어져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전한다.

교과서 Pick Up

십 년을 경영하여~	청빈한 삶 속에서 자연 친화를 통한 안분지족의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모습을 찾으려는 마음을 노래한 시조
면양정가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예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적 삶을 호탕하게 표현한 가사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면양정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 송순이 지은 정자로, 안에는 송순의 <면양정 삼언가>가 판각되어 걸려 있고, 정자 앞에는 <면양정가>의 한 구절을 새긴 비가 서 있음.



▶온라인 한국 가사 문학관

(www.gasa.go.kr)
가사 작품을 고문서로 볼 수 있고 전자책 형태로도 만날 수 있음.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한국 가사 문학관'에 대한 소개도 있음.



신경림 (1936~)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 농민 문학
민중 # 유랑 의식 # 민요적 울
격 # 민요 기행

장꾼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꼬마 시인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난 신경림은 금을 캐는 탄광이 있는 집성촌에 딸린 마을에 살았다. 어린 시절 그는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광산이나 목계 나루 근처를 기웃거리고 붓짐장수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와 노랫가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그에게는 피리를 잘 불어 ‘신통수’라고 불리던 당숙이 있었는데, 당숙은 훌쩍 떠났다가 한참 만에 돌아와 언제나 바깥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경림은 당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길’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이야기와 풍경에 관심이 많아 공책을 무언가를 열심히 썼고, 이를 보던 학교 선생님은 ‘꼬마 시인’이라 불렀다고 한다.

전쟁의 슬픔 속에서 문학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다

신경림이 중학교 3학년일 때 6·25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살이를 하던 신경림의 가족은 9·28 수복 후 곧바로 집을 찾았다가 미처 후퇴하지 못했던 인민군을 피해 탄광 근처의 산속에 숨어 며칠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헌병이 탄광에 숨어 살던 광부 셋을 총으로 쏘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다. 또한 보도 연맹 사건으로 삼촌을 포함해 마을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의 장사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집안 형편도 크게 기울게 되자 신경림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리고 남한강 줄기를 따라 배회하면서 비애와 절망, 희망과 그리움,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며, 결국 학교 시험지를 백지로 내기까지 하는 문제아가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정신을 차리고 서점에 참고서를 사러 갔다가 발견한 도스토옙스키 전집, 백석, 이용악, 정지용의 시집을 읽으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 시작하게 된다.

떠돌이 나그네의 삶, 그리고 민중

신경림은 1955년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학교의 강의보다는 ‘독서회’ 모임에 들어가 책을 통해 갈등을 풀게 된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과외와 번역을 하던 그는 마침내 시 <갈대>가 추천을 받아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서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광부, 농사, 장사, 공사장, 학원 강사 등의 일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 삶에 대해 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중에 작품을

쓰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시 창작에 몰두하고, 1970년 《창작과 비평》에 몇 편의 시를 발표하는데 이 중 하나가 <농무>이다.

어려움이 거듭되어도 곳곳하게 노래를 부른다

1973년 첫 시집이 나오는 것도 못 보고 신경림의 아내는 5세, 3세, 1세의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고, 다음 해에는 병중에 있던 신경림의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신경림은 자신의 궁핍함과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소박하게 미소를 지으며 창작 활동을 하였다. 문학을 통해 민중의 삶에 다가 가려 했던 신경림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하지만 무거운 정치적 사건과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신경림은 오히려 재야의 중요한 직책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집회나 강연도 열심히 나갔다. 끊임없이 정부의 감시가 따라다니고,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기 어려웠지만 그의 시는 더욱 더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

교과서 Pick Up

갈대	인간을 상징하는 ‘갈대’를 통해 삶의 근원적 고독과 비애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한 시
농무	농무가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산업화로 인해 쇠락해 가는 농촌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 주는 시
목계 장터	민중의 삶의 공간인 목계 장터를 배경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떠도는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형상화한 시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 때문에 소중한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사랑과 삶을 그린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신경림 시비

서울시 중구 동국대 내에 위치. 동국대 석좌 교수이자 동국대 출신인 신경림의 시비로, <목계장터>가 새겨져 있음.



▶오프라인 목계 나루터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 현재 배가 드나들지 않아 나루는 없어지고 ‘목계 나루터’만 남아 있음. 목계 나루에 대한 안내와 신경림 시비가 있음.



신동엽 (1930~1969)



작가 태그

#1960년대 #참여 문학 #저항시
#4·19 혁명 #동학 사상

작지만 강한 소년

충청남도 부여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신동엽은 2대 독자로 귀한 아들이었다. 아버지에게 전처 소생의 1남 1녀가 있었으나 아들은 돌 무렵 죽고, 신동엽의 어머니를 후처로 맞아 신동엽 밑으로 아이를 일곱이나 낳았으나 모두 딸이었다. 그중 셋은 일찍 죽었던 까닭에 신동엽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각별하였다.

한편, 신동엽은 부여국민학교 시절에 혼자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눈에 자주 필 정도로 내성적이었다. 반면 학업 성적은 뛰어나 6년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후 신동엽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전주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부여 출신으로는 그가 유일한 합격생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동기생이었던 소설가 하근찬은 신동엽이 매우 내성적이었으며, 학생 사회의 좌우 어느 편에도 어울리지 않고 늘 문학 서적을 끼고 다녔다고 했다. 1학년 재학 중에 해방이 되었는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신동엽은 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와 동맹 휴학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 이 때문에 퇴학을 당한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

배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던 신동엽은 아버지를 설득해 밭 600평을 팔아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6·25 전쟁이 나고 그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었는데 수용소에서 군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굶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이듬해 겨우 수용소를 빠져나와 고향을 향하게 된다. 사람의 눈을 피해 걸어서 고향으로 가는 과정은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던 중 너무 배가 고파 개울에서 가재를 날로 잡아먹기도 하였는데 이때 감염된 간디스토마로 평생 고통을 받는다.

힘든 삶 가운데 피어나는 사랑

고향에 돌아와 동학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 자료를 모아 온 그는 서울로 올라와 친구가 하는 헌책방 일을 도우며 민족의 정신적 실체를 찾기 위해 동학 사상에 더욱 심취한다. 이때 이화여고 3학년 학생이었던 아내 인병선을 만난다. 책방에서 문예지나 인문 서적을 보는 그녀를 평소 눈여겨본 신동엽은 조용히 그녀를 향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고, 그녀 역시 신동엽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눈빛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열렬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만 여전

히 가난했다. 가난한 삶을 미리 예측한 인병선은 양복을 재단하고 재봉하는 일을 배우는 학원을 다니며 틈틈이 미래를 준비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가 운영한 양장점 덕분에 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진정한 하늘을 보고 싶어 한 이 시대의 저항 시인

1959년 시인 박봉우의 추천으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자 그의 아내는 신문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신동엽의 동의 없이 30행 가까이 삭제된 채였다. 이후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수많은 양심 세력이 구속되는 사건 등을 겪으며 신동엽은 적극적인 참여시를 발표한다. 이때 발표한 시가 <껍데기는 가라>, <봄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이다. 1969년 그의 병은 더욱 깊어진다. 간디스토마와 극도의 영양실조 증상이 더해져 간암으로 발전한 것이다. 마침내 신동엽은 4월 7일 입원 치료 일주일 만에 문병 온 소설가 남정현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교과서 Pick Up

산에 언덕에	그리운 사람이 다시 회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여 참된 민족의 새 역사를 맞기를 소망하는 시
봄은	분단의 현실을 '겨울'로, 통일의 시대를 '봄'으로 상징하여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민중을 억압하는 암담하고 거짓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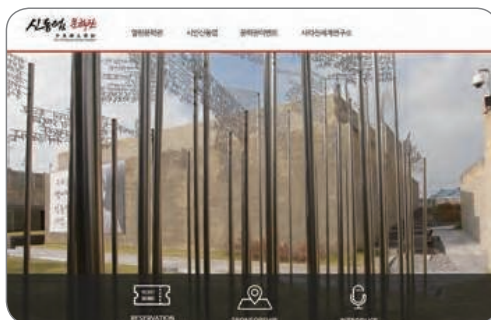
▶오프라인 신동엽 생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 생가와 함께 있는 신동엽 문학관에는 신동엽 시인의 흉상을 비롯한 유품, 육필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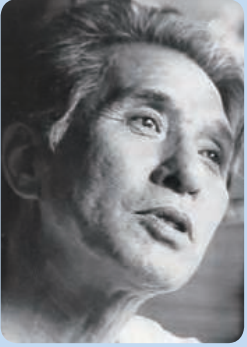


▶온라인 신동엽 문학관

(www.shindongyeop.com)
'신동엽 문학관'을 소개할. 신동엽의 시집과 작품 세계 등을 온라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신석정 (1907~1974)



작가 태그

#참여시 #목가풍 #전원 시인
#저항 의식 #시문학파

한학자 집안에서 자란 유년 시절

신석정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자리 잡은 부안읍 선은동에서 7월 7일 칠석날에 태어났다. 한학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복만을 입고, 한학을 공부하며 자랐다. 열두 살이 되어서야 부안보통학교에 입학해서 신식 교육을 처음 받게 되었는데, 재학 중에는 동급생들보다 성숙했으며 공부를 잘했다. 그는 학교에서 소설가이자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익상의 영향으로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문학 서적과 시작(詩作)에 열중하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하게 되고 자연에 묻혀 농사를 지으며 독학으로 문학의 길을 걷게 된 신석정은, 열여덟 살이 되던 1924년 시 <기우는 해>를 《조선일보》에 투고해 세상에 처음 작품을 알리게 되었다.

목가적인 생활 속에서 키운 문학의 열정

문학의 꿈을 키워 가던 그는 스물네 살이던 해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강원에 들어가 1년간 불교 사상을 비롯해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 이때 원생들의 문예지를 편집하는 일을 하는 한편, 《시문학》에 <선물>을 발표한 인연으로 시문학 동인이 되어 활동한다. 이를 계기로 박용철, 김기림, 이하운, 김영랑 등을 만나게 되고, 한용운, 이광수, 최서해 등을 찾아다니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간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어 주변 시인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독서와 사색, 시작(詩作)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시가 생계 수단이 될 수는 없었고, 한약방을 하는 형에게 생활을 언제까지 의지할 수 없었던 그는 친구의 주선으로 면사무소와 식량영단(동양척식회사의 축소된 형태)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새로 집을 마련하고 ‘청구원(靑丘園)’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마당 가운데 나무와 꽃을 심고 본격적으로 신문과 문학 잡지에 시를 발표하면서 천천히 첫 시집을 준비한다. 1939년 첫 시집 《촛불》에는 그가 꿈꾸던 목가적 전원생활의 꿈과 그의 유토피아적 사상이 담겨 있다. 유명한 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가 바로 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1940년대 일제의 가혹한 검열과 통제 아래에서 문인들은 시를 발표할 공간마저 잃게 되지만, 신석정은 꾸준히 시 창작을 계속하여 1947년 두 번째 시집인 《슬픈 목가》를 발표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의 기쁨을 느낄 사이도 없이

수많은 단체들 간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그는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은둔하게 된다.

격정의 시대 저항 정신의 목소리를 담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의 고향 부안군은 인민군의 세상이 되는데, 피난을 가지 않았던 그는 좌익 세상에서 부안중학교 교장을 겸하여 부안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후에 이 문제로 경찰에 체포된 그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간신히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주로 거처를 옮겨 자숙과 은둔의 생활을 시작한다. 휴전이 되고 세상이 점차 안정을 찾게 되자 신석정 역시 지역의 문인들과도 교류를 시작하고 《자유문학》의 시 추천위원이 되어 전라북도 문단의 상징적인 자리에까지 오르며 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을 거치며 그의 작품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한 현실 비판의 목소리를 담게 되고, 교원 노조에 참여하던 신석정은 정권의 정보 기관에 의해 연행·구속되면서 수난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던 신석정은 고혈압으로 쓰러져 7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1974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교과서 Pick Up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시
꽃덤불	조국 광복의 기쁨을 안고 새로운 조국 건설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은 시
들길에 서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 희망과 이상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삶에 대해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신석정 고택, 청구원(靑丘園)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신석정의 옛집. 신석정은 은행나무, 벽오동, 목련 등을 앞뜰에 심고 이곳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시 창작에 몰두했음.



▶온라인 석정 문학관
(shinseokjeong.com)
'석정 문학관'의 전시실을 소개함. 신석정의 작품과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음.



신영복 (1941~2016)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4·19 혁명
#옥중 서간 #진보 #통일혁명당
사건 #사색

격변의 시기에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어린 시절

신영복은 1941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다. 신영복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대구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의 조선 학생 차별에 항의하다 파면되었다. 몇 년 뒤 그의 아버지는 경상북도가 아닌 경상남도로 지역을 달리해 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간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신영복은 학교 사택에서 태어났다. 사택에서의 생활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신영복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멀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 일부러 장난을 해서 벌을 자초하고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가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이 자신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회고한 적도 있다. 학교의 사택과 교실, 그리고 운동장에만 국한된 그의 어린 시절은 당시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식민지 시절과 해방 전후의 격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된 환경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그는 대학 시절의 대부분을 학교 연구실에서 살았다. 신영복은 훗날 당시의 생활에 대해 ‘이 시기까지의 길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나의 길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닦여진 길이었으며 누군가에 의하여 닦여진 책과 교실이고, 심부름 같은 길이었다.’라고 술회하였다.

감옥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색하다

4·19 혁명은 신영복에게 해방과 전쟁 및 분단의 의미를 한꺼번에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를 하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지하당 조직 사건으로, 신영복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다. 사형이 선고되고 1년 6개월 동안 신영복은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사형수 표식을 달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낭만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무기 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끝도 안 보이는 터널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였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감옥에서의 엄한 규율과 강제, 끊임없는 냉소와 모멸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론과 사상은 껍데

기에 불과함을 느꼈다.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창백한 이성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는 20년의 수형 생활을 하며 크게 두 가지 점을 배웠다고 한다. 첫째는 해방 전후의 역사를 역사로서 이해해 오던 관념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과 나눈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였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

1988년 8·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반년쯤 지나 결혼을 하는데 그의 나이는 49세, 상대는 KBS라디오의 클래식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유영순 PD로 출감 직전에 만나 선 한 번 보고 결혼을 결심한다. 출소 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6년 말에 정년 퇴임하였다. 퇴임 당시 소주 포장에 들어가는 붓글씨(○○처럼)를 써 주고 받은 1억 원을 모두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하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에 대해 소통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병이 악화되어 2016년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교과서 Pick Up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꿔 갑니다	세상을 바꿔 가는 힘은 현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함이나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그의 우직함에서 나온다는 내용의 수필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느니 까닭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윤 추구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한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신영복 추모 공원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 생전에 재직하였던 성공회대학교 안에 있으며, 신영복 선생의 가묘와 글 등이 있음.



▶온라인 신영복 홈페이지 '더불어 숲'

(www.shinyoungbok.pe.kr)
생전에 출간한 책과 서화들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음.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농민 문학 #계몽주의 #브나로드 운동 #독립운동

심훈 (1901~1936)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진 학창 시절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에서 출생한 심훈은 3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다. 본명은 ‘심대섭’이었는데 소설을 연재하면서 ‘심훈’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유달리 똑똑하여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기대가 컸으며, 1915년 전국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이곳에는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이범석이 다니고 있었고, 같이 입학한 동기생으로는 동요 〈반달〉의 작가 윤극영,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높은 박열,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가로 유명한 박헌영 등이 있었다. 심훈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분노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져 나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3·1 운동 등 조국 독립에 열정을 바치다

심훈은 3·1 운동 기간 중 서울에서 전개된 최대 규모의 시위 운동에 동참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남천, 손덕기, 최강윤 등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힌다. 옥중에서도 민족 독립을 향한 심훈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출옥하자 곧 해외로 망명하여 유학을 갈 결심을 한다. 경성고보에서 퇴학당한 그해 겨울 심훈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북경에서 신채호와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를 만나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영화에 눈을 뜨다

심훈은 상해, 남경 등을 거쳐 절강성 항주의 지강대학에 입학하여 선진 학문을 수학하게 된다. 지강대학 유학 중에 특이한 점은 연극에 관심이 컸다는 것이다. 이후 1923년 중국에서 귀국한 그는 연극과 영화,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 아마도 영화가 갖는 역동적인 대중적 호소력에 끌렸던 것 같다. 1925년 조일제가 번안한 소설 〈장한몽(長恨夢)〉이 영화화됐을 때는 이수일 역의 배우로도 도전했으며, 192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소설 〈탈춤〉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다음 해에 일본에서 영화 수업을 받고 돌아온 심훈은 영화 〈먼동이 틀 때〉의 원작 집필·각색·감독에 제작까지 도맡았다. 단성사에서 개봉해 크게 성공했지만 이 영화는 심훈이 마지막으로 제작한 작품이 되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시를 쓰다

심훈이 쓴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랑에 아파하는 마음, 스포츠를 다룬 작품도 눈에 띈다. 결핍과 금지, 검열의 시대에 동성애,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던 여성의 모습도 작품에 담았다. <오오, 조선의 남아여>라는 작품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 때 쓴 시로 손기정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또한 야구장의 합성과 홈런의 짜릿함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야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시를 계기로 심훈의 종손이 심훈 80주기였던 2016년 한화 이글스 홈경기에서 시구에 나서기도 하였다.

상록수처럼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영화감독으로 성공적 데뷔를 한 후에는 신문 연재소설에도 관심을 두고 매진했지만 검열에 막혀 1930년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소설이 중단되었다. 같은 해 저항시 <그날이 오면> 또한 검열로 빛을 보지 못하고 심훈이 세상을 떠난 후 유고집으로 출간되었다. 대표작인 <상록수> 역시 결국 출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유작으로 남게 되었다.

교과서 Pick Up

그날이 오면	조국 광복의 그날을 극한의 시어를 사용하여 강렬하게 표현함으로써 조국 광복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임을 드러낸 시
상록수	농촌 계몽 운동을 발판으로 조국 독립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지식인 영신의 모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필경사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 심훈이 <상록수>를 집필했던 집. '필경사'는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붓을 잡는다'는 뜻을 담고 있음.



▶오프라인 심훈 기념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 심훈의 육필 원고 사본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음.



안도현 (1961~)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소외된 이웃
#연탄재 #연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시 배달

화가로 꿈꾸던 천재 문학 소년

1961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4형제 중 맏이로 태어난 안도현은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다. 어린 시절부터 틈만 나면 수채화를 그리며 화가를 꿈꾸었으나, 우연히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삼중당 문고를 보게 되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문학 동인회 ‘태동기’에 가입하여 홍승우, 서정윤, 박덕규, 권태현, 하응백, 이정하 등의 선후배들과 친분을 쌓고, ‘학원문학상’ 등 전국의 각종 백일장과 문예 공모전에서 수십 차례 상을 받으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 나갔다. 고등학교 시절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문예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대학교 때에는 박기영, 장정일과 함께 활동하다가 우연히 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현실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처한 현실과 문학에 대한 재정립의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특히 나는 팔십 년대와 함께 이십대의 청춘을 보냈다는 것이 더없이 고맙다. 1980년대는 풋내기 문학주의자에게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걸 충격적으로 보여 주었다. 스무 살의 봄날, 시집을 끼고 앉아 새우깡으로 소주를 마시다가 계엄군에게 걸려 목사발이 되도록 얻어터진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시집보다 역사나 사회 과학을 읽는 날이 더 많아졌다. 가슴에 ‘웬은 무기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골방에서 광장으로 내 관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드러내면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수록 시대의 무거움이 버거워 나는 끄꿨다. 그 끄꿨대던, 그 전전공공하던 시간들을 나는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문학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긴장하고 현실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연애로부터 시작된 전봉준

안도현이 1985년에 발표한 첫 시집은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다. 세상에 많은 인물 가운데 안도현은 왜 ‘전봉준’에 관심을 가졌을까? 당시 안도현은 같은 학교 국사교육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좋아하게 된다. 그는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녀가 보는 역사책을 닦치는 대로 읽었고, 어느 날 그녀에게 빌려 온 책 뒷표지에 관군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는 전봉준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면서 그의 삶과 희생, 투쟁 정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면서 당시 현실과, 전봉준이 마주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던 과거가 동일하다고 깨달았고, 안도현은 전봉준의 정신을 시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한다.

교사 생활을 접고 전업 작가로 결심

1985년 이리중학교 국어 교사로 부임하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8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하게 된다. 이후 1994년 김진경, 도종환 등과 함께 ‘교육문예창작회’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1994년 다시 산서고등학교에 복직하였으나 결국 3년 뒤 교사 생활을 접고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과 이웃을 위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족과 사회의 현실을 섬세한 감수성으로 그려내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우리가 눈발이라면	현실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
너에게 묻는다	누군가를 뜨겁게 해 주고 생명을 다한 연탄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이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시
모닥불	모닥불을 통해 현실 속에서 비탈진 역사의 고통을 함께하며 끝까지 울음을 참아 내는 사람들의 인내와 희망을 그린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한국 현대시 육필 공원
대구시 팔공산에 위치.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배출한 시인의 육필 시를 시비로 전시함.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육필 시가 바위에 새겨 있음.



▶오프라인 개화 예술 공원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 1,500여 점의 미술 작품과 시비, 허브랜드, 조각 공원 등이 있으며, 이곳에 안도현의 <옆 모습> 시비가 있음. (홈페이지: www.gaehwaartpark.com)



양귀자 (1955~)



작가 태그

#1980~1990년대 #소시민의 삶
#페미니즘 소설 #드라마·영화
#전주 흥지서림

소시민의 삶을 들여다본 따뜻한 이야기

1970~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양귀자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세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대표작인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은 1986~1987년 발표한 11편의 소설들을 엮은 것이다. 소설의 배경 ‘원미동’은 양귀자가 실제 거주했던 곳으로, 소설에는 작가의 체험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한 양귀자는, 1978년 원광대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1980년 결혼과 함께 상경하여 1981년에 부천시 원미동으로 이사한다. 《원미동 사람들》속 첫 번째 작품인 〈멀고 아름다운 동네〉는 ‘원미동(遠美洞)’의 한자를 풀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원미동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각박한 서울의 삶에서 밀려나거나 농지에서 떨어져나야 했던 사람들이 주민을 이루는 공간이었다. 양귀자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이리저리 들추고 관찰하여, 도시화로 인한 각박한 환경과 이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삶의 의지와 인정을 가지고 서로 엮이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냈다.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양귀자의 소설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으로도 여러 편 만들어졌다. 1988년에는 《원미동 사람들》이 8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희망〉, 〈모순〉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각각 1993년과 2006년에 방영되었다. 또한, 1992년 발표한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페미니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었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제작되었다.

전주 흥지서림 인수하다

1963년 문을 연 흥지서림은 전주시 동문예술거리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고, 양귀자, 은희경, 고(故) 최명희 등 많은 문학인들이 꿈을 키운 곳이기도 하다. 전주의 문학청년치고 흥지서림에서 죽치고 앉아 책 읽기를 해 보지 않은 이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출판업계의 연쇄 부도로 인해 흥지서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양귀

자는 1999년 홍지서림을 인수한다. 양귀자는 “전주여중과 전주여고를 다닐 때 홍지서림에서 책을 사서 읽으며 문학도의 꿈을 키웠었다. …… 아직도 그때 구입한 책들을 잠을 자지 않고 읽곤 했던 기억들이 가끔씩 떠오른다.”라고 하며 홍지서림을 인수한 배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홍지서림은 지하에 이벤트홀과 북카페를 꾸며 2001년 재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선도했다. 현재는 본점인 경원점을 비롯하여 효자점, 아중점, 송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귀자의 사촌인 양계영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살림출판사와의 인연

양귀자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출간한 살림출판사는 남편 심만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감독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의 소개로 만났다. 이창동의 부인인 드라마 작가 이정란(필명 ‘이란’)은 양귀자의 대학 동기이고, 이창동과 심만수는 대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대구 출신인 이창동과 전주 출신 이정란이 다리를 놓아 또 하나의 ‘영호남 커플’이 탄생한 것이다.

교과서 Pick Up

원미동 사람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무대로 1980년대 소시민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 준 연작 소설집. <마지막 땅>, <일용할 양식>, <한계령> 등이 대표적임.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작가가 부천시 원미동을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긴 후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풍경을 그려 낸 소설. 김밥 아저씨, 채소 장수 아저씨, 젊은 전기 수리공 등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홍지서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에 위치. 홍지서림 주변에는 헌책방인 일신서림, 한가네 서점 등도 있어 책의 향기를 났 뻑 느낄 수 있음.



▶오프라인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 원미어울마당(옛 원미구청) 앞에 소설 《원미동 사람들》 속 인물들과 마을 모형 등을 설치해 놓은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음.



염상섭 (1897~1963)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토박이 서울말
#자연주의 소설 #사실주의 소설
#폐허파 #횡보(橫步)

토박이 서울 말씨와 풍부한 어휘

염상섭은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대한 제국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아버지는 가평군수였던 염상섭은 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염상섭이 소설 속에 풍부한 서울 중산층 어휘와 풍속을 담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2002년에는 염상섭의 작품 속 어휘를 정리한 사전이 출간될 정도로, 그의 소설에는 서울 중류층의 어휘와 문체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

1921년 《개벽》에 발표된 염상섭의 등단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받는다. 자연주의는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일어난 사조로, 우리나라에는 계몽 문학에 이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사상이 일본을 거쳐 유입되었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강조한 점에서 사실주의와 구별된다. 염상섭은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듯 꼼꼼하게 개인의 일상과 당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소설에 담아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3·1 운동을 전후한 사회의 모습은 물론 인물의 내면까지 해부하듯 날카롭게 파헤쳐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방향을 매우 예리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실적인 묘사, 의식이나 심리·관념의 감각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나, 개구리의 내장에서 모락모락 김이 난다는 비과학적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창조파(김동인)와 폐허파(염상섭)의 대립

《창조》는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김환, 최승만 등이 창간한 한국 최초의 종합 문예 동인지이고, 《폐허》는 김억, 남궁벽, 오상순, 황석우, 변영로, 염상섭 등이 참여한 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의 문예 동인지다. 1920년대 이른바 ‘창조파’와 ‘폐허파’의 대립은 염상섭이 김환의 소설에 대한 비평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염상섭은 이 비평에서 김환의 글뿐 아니라 문단 전반에 걸쳐 작품성이 미흡한 글들이 나돌고 있다며 기성 문단에 군림하고 있던 작가들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한다. 김동인은 염상섭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김환에 대한 비난이 곧 《창조》 동인 전체에 대한 폄하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한다.

이렇게 시작한 논전(論戰)은 《동아일보》와 《폐허》, 《창조》에 두 사람의 글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논전은 소설가 김동인과 비평가 염상섭의 대립이자 창조파와 폐허파의 대립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학 비평이 일반적인 문학론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분화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이 붙여 준 호 ‘횡보(橫步)’

염상섭은 문인 중에서도 말술로 유명했다. 그의 호 ‘횡보(橫步)’도 술을 좋아하는 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났다. 원래 호는 제월(霽月)이었으나, 늘 술에 취해 걸음 걸이가 바르지 못하다고 친구들이 호를 ‘횡보’로 지어 준 것이다. 그는 60대에 접어들며 몸이 많이 쇠약해졌으며, 이마에 난 뿔루지가 점점 커져 계란 반 개 정도 크기의 혹이 자리잡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혹을 수술해서 떼어 내라고 권해도 ‘이것이 내 생애의 보배’라며 끝내 사양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은 멀쩡했으나 이마의 혹이 먼저 발개졌다고 한다. 그는 죽기 직전에도 부인이 정종을 숟가락에 떠서 입안에 넣어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 입에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삼대(三代)	1930년대 서울의 대지주인 조의관, 아들 조상훈, 손자 조덕기로 이어지는 삼대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소설
만세전(萬歲前)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민족 현실을 그린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식민지 지식인들이 느꼈던 좌절감과 무력감을 청년 지식인이 과장하게 변해 가는 모습을 통해 표현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염상섭 좌상

1996년 종묘공원에 세워졌으나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교보문고 종로 출입구 쪽에 자리하게 됨.



▶오프라인 염상섭 묘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 천주교 혜화동 교회 추모 공원에 염상섭의 묘소가 있고, 그 앞에 문학비가 있음.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성장 소설 #여성적 정체성 #차이나타운 #최초의 해외 문학상 수상

오정희 (1947~)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이 투영된 소설

오정희는 1947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6·25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1·4 후퇴 때에서야 간신히 국군 트럭 한 귀퉁이를 얻어 타고 피난을 떠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정착한다. 피난민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적대심, 배고픔을 참으며 보내야 했던 이 시절의 기억이 소설 <유년의 뜰>에 그대로 담겨 있다. 휴전 뒤 징집되었던 아버지가 돌아오자, 오정희의 가족은 인천시 중양동으로 이주한다. 인천 자유공원 근처 ‘차이나타운’ 혹은 ‘중국인 마을’이 내다보이는 작은 일본식 집이었다. 성격이 소심했던 오정희는 학교가 끝나면 자유공원 꼭대기에 올라가 인천 바다를 바라보거나 신문 연재소설부터 야담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집 근처 중국인 거리에 사는 양공주들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과 비밀스러운 상상력은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매기 언니’ 등의 인물로 그려진다.

등단작 <완구점 여인>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목격한 막내 여동생의 죽음이 모티프가 되었다고 한다. 오정희는 “머릿속이 ‘텅 빈 백지 상태’가 된다는 소설적 표현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이때”였으며 “그때의 충격이 사춘기 소녀의 불안하고 자폐적인 정서와 뒤섞여 <완구점 여인>을 쓰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심하고 반항적이었던 문학소녀

인천으로 이사한 뒤 학교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조용히 학교를 오가던 오정희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글짓기를 시작한다. 중학교 때는 소설가를 꿈꾸는 딸의 허황한 생각을 바꿔 보려는 아버지의 의지로 정구부에서 활동하기도 하나, 고교 입시 준비와 함께 곧 그만두고 이화여고에 입학한다. 이후 내면의 열등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반항적이 되어 결석과 조퇴를 밥 먹듯 하게 된다. 책가방을 든 채로 혼자 교외선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심한 문학 병을 앓으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다. 마침내 등록금을 들고 가출을 감행한 오정희는 어느 민박집에 머물면서 춘천 모 병원의 간호보조원 자리까지 약속받았으나,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털미를 잡히고 만다.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찾지 마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봉투에 찍힌 소인을 본 어머니가 그를 찾아낸 것이다.

1966년에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오정희는 몇 편의 소설을 써 보면서 자신에게 재능이나 광기가 없다는 좌절감과 스무 살의 지적 열망에 사로

잡혀 참담한 시간을 보낸다. 가을 무렵부터는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며 정처 없이 유랑 길에 나설 것인가, 고아원 보모가 될 것인가, 스님이 될 것인가 하는 따위의 궁리를 하며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이러한 괴로운 시간이 오정희 문학의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1968년 단편 <완구점 여인>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첫발을 내딛는다.

최초의 해외 문학상 수상 작가

오정희는 1979년에는 <저녁의 게임>으로 제3회 이상문학상을, 1982년에는 <동경>으로 제1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과 독자의 인정을 받는다. 1996년에는 <구부러진 길 저쪽>으로 제4회 오영수문학상, <불꽃놀이>로 제9회 동서문학상을 수상한다. 2003년에는 독일에서 번역 출간된 책 《새》로 독일의 주요 문학상 중 하나인 리베라투르상을 수상했는데, 해외에서 한국인이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사에서 매우 의미 깊은 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유년의 들	일곱 살 소녀인 '나'가 전쟁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
중국인 거리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인천의 중국인 거리에서 보낸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그린 소설
소음 공해	아파트 아래위 층에 사는 이웃 주민 간 벌어지는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드러낸 소설
소양강 처녀	과일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언어로 실제 삶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시 중구 선린동(1호선 인천역)에 위치.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곳임.



▶오프라인 인천 자유공원

인천 차이나타운 뒤편에 자리잡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음.



유치진 (1905~1974)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사실주의극 #극예술연구회 #초대 국립극장장 #서울예술대학교 #드라마센터

한국 근대 연극의 개척자

유치진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청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대학 시절 연극을 시작한 유치진은 졸업 후 귀국하여 1931년 최초의 근대극 단체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했다. 극예술연구회에서 유치진은 첫 작품 <토막>을 시작으로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 <소> 등 주로 농촌의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실주의극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춘향전>, <마의 태자> 등 역사극에도 관심을 가졌다. 1941년에는 일제 강점기 말 친일 연극을 주도한 극단 현대극장의 대표가 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운영한다. 유치진은 이 극단을 통해 친일파 이용구를 찬양하는 <북진대> 등 친일 희곡을 상연했다. 해방이 되자, 유치진은 몇 년간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그 후 극단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1950년에는 초대 국립극장장에 취임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극계를 대표하게 된다. <조국> 등 일제 강점기를 민족주의 입장에서 재조명하는 희곡과 <장벽> 등 분단 상황을 묘사한 작품, <별>, <자명고> 등 역사, 설화 소재 희곡들을 발표하는데, 특히 <원술량>은 국립극장 개관 공연으로 올려짐으로써 그의 후기 희곡 가운데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된다. 6·25 전쟁 시기에는 고향인 통영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고, 전후에는 황폐화된 현실을 다룬 <자매 2>, <한강은 흐른다> 등을 발표하였다. 1960년 이후에는 드라마센터를 건립하고, 서울예술대학의 전신인 한국연극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우 신구는 드라마센터 1기로 연극 무대에 발을 디디며 유치진으로부터 연기를 배운 것으로 유명하다. 본명이 신순기였던 그는 유치진으로부터 ‘구(久)’라는 이름을 받아 연기 인생을 시작한다. 유치진의 <소>의 ‘아버지’ 역할이 그의 첫 무대였다.

첫 사실주의 희곡 <토막>

유치진의 첫 희곡 <토막>은 우리 현대 희곡사의 본격적인 첫 희곡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백미로 꼽힌다. 1931년 12월부터 1932년 1월에 걸쳐 《문예월간》에 발표되었으며 1933년 2월 극예술연구회에서 공연하였다. 극예술연구회의 첫 창작극이기도 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강력하게 고발한 내용으로, 신파극이 주를 이루던 1930년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목인 ‘토막’은 ‘움집, 움막집’을 뜻하는 말로, 어둡고 음습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배경인 토막의 모습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궁핍하고 참담하

게 살아가던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유치진은 식민지라는 공통의 역사적 아픔을 겪고 있던 아일랜드 극작가 존 오케이시에게 큰 영향을 받아 궁핍한 서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극적 방법론을 터득했다고 한다.

아들 유덕형의 연출로 재공연된 <한강은 흐른다>

<한강은 흐른다>는 1958년 월간 《사상계》에 발표된 희곡으로, 6·25 전쟁 직후인 1951년 동대문 시장을 배경으로 이데올로기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인성을 파괴하는지를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 주는 작품이다. 유치진 탄생 110주년인 2015년 다시 공연된 <한강은 흐른다>는 유치진의 아들이자 현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유덕형이 연출을 맡아 더욱 뜻깊었다. 1958년 공연 당시에도 막과 장의 구분 없이 22경(景)으로 구성하고, 무대 장치를 고정해 채 극적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로만 스포트라이트를 이동시키는 독특한 기법을 보여 주었던 이 연극은, 2015년에는 전통극 양식에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한편, 유치진은 친일 행적을 이유로 1991년 '이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됐다가 시민 단체의 반대로 취소되기도 했으며, 고향인 통영에 세워졌던 흉상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1995년에 철거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교과서 Pick Up

토막	유치진의 첫 희곡으로 일제 강점 하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희곡
소	일제 강점 하에서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은 가족의 분열과 계층 간의 갈등을 비극적으로 그려 낸 희곡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남산 예술센터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위치. 유치진이 설립한 최초의 현대식 극장인 드라마센터를 비롯, 예술 교육 정보 자료관도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 www.nsartscenter.or.kr)



▶오프라인 국립극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 유치진이 초대 극장장을 지냈으며, 유치진이 쓴 <원술량>으로 개관 기념 공연을 함. (홈페이지: www.ntok.go.kr)



유치환 (1908~1967)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생명파 #시인
#부락 #생명의 본질 #생의 의지
#남성적 어조

시비가 가장 많은 시인

유치환은 시비가 많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통영 남망공원, 경주 불국사, 부산 에텐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경남여자고등학교 등 고향인 통영과 교직 생활을 했던 경상도 지역 곳곳에서 유치환의 시비를 만날 수 있다.

유치환은 정지용의 시에 감동받아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31년 《문예월간》에 〈정적〉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1939년 〈깃발〉, 〈그리움〉, 〈일월〉 등 55편이 수록된 첫 시집 《청마시초》를 발간했다. 1940년 유치환은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하여 형 유치진이 개간한 땅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어린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만주의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한 허무 의식과 가열한 생의 의지를 쓴 시 〈절도〉, 〈수(首)〉, 〈절명지〉 등이 시집 《생명의 서》에 수록되어 있다. 6·25 전쟁 때는 종군 문인으로 참가하여 당시의 체험을 《보병과 더불어》라는 종군 시집으로 펴내기도 했다.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유치환은 해방이 되자 고향인 통영으로 돌아와 통영여중 국어 교사로 부임한다. 여기서 당시 가사 교사였던 이영도를 만나는데, 이영도는 시조 시인 이호우의 동생이자 후에 《청저집(靑苧集)》(1954) 등의 시조집을 낸 시조 시인이다. 당시 유치환은 서른여덟 유부남의 몸이었고 이영도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고 있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유치환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이 타올라 이영도에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편지를 보낸다. 마침내 이영도의 마음도 움직여 이들의 사랑은 1967년 유치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쓴 시 〈행복〉에 이영도를 향한 유치환의 애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20년 동안 유치환이 이영도에게 보낸 편지는 5,000여 통에 이르렀다. 유치진이 죽은 지 한 달 뒤, 이 사랑의 편지 중 200통을 추려 모은 서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가 출간되어 세간에 비난의 중심이 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생명파 시인 유치환

유치환은 서정주, 오장환 등과 함께 생명파 시인으로 불린다. 생명파는 시문학파의 기교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시를 통해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한 1930년대 한국 시단(詩壇)의 한 유파를 말한다. 이들은 서정주가 창간한 동인지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시의 형식적인 기교보다는 인간의 생명 의식과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였다. <깃발>, <바위>, <생명의 서> 등 유치환이 1930~40년대 발표한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민장을 방불케 한 장례 행렬

유치환은 안의중학교, 경주중고등학교, 경주여중고, 대구여고, 경남여고 등에서 교장을 지내며 교육계에 오래 몸담았다. 한때 자유당의 독재를 비판하여 교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학생들로부터는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부임하는 곳마다 인기가 높았다.

그는 부산남여상 교장으로 있던 1967년 2월 13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날은 고교 후기 입시날이었다. 학교 일을 늦게 마치고 몇몇 문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던 유치환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유치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1만여 시민들의 행렬이 영도 다리에서 옛 시청 앞을 지나 하단까지 이어져 시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깃발	'깃발'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표현한 시
생명의 서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하여, 극한의 공간에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
바위	바위와 같이 외부 자극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현실 초극적인 삶의 태도를 남성적 어조로 형상화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청마 기념관

유치환의 생가인 거제시 둔덕면에 위치. 복원한 생가와 유치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품들이 전시된 전시실이 있음.
(홈페이지: www.cheongma.or.kr)



▶오프라인 유치환의 우체통 전망대

부산시 동구 산복도로에 위치. 경남여고 교장을 두 차례 지내고 동구에서 삶을 마감한 유치환을 기리고자 부산항이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우체통을 설치함.



윤동주 (1917~1945)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부끄러움 #자아 성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고향 #북간도

만주 명동촌의 문학 청년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1945년 2월 16일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졌다. 윤동주의 국적은 한 번도 조선인 적이 없었다. 일제가 조선을 점령 중이던 시기에 만주에서 태어났고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죽었다. 명동촌은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만주 북간도 지역으로, 1910~20년대 북간도 지역의 종교, 교육,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명동소학교 시절부터 윤동주는 문학적 소양을 보였다. 학교 신문에 동시를 발표하기도 했고, 고종사촌이자 동창인 송몽규와 함께 《새 명동》이라는 월간 잡지를 펴내기도 했다. 윤동주는 1935년 평양의 승실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더욱 문학에 전념하였고, 특히 백석의 시집 《사슴》을 손수 베껴 들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다고 한다. 신사 참배 거부 문제로 승실중학교가 폐교되자 윤동주는 만주 용정으로 돌아와 일본인 학교에 편입했는데, 이 시절 《가톨릭 소년》에 〈병아리〉, 〈오줌싸개 지도〉 등의 동시를 발표한다.

우물 밖으로 나가다

윤동주는 의과대학 진학을 소망했던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1938년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한다. 대학 시절 윤동주는 신중하고 과묵한 성품으로 독서에만 몰두했다. 특히 정지용, 김영랑, 백석, 이상, 서정주의 시를 좋아했고, 발레리, 지드, 보들레르, 프랑시스 잠, 릴케 등에 심취해 있었다고 한다. 졸업반이던 1941년에는 진학과 시국에 대한 불안과 고민, 가정에 대한 걱정 등으로 무척 괴로워하며 지냈는데, 4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 쓴 시 〈또 다른 고향〉에 그의 불안한 내면 의식이 잘 드러난다. 산책은 그의 중요한 일과이자 취미였는데, 같이 하숙 생활을 했던 후배이자 국문학자인 정병욱에 의하면, 그는 늘 학교의 숲과 서강의 들판과 창내벌(지금의 창천동)을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고 한다. 현재 윤동주가 산책했던 인왕산 자락에는 ‘시인의 언덕’이 조성되어 있다.

윤동주는 1942년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식민지 나라인 일본로의 유학을 결정하면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참회록〉에 담기도 했다. 릿쿄대학 영문과와 도시사대학 영문과에서 수학하면서 그는 시 창작에 몰두한다. 이때 쓴 작품이 〈쉽게 씌어진 시〉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윤동주가 남긴 단 한 권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원래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으로 자신이 쓴 시 중 19편을 골라 출판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 검열의 통과 여부를 염려한 연희전문 교수 이양하의 만류로 출간을 보류하고, 자필로 3부를 만들어 이양하에게 한 부,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부를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자신이 간직했다고 한다. 정병욱은 1943년 학병으로 전장에 끌려 나가게 되자, 윤동주의 시집을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들키지 말고 잘 보관해 줄 것과, 윤동주나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연희전문의 선생들을 찾아가 출판을 의논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떠났다고 한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마루 널빤지를 뜯어 그 아래 항아리를 묻고 지푸라기로 건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 뒤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과 함께 이를 보관하였다. 해방 뒤 1948년, 정병욱은 마침내 이 시집을 다른 유고 작품들과 함께 출간할 수 있었다.

교과서 Pick Up

서시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도덕적 순결함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의지와 고뇌를 노래한 시
별 헤는 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자아 성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린 시
쉽게 씌어진 시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반성과 고뇌를 그린 시
십자가	기독교적 속죄 의식과 자기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방황과 갈등을 끝내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
길	참된 자아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담과 쇠문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시
자화상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시
참회록	나라를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느낀 괴로움을 담담히 고백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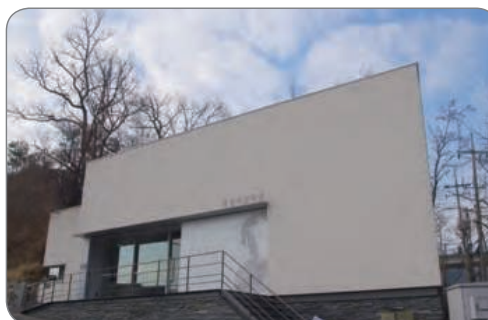
▶오프라인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실, 시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내에 위치. 기숙사로 쓰였던 판손홀 2층에 윤동주 기념실이 있으며, 건물 앞에는 《서시》가 새겨진 시비가 있음.



▶오프라인 윤동주 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 윤동주의 생가에서 옮겨 온 우물, 친필 원고,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관 옆에는 '시인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음.



윤선도 (1587~1671)



작가 태그

#조선 시대 #연시조 #자연 친화 #풍류 #3대 가인(歌人) #보길도 #남인 #예술 논쟁

급할 줄 모르는 의기와 유배 생활

윤선도는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유배와 은거 생활로 보냈으나 학문에 뛰어났고 의약, 풍수지리에도 능했으며, 특히 시조에 뛰어났다. 윤선도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형상화하여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일컬어진다.

윤선도는 161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이이첨 등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고 만다. <견회요>는 이때 지은 연시조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삶의 자세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부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인조반정 직후 유배에서 풀려나 1628년에는 소현 세자(인조의 맏아들), 봉림 대군(인조의 둘째 아들. 후에 효종이 됨.)의 스승이 되어 인조의 신임을 받았다. 이후 예조정랑 등 여러 벼슬을 지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1635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해남에서 지냈다.

윤선도가 가꾼 낙원, 보길도

윤선도가 50세 되던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해남 집에 있던 윤선도는 인조를 돕기 위해 집안 사람들과 노복 수백 명을 배에 태우고 강화도로 향했는데, 도중에 강화도가 함락되었고 뒤이어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의 예를 바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서인이 권세를 잡고 있던 시절에 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유배와 좌천, 파직을 당하는 등 피로했던 윤선도는 이 치욕적인 소식을 듣자 다시는 세상 꼴을 보지 않으리라 하고 제주도를 향해 떠났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윤선도 일행은 상록수가 우거진 아름다운 섬 하나를 발견하여 그 섬에 터를 잡는데, 그 섬이 바로 보길도이다. 윤선도는 섬의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고 하여 부용동이라 이름 짓고, 낙서재를 지어 거처를 마련했다. 그 후에도 윤선도는 두 차례 더 귀양을 가고 벼슬살이를 하러 서울로 가거나 해남의 금쇄동 등 다른 은거지에서 지내기도 했으나, 85세로 낙서재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보길도를 드나들며 섬 이곳저곳에 세연정, 무민당, 곡수당, 정성암 등 모두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짓고 연못을 조성하여 자신의 낙원, 부용동 정원을 가꾸었다.

이곳에서 윤선도가 지은 작품으로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읊은 <어부사시사> 등이 있다.

예송 논쟁과 윤선도

예송 논쟁은 왕가에서 상복을 얼마 동안이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맞선 일을 말한다. 윤선도와 송시열은 예송 논쟁 당시 남인과 서인의 주요 논객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에 효종과 현종을 가르친 스승이었으나 송시열은 종1품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한 반면, 윤선도는 한직에 머물렀으므로 훗날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1차 예송은 1659년 효종이 죽자 어머니인 자의 대비의 상복을 서인의 의견에 따라 1년으로 결정하면서 마무리되었다. 2차 예송은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 왕후가 죽자, 상복 입는 기간을 남인의 주장대로 1년으로 결정하면서 마무리된다. 두 차례의 예송은 표면상으로는 예학과 관혼상제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맏아들이 아닌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1차 예송으로 인해 윤선도는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2차 예송으로 인해 송시열은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된다.

교과서 Pick Up

만흥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재(隱者)의 삶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삶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6수의 연시조
오우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으로 의인화하여 다섯 가지 자연물에 내재한 정신적 가치를 예찬한 6수의 연시조
어부사시사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와 경치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춘, 하, 추, 동 각 10수씩 모두 40수에 걸쳐 노래한 연시조
견회요	귀양지에서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5수의 연시조. 부모에 대한 효심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동일시한 사대부의 의식이 드러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보길도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 윤선도가 13년간 풍류를 즐기며 은거한 섬. 행정 구역상 완도군에 속하나, 해남에서 배를 타고 들어감.



▶오프라인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 해남 윤씨 고택인 녹우당, 비자림, 고산 사당, 고산 유물 전시관 등이 있음.



윤오영 (1907~1976)



작가 태그

#1970년대 #한국적 정서 #전통적 소재 #장인 정신 #고전적 멋 #수필 이론 정립

어린 시절과 교직 생활

190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도 양평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렸을 때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양정고보 재학 시절에는 《동아일보》 학생 문예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경성시내 문학학생회 회장을 맡았다고 한다.

윤오영은 양정고보 졸업 후 보성고에서 20여 년간 국어 교사로 교직 생활을 하다가 1963년 교원 자격 시비로 인한 무자격 교사 해임 조치로 인해 교직을 떠나 학원 강사로 생계를 이었다. 양정고보 재학 시절 3년 후배로 만난 피천득은 졸업 후에도 윤오영이 근무하던 보성고 교무실을 찾아와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윤오영의 수필 <비원의 가을>에 등장하는 ‘금야’가 피천득이고,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나오는 ‘치옹’이 윤오영이다.

말년에 꽃피운 창작 활동

대학교수를 지낸 피천득과 달리 윤오영은 조용히 늙어 갔다. 피천득은 윤오영이 학자로서 뜻을 펼칠 만한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학벌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피천득은 대학 졸업장을 구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임에도 윤오영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이름없는 고등학교 교사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았다고 회상한다.

윤오영은 1959년 《현대문학》에 <측상락>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나, 1972년 창간한 월간지 《수필문학》을 통해 말년에 이르러서야 활발히 문단 활동을 펼쳤다. 피천득은 이를 두고 “치옹이 5년 전에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라고 농담으로 말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수필계를 위해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글이 이 무렵에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적 정서를 담은 작품 세계

1973년 출간한 윤오영의 첫 번째 수필집 《고독의 반추》는 우리 수필 문학의 획기적인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다.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현실적 소재에 고전적인 멋을 더해 고상하고 독특한 정취가 풍기는 문체를 형성하였다. 한국적인 정서와 동양 고전의 바탕에서 우러난 간결하고 절제된 문체와 빼어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서정적이고 여백의 함축미가 돋보이는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 만연체, 화려체의 문장이 득세하던 당시 수필계에서 윤오영의 간결한 문체는 이

새로운 것이었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 소년 시절에 대한 향수, 도교적 관조와 명상, 인물에 대한 묘사 등을 소재로 삼았다.

수필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

윤오영은 본격적인 수필 창작과 이론 정립에 힘써 1970년대 한국 수필의 전문성, 심미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수필 또한 문학의 한 장르이므로 잡문이나 만필(漫筆)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시나 소설 등 다른 장르의 작가들처럼 습작과 문장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오영의 생각이었다. 수필을 꽃감에 비유한 윤오영은 꽃감을 만들려면 고운 껍질을 벗겨야 하듯 좋은 글이 되려면 먼저 문장기(文章氣)를 벗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윤오영은 한국 문학계에 수필이라는 장르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수필의 기본 개념과 내력, 성격과 수법, 수필 문학과 다른 문학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수필 문학 지도서 《수필문학입문》(1975)을 펴냈다.

교과서 Pick Up

방망이 깎던 노인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방망이를 깎는 노인과 조급한 현대인을 대비시켜, 사라져 가는 전통에 대한 아쉬움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수필
참새	참새에 대한 상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후덕한 정서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과거와 비교한 수필
소녀	사춘기 소녀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은은하고 담담하게 표현한 수필
찰밥	'찰밥'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를 회상하며 쓴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보성고등학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 1906년 개교한 사립고등학교로, 윤오영이 20여 년간 재직함. 도서관 3층에 동문 문인인 이상, 임화, 현진건, 염상섭 등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음.



- 강은교
- 고은
- 고정희
- 공선옥
- 곽재구
- 기형도
- 길재
- 김광규
- 김광섭
- 김기택
- 김만중
- 김소월
- 김소진
- 김수영
- 김숙옥
- 김시습
- 김영랑
- 김용택
- 김유정
- 김종삼
- 김춘수
- 나태주
- 나희덕
- 문정희
- 문태준
- 박경리
- 박두진
- 박목월
- 박완서
- 박인로
- 박재삼
- 박지현
- 박태원
- 백석
- 생텍쥐페리
- 서정주
- 성성문
- 성석제
- 송수
- 신경림
- 신동엽
- 신석정
- 신영복
- 심훈
- 안도현
- 양귀자
- 염상섭
- 오정희
- 유치진
- 유치환
- 윤동주
- 윤선도
- 윤오영
- 윤용길
- 이강백
- 이규보
- 이근삼
- 이문구
- 이상
- 이상화
- 이승원
- 이양하
- 이용악
- 이육사
- 이청준
- 이태준
- 이호철
- 이항
- 이효석
- 임철우
- 장영희
- 전광용
- 정몽주
- 정약용
- 정지상
- 정지용
- 정철
- 정현중
- 정호승
- 조세희
- 조지훈
- 주요섭
- 차범석
- 채만식
- 천안희
- 최인훈
- 최일남
- 피천득
- 하근찬
- 한용운
- 함민복
- 허균
- 헤르만 헤세
- 현덕
- 현진건
- 황동규
- 황순원
- 황지우
- 황진이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리얼리즘 #전쟁·분단 소설 #근대화·산업화 #소외 계층 #무속 신앙

윤홍길 (1942~)

궁핍했던 어린 시절

윤홍길은 194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는 금융조합과 식산은행, 산업조합에서 근무한 아버지 덕에 유복했지만 8·15 광복 후 익산으로 이사하면서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내내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했고, 굶기를 밥 먹듯 하였다. 공납금이 밀려 수업 도중에 집으로 쫓겨 가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어린 동생이 홍역과 굶주림으로 허기진 배를 안고 진종일 울어 보채다가 얼굴이 먹자춧빛으로 변해 죽는 것을 목격한 것은 어린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내리 반장에 공부도 수석을 했지만, 이때부터 문제가아 되기 시작하였다. 걸핏하면 싸움을 하고 서점에서 책을 훔치는가 하면 가출하여 대전역을 어슬렁거리다 돌아오곤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문제아 생활을 벗어나고, 공부에 재미를 붙여 전주사범학교에 입학한다.

전쟁, 분단, 근대화를 다룬 소설

1964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한 윤홍길은 국민학교 동기 동창이자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한 여선생에게 연정을 품어 연애편지를 보내곤 한다. 윤홍길은 그녀의 권유로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녀는 그만 지병으로 곧 이성을 떠나고 만다. 이후 윤홍길은 벽지 부임을 자청하여 소설 습작에 몰두하고, 마침내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소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문단에 발을 디딘다. 신춘문예 당선 뒤 윤홍길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원광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윤홍길의 소설 세계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장마〉, 〈황혼의 집〉 등 6·25 전쟁을 체험한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소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나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 등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 〈무제〉,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등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다룬 소설이 이에 해당한다.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개인의 삶을 그리다

윤홍길은 원광대 졸업 후 그때까지 경기도 광주에 속했던 성남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당시 성남은 정부가 서울시 개발을 촉진하면서 청계천과 영등포 등지에

거주하던 도시 빈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이었다. 윤홍길은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성남 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꿈이 좌절된 인물을 통해 1970년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 계층이 겪은 힘겨운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 냈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가난과 소외 문제는 윤홍길의 체험과도 관련된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던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되는 일을 겪는다. 자전적 소설인 <공상반생>에서 그는 “머리통만 한 해머와 소방서에서 쓰는 긴 쇠갈고리와 도깨비 묶는 데에나 쓸 법한 무지무지한 체인을 들고 철거반원들이 …… 벽을 팡팡 쳐서 구멍을 뚫는 동안 나는 옆구리 갈비뼈에 와 닿는 어마어마한 해머의 충격을 감지했다.”라고 회상한다.

윤홍길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이다. 윤홍길은 소설에서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개인이 겪어야 했던 비극과 참혹한 고통을 생생하게 형상화해 내었다. 대표작 <장마>에서 전쟁은, 인민군으로 나간 아들과 국군으로 사망한 아들을 둔 사돈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두 사람의 화해는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무속 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교과서 Pick Up 

장마	6·25 전쟁을 불러일으킨 이념의 대립을 민족의 정서적 동질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한 소설
기억 속의 들꽃	어린이의 눈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릇으로 

▶오프라인 성남 단대공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배경인 단대동(단대리)에 조성된 공원



▶오프라인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 윤홍길이 1994년부터 20여년간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함.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반사실주의
작품 #우화와 비유 #알레고리의
작가 #한국 연극의 파수꾼

이강백 (1947~)

어린 시절의 영웅 신석정

이강백은 194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국민학교 시절은 임춘영 국악단과 당시 전주고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시인 신석정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한 달에 24일이나 극장 구경을 갈 정도로 연극과 영화를 좋아했다. 딱딱한 학교보다는 연극 구경이나 시를 쓰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자 그 당시 전주고등학교를 다니던 이강백의 형은, 신석정에게 동생이 쓴 글을 보여 주었고, 어린 강백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의 시에 덧붙은 신석정 시인의 “잘 썼다.”라는 친필이었다고 한다. 신석정의 평가는 어린 그가 글을 쓰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매진하게 하였다.

우화적 기법을 통한 현실 폭로

이강백은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다섯>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당시 신춘문예 후보 작품들을 심사한 사람은 희곡 <원고지>로 널리 알려진 극작가 이근삼, 연극 평론가 여석기 등이었다. 심사 위원들은 <다섯>이 “반(비)사실주의 작품을 시도하고자 하는 신인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과장된 희화(戲化)와 무주제를 재치 있게 극복하였다.”라고 평하였다. <다섯>은 극단 ‘가교’의 무대를 통해 처음 연극으로 꾸며졌고, 이강백을 1970년대 대표 극작가로 떠올렸다. 그는 우화와 비유로 충만한 반사실주의 작품을 주로 써서 ‘알레고리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한 명의 소설가가 되려 하느냐

이강백이 처음부터 극작가의 길을 걸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1974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최종심까지 올랐다. 결국,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심사 위원이던 이청준은 못내 아쉬워 그의 소설을 문학 잡지에 추천해 주겠다고 연락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희곡 <다섯>을 뽑아 줬던 심사 위원 여석기가 ‘한국에는 소설가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명의 소설가가 되려 하느냐?’라며 희곡을 계속 쓸 것을 추천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던 이강백은 이청준에게 소설은 외도였을 뿐, 희곡만 쓰겠다고 답했고, 이후로도 이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문화인 부부

이강백이 <결혼>을 집필한 것은 1974년, 그의 나이 스물여섯이 되던 해였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나이였지만 여성을 사로잡을 새장도, 말재간도 없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내었다. 그가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한 것은 이 작품을 집필하고서도 한참 후인 1981년이였다. 1979년 이강백은 자신의 희곡을 출판하고자 했고, 평론가로 갓 등단하여 출판사(평민사)에서 일하던 아내 김혜순 시인을 처음 만났다. 이강백은 아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반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검열로 인해 그가 출판하려던 작품 <개뿔>은 제목만 남고 전부 삭제되어 5~6년이 지나서야 희곡집에 실을 수 있었는데, 그의 아픔을 본 김혜순은 그를 한 작가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강백은 1981년 12월, 여덟 살 어린 김혜순과 결혼하였다.

그들은 서로 작업 시간이 달라 이강백은 김혜순이 직장(학교)에 나간 다음인 아침 10시부터, 아내는 남편이 잠든 한밤중에 밥상을 책상 삼아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여 각자의 작품이 미완성 상태일 때는 보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결혼	결혼을 목적으로 맞선에 나온 여자를 속이는 가난한 사기꾼 남자의 해프닝을 그린 희곡
들판에서	형제가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우애를 되찾는 내용을 통해 남북 분단의 극복 의지를 그린 희곡
파수꾼	우화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권력의 폭압성을 드러내는 이강백의 초기 작품 세계를 잘 보여 주는 희곡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판문점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 국토 분단의 비극과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교육장으로, 분단 극복을 주제로 한 작품 <들판에서>의 상징성을 느껴 볼 수 있음.



이규보 (1168~1241)



작가 태그

#고려 시대 #농민시 #광세의 문인 #술과 거문고와 시 #고려의 이태백

기동이라 불렸으나 벼슬에서 세 번이나 떨어지다

이규보는 쟁쟁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기동(奇童) 소리를 듣던 아들을 둔 아버지의 교육열만큼은 대단했다. 이규보는 14세에 최충이 설립한 최고 명문 사학 ‘문헌공도’에 입학하여 시 빨리 짓기 시험마다 1등을 차지해 아버지의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이규보는 술을 즐기고 자유분방하였고, 시험에서 원하는 ‘지엽적 형식주의에 젖은 과시의 글(科擧之文)’ 같은 것을 멀리하였다. 결국 아버지가 그에게 족집게 과외 선생까지 붙였음에도 시험에 세 차례나 낙방하고야 말았으니, 본인보다도 아버지가 더 애가 탔을 일이다.

합격의 꿈

이규보의 원래 이름은 인저였는데, 네 번째 시험을 앞두고 규보로 개명하였다. 일화에 의하면 네 번째 국가감시를 앞두고 꿈에 규성(奎星)이란 노인이 나타나 이번 시험은 장원 급제할 테니 염려 말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꿈을 꾸 이후에 ‘규성에게 보은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규보(奎報)로 고쳤는데 개명 덕인지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는 바로 예부시를 준비하여 첫 도전에 합격했다. 그러나 성적은 최하위인 ‘동진사’였다. 이규보는 실망을 금치 못하여 국가감시 수석이라는 자존심에 합격을 반려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슨 전례 없는 것이냐.”라고 꾸짖었고, 우여곡절 끝에 과거의 관문을 모두 통과하였다.

눈물겨운 구직의 노래(feat. 취업난)

‘천거’의 시절, 변변한 연출 하나 없던 이규보는 급제 후에도 등용되지 못하고 개경의 천마산에 들어가 시문을 짓는 등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그는 26세 때 개경으로 돌아와 빈궁하게 지내며 무관(無官)의 처지를 한탄하였는데, 이때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을 목격하고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지은 시가 바로 <동명왕편>이다. 무관의 생활이 오래 이어지자 점차 초조해진 이규보는 당시 국가감시 좌주였던 유공권에게 “긴 가지 하나 빌려 달라(借一長條).”라고 청탁하는가 하면, 최충헌 정권의 요직자들에게 “지방관이라도 좋으니 ‘시험삼아’ 벼슬한 자리 내 달라.”라는 시까지 보낸다. 이 갈망은 32세 때 최충헌의 공로를 칭송하는 시를 짓고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규보는 이후에도 면직과 탄핵, 좌천 등의 곡절을 겪었으나 최우의 눈에 들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이중적인 행보

이규보는 몽고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항쟁하는 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몽고에 항복한 뒤에도 이규보는 문학을 통한 항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강화로 천도한 어려운 시기에도 집권층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고, 내륙에 남은 농민들을 더욱 극심하게 수탈하였다. 이규보는 고난을 겪는 농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로써 농민의 말을 대변하며 함께 분개하고 항의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를 누린 것도 사실이었다.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

그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해 만년에는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특히 술을 좋아하기로는 벌써 소년 때부터였다. 스스로 “색마(色魔)는 털어 버렸지만 주마(酒魔)와 시마(詩魔)는 버리지 못했다.”라고 자랑삼아 한탄하기도 했다. 이규보의 재주를 높이 샀던 최우가 최충헌에게 청하여 그를 불렀을 때도, “이 사람은 술에 취해야 시를 짓는다.”라면서 이규보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술에 취한 이규보는 40여 운에 이르는 시를 짓기도 했다. 1227년에는 임금(고종) 앞에서 술에 취해 부축을 받고 퇴장하는 바람에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다가 사면되기도 했다.

교과서 Pick Up

동명왕편	고구려 건국 신화를 중심 소재로 하여 중화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탈피하고 민족 주체성을 드러낸 서사시
시벽	이규보의 시에 대한 열정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시 창작의 즐거움과 숙명을 노래한 한시
이옥설	집을 수리하는 일상적인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사와 정치 현실에 적용한 고전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규보 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 이규보의 묘와 영정을 모신 유영각, 묘역정화비, 문학비, 신도비 등이 있음.



▶오프라인 강화 문학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 1층 전시실에서 이규보와 정철 등 강화도와 관련이 있는 옛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음. (홈페이지: www.ganghawa.go.kr)



이근삼 (1929~2003)



작가 태그

#1960년대 이후 #서사극 #부조리극 #표현주의극 #우화 #풍자 #희극 #영문학자 #한국의 버나드 쇼

단신으로 월남하여 교수가 되다

이근삼은 1929년 평안북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종로소학교를 마치고 평양사범학교에 진학했지만 신의주 학생 사건으로 촉발된 반공 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하고, 탄압을 피해 단신으로 월남했다. 월남 이후 그는 혜화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의 전신)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26세에 동국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극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극 이론과 희곡 창작을 공부했는데, 이 시기에 서사극과 부조리극 중심의 현대극을 접하고 새로운 연극에 매료되었다. 그가 영어로 쓴 첫 희곡 <끝없는 실마리>와 <다리 밑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공연되기도 했는데, 그중 <끝없는 실마리>는 이근삼의 최초 극 작품이자 첫 영문 극 작품이지만 전문이 분실돼 그의 희곡 전집에도 실리지 못하고 제목만 언급되다가, 2015년 서강대학교 동료 교수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월슨 희귀본 도서관에서 작품 전문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극작가의 길

이근삼은 귀국 직후인 1960년 《사상계》에 단막극 <원고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왕성한 극작 활동을 펼쳤다. 표현주의극, 부조리극 양식을 활용한 이 극은 당시 리얼리즘극 위주의 한국 연극계에 커다란 충격과 자극을 주었다. 이 작품은 이근삼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서 며칠 쉬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자신의 생활을 상상하여 쓴 것으로, 이근삼은 자신이 한 상상이 적중한 것 같으며 자신의 생활이 <원고지> 속 교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쓰기도 하였다. 이후 이근삼은 많은 희극과 뮤지컬 작품을 집필하였고, 오현경, 박근형, 오영수, 윤주상, 주진모 등 내로라하는 국내 배우들이 그의 작품을 열연하였다.

평론가와의 갈등

이근삼은 때로 극평을 둘러싸고 평론가와 갈등하기도 했다. 1976년 한국연극 협회에서 발간한 《한국 연극》에 20여 쪽에 걸쳐 <연극 비평의 반성>이란 특집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이근삼은 연극 평론가들을 일제히 공격했다. 특히 이근삼은 평론가 이상일이 《공간지》에서 그의 희곡 <왜 그러세요>를 혹평한 일을 두고

자신과 연출자 개인을 욕을 했다고 지적하고, 평론가들이 서울 바닥의 극단을 기웃거리며 까닭 없이 미운 놈을 물고 늘어진다고 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근삼은 자신의 전집을 발간하며 “그들의 평이야 어떻든 그들의 글이 나에게 자극을 준 것은 사실이다.”라며 평론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사회가 힘들 때는 비극보다 희극이 필요하다

이근삼은 희극을 발표하며 오해를 많이 사고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관객석을 메운 관객들의 즐거운 반응을 대할 때마다 한국에서 희극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고, 희극을 차선의 연극 형태라고 생각하는 풍토 속에서도 꾸준히 희극을 발표하였다. 앞서 <끝없는 실마리>를 발견한 동료 교수는 이근삼이 미국서 초기 작품을 쓸 때만 해도 비극적 상황에 더 몰입했지만, 한국에 들어오고서는 ‘사회가 힘들 때는 비극보다는 희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풍자와 코미디를 담은 희극 작가로 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 Pick Up

원고지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성이 매몰된 현실을 풍자한 희곡
국물 있습니다	한 청년의 세속적인 출세기를 다룬 희곡. 원 제목은 <연총>이었으나 당시 주연을 맡은 배우 박근형 등이 좀 더 대중적인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 제목을 지어 주었다고 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 이근삼은 1969년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음.



이문구 (1941~2003)



작가 태그

#1960년대 이후 #충청도 사투리 #농촌 소설 #만연체 #참여 문학 #북에 흥명희 남에 이문구

비극적인 유년 시절

이문구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났다. 5남 1녀 중 4남이었다. 한산 이씨의 핏줄을 강조하던 조부와 군 서기 등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로당 활동을 했던 그의 아버지가 붙들려 처형되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둘째 형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셋째 형도 아버지의 활동에 연루되어 대천 앞바다에 산 채로 수장되었고, 이미 첫째 형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집되어 행방불명인 상태였다. 이 여파로 조부까지 돌아가시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이문구는 졸지에 집안의 장남이 된다. 이때의 참담한 경험 때문에 이문구는 어떤 위치에서나 ‘중립’을 지키고자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인 고은은 바다에 수장된 이문구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대천 앞바다에 가면 생선이나 조개를 먹지 않을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살기 위해 문인이 되다

어머니까지 여의고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이문구는 중학교 졸업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좌익 집안으로 낙인 찍혀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결국 그는 1959년 서울로 상경하여 떠돌이 행상, 도로 포장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는데, 이때 남로당 간부였던 시조 시인 이호우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문인들의 구명 운동 덕분에 살아났다는 기사를 접한다. 이문구는 이 기사를 읽고 문인이 되면 잡혀가도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여 문학가가 되기로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익 문단의 거목인 김동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에 김동리가 교수로 있는 서라벌예대로 진학했다.

평생의 스승 김동리

1961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이문구는 평생 스승으로 모신 김동리를 만난다. 입학 후 이문구는 김동리, 서정주, 박목월, 조연현, 김구용 등으로부터 배웠는데, 김동리는 특히 이문구를 총애하여 대학생이었던 그의 습작소설을 시험 문제로 낼 정도였다. 당시 동기였던 조세희, 박상룡, 한승원 등은 시험을 위해 이문구의 습작 소설을 읽어야만 했다. 또한 김동리의 추천으로 <다가라 불망비>를 포함해 세 편을 《현대문학》에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이문구는 스승을 도와 잡지 《월간문학》을 편집하고 《한국문학》을 창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유신 시절,

보수와 순수 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와 진보 진영과 참여 문학의 선두에 선 이문구, 이들 스승과 제자의 문학적 경향은 상극이었다. 그럼에도 사제지간의 정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1973년 펜클럽 선거 때에는 김동리의 선거 운동 자금으로 쓰기 위해 아파트를 팔기도 했으며, 1988년 서울에서 국제펜클럽대회가 열렸을 때 참여 문학을 대표하던 민족문학작가회의와 김동리가 대립 양상을 보이자 그는 스승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작가회의를 떠나기도 했다.

가장 귀한 양갓음

이문구는 1970년대 들어 농촌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가 나고 자란 보령에서의 경험이 창작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소설 대부분은 충청도 사투리를 입말 그대로 살려 내었다. 1977년에는 발표했던 단편을 모아 《관촌수필》을 냈다. 평론가 염무응은 이 작품을 두고 “잃어진 육친과 쫓겨난 고향에 대해 바치는 최대의 문학적 헌사요, 낡아 길러 준 땅에 되돌리는 가장 귀한 양갓음”이라고 호평했다. 1989년에는 조부와의 기억이 엷힌 토정 이지함을 모신 보령의 화암서원 근처에 폐가를 얻어 집필실을 마련해 《매월당 김시습》을 집필하기도 했다.

교과서 Pick Up

관촌수필	실화를 토대로, 성년이 된 작가가 유년기를 보낸 고향의 모습과 전쟁의 혼란에 떠밀리진 순박한 농민들의 인생 유전을 담담하게 펼쳐 보인 자전적 성격의 연작 소설. 30부작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함.
유자소전	인간미 넘치는 유지필이라는 인물의 삶을 '전'의 형식으로 예찬하고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관촌 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위치. 이문구가 태어난 곳이자 연작 소설 《관촌수필》의 무대가 된 곳. 생가 터와 기념비가 있음.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자동기술법 #모더니즘 #김해경 #건축가 #결핵

이상 (1910~1937)

그림을 좋아했던 소년

이상의 본명은 김해경이다. 어릴 때부터 지리와 도화(圖畵) 교과목은 뛰어났지만, 체조는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이상은 길가에 버려진 화투 그림을 똑같이 그려 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면 늘 무언가를 그리곤 했다. 이런 그의 소질은 화가 고희동이 근무하던 보성고보에 다니면서 꽃피우게 되는데, 교내 미술 전람회에서 1등을 하는가 하면, 몇 년 뒤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성고보 졸업 무렵 그를 양자로 들인 백부의 가세가 기울자, 백부는 가난한 환쟁이는 안 된다고 그에게 배를 굶지 않는 기술자가 되라고 설득했다. 이에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진학하여 건축 공부를 한다. 이상이 건축 용어와 숫자, 기하학 기호 등을 시어로 사용하고 난해한 시들을 쓰게 된 것은 이 시절의 영향이다. 이후에도 이상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 ‘하옹’이라는 필명으로 작품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듣도 보도 못한 단어

이상의 오감도 연작은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문예 부장이던 이태준이 발탁한 것이었다. 이상의 <오감도(鳥瞰圖)>가 공장으로 내려가자 활자를 고르던 부서에서 제목이 조감도(鳥瞰圖)의 오자가 아니냐며 물어 왔다. 사전에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조판을 본 교정부와 편집국장도 난리였다. 진통 끝에 시가 신문에 실렸지만, 독자들의 투고와 항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이 연작은 예정된 30회의 절반인 15회 만에 중단된다. <오감도>가 나가는 동안 이태준은 안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금홍아, 금홍아

이상은 백부의 양자로 들어간 지 20년 만에 가족과 합치나 불과 보름을 건디지 못한다. 그는 백부의 유산으로 종로 1가에 ‘제비’ 다방을 개업하고, 결핵 치료를 위한 온천 여행 중에 만난 술집 여급 금홍을 불러 마담으로 앉힌다. 금홍은 이때 겨우 스물한 살, 이상은 스물네 살이었다. ‘제비’에는 당대의 문인들이던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윤태영 등이 즐겨 찾았다. 이상은 다방을 개업해 놓고도 딸린 골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거나 거리를 쏘다녔다. 금홍의 남자 관계를 방임하고 나

중에는 매춘을 하는 금홍을 지켜보기도 한다. 다방은 두 해 만에 문을 닫았고, 금홍은 도로 술집에 나가며 걸핏하면 외박을 하다가 결국 이상의 곁을 떠난다. 1인칭 독백으로 시작되는 <날개> 속의 ‘나’는 바로 작가 이상 자신이다.

짧은 결혼 생활

‘제비’의 문을 닫은 이후에도 이상은 다방을 여러 번 열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청소부로 일하던 동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셋방을 전전하다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다 1935년 말, 화가 구본웅의 추천으로 ‘창문사’에서 일하면서, 이화여전을 나온 평범한 성격의 변동림을 만나 신혼살림을 차린다. 이때부터 이상은 글쓰기에 매달려 많은 작품을 쏟아 냈는데, 그것도 잠시, 결혼한 지 단 석 달만에 모든 걸 뒤로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내심 김기림과 함께 프랑스로 가겠다는 꿈을 안고 간 것이었으나 악화되는 결핵과 생계 부담으로 병상에 눕고, 이 소식에 급히 도쿄로 간 변동림의 품에서 숨진다. 이상이 가고자 했던 프랑스는 정작 변동림이 가게 되었는데, 후에 그녀는 화가 김환기와 재혼 후 함께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에서 미술 평론을 공부하였다.

교과서 Pick Up

거울	인간 자아의 모순이 빛내는 비극적인 자의식을 노래한 초현실주의 시. 현실적 자아(거울 밖의 나)와 내면적 자아(거울 속의 나)의 분열 및 단절을 거울을 매개로 형상함.
오감도	띄어쓰기와 단락 구분을 무시하고, 역설, 아이러니, 숫자나 기호의 도입 등 일상적인 언어 규범을 무시하여 기존의 관념을 깬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이상의 집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 이상이 세 살때부터 20여년간 살던 큰아버지의 집터는 현재 필지를 쪼갬 탓으로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중 한 건물을 이상과 관련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음.



▶오프라인 이상-한국 현대 문학관

서울시 중구에 위치. 한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의 자료가 있음. 이상의 초상과 시집이 있고, 쉼터 '제비'는 이상이 운영한 다방 이름에서 가져옴. (홈페이지: www.klmm.or.kr)



이상화 (1901~1943)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백조〉 동인 #퇴폐주의 #저항시 #파스콜라 #가프 # 7당 사건

불면증과 방랑의 시기

이상화는 190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15세에 경성중앙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였으나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3학년이 되면서 내적 방황으로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결국 3년을 수료한 1918년 3월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때 현진건·백기만·이상백과 습작 동인지 《거화(炬火)》를 내었다고 하나 책은 전하지 않는다. 같은 해 7월, 그는 집을 나가 입은 옷 그대로 강원도 일대를 방랑했다. 3개월 만에 형편없는 행색으로 돌아온 그는 후에 이때의 체험을 산문시 〈금강송가〉로 남기기도 했다. 다시 상경한 그는 현진건의 소개로 《백조》 동인이 되었고, 비탄어린 시를 쓰고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을 추구했다.

좌절된 프랑스 유학

1922년 이상화는 꿈이었던 프랑스 유학 준비차 동경의 외국어 전문학교인 아테네 프랑세에 들어가 단기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는 한국인을 포함하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조선인 유학생들은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상화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귀국해야 했다. 이후 퇴폐적인 초기 시와 달리 저항 의식, 민족주의를 기조로 하는 시를 많이 발표하였다.

정직한 인식, 절실한 감동

갈등과 좌절의 시기였던 1920년대, 이상화는 현진건, 나도향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다. 술집에선 그를 대구 명문가의 귀공자로 대했고, 용모가 훗날 그는 어딜 가도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 가회동에 기거하면서 시작(詩作)에 몰두하였고 1926년 그의 대표작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여 일약 시단의 총아가 되었다. 이 작품에 담긴 저항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시가 하나의 복자(覆字)도 없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탄압이 더욱 심해지는 데 맞서는 새로운 시풍을 개척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작품만 쓰는 쪽으로 후퇴하려고 하지도 않아 창작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발표한 작품은 모두 60편 정도이며 시집 한 권 남기지 않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보화와의 만남

어쩌면 너와 나 떠나야겠으며 아무래도 우리는 나누어져야겠느냐?

남 몰래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 남 몰래 이별이 올 줄은 몰랐어라.

꼭두머리로 오르는 정열에 가슴과 입술이 떨어 말보담 숨결조차 못 쉬노라.

오늘 밤 우리 둘의 목숨이 꿈결같이 보일 애 타는 네 맘속을 내 어이 모르랴.

- 〈이별을 하느니〉 중에서

강원도 방랑 끝에 돌아온 이상화는 백부의 엄명으로 집안에서 맺어 준 여인과 혼인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른 이였으니, 바로 일본 유학 시절 만난 함흥 태생의 쓰다영어학숙생 유보화였다. 이상화와의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의 시 〈이별을 하느니〉는 유보화를 두고 쓴 것이라고 한다.

경주 이씨 가문의 용봉인학(龍鳳麟鶴)

이상화 고택 문 위에 걸린 액자 속 ‘용봉인학’ 네 글자는 이상화와 그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네 형제가 모두 걸출했다. 형 이상정은 독립운동을 한 장군으로, 이상화는 시인이자 교사로, 동생인 이상백과 이상오는 각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지낸 학자이자 체육 행정가,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지낸 수렵가로 한 생을 품미했다.

교과서

Pick U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상화 고택

대구 중구 서성로에 위치. 이상화가 1939년부터 작고하던 1943년까지 지내던 곳임.



▶온라인 이상화 기념사업회

(www.sanghwa.or.kr)

이상화의 연보와 발자취, 그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음.





작가 태그

#1990년대 이후 #자전적 성장 소설 #강릉 #전방위 작가

이순원 (1958~)

촌장이 있는 유교 마을에서 태어나 정혼자와 결혼하다

이순원은 1958년 강원도 강릉의 대관령 근처 마을에서 태어났다. 농경 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규범이 많이 남아 있어 지금도 촌장이 있고, 정월 초이튿날에는 마을 사람이 모두 함께 촌장께 세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순원이 어린 시절 그의 집 안 어른들은 정씨 포은가의 여식과 이순원의 정혼을 맺었는데, 이후 이순원은 이 정혼자와 결혼하였다.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

이순원은 아직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네온사인’을 구경하러 강릉 시내로 갔다. 밤이 되길 기다려서 본 것은 조미료 ‘미원’ 두 글자와 미원 냄비와 깡통 모습의 불빛이었는데, 정말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심경이었다고 한다. 뉘 놓고 바라보다가 밤이 늦어 20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는 나를 촌에서 낳았지만 나는 결코 촌에서 안 살리라.’ 되뇌면서 멀고도 험한 밤길을 걸었다. 하루빨리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가장 빨리 대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상고에 진학하였다가 사춘기의 방황으로 가출해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를 짓기도 했다. 비록 가출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의 경험은 나중에 <19세>라는 작품이 된다.

경영학도와 조세희

이순원의 서재 책장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한국 대표 문학 전집》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문학을 향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딱히 읽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집물, 번역 소설 등을 닦치는 대로 읽으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대학을 갈 때도 국문과나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경영학과에 입학한다. 그는 1978년에 나온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고 ‘소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조세희의 소설을 필사하며 이제까지의 독서를 바탕으로 소설 공부를 시작하였다.

두 아들의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이순원은 종종 아들을 대상으로 한 글을 발표하였다. 《아들과 함

《계 걷는 길》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대관령 꼭대기서부터 산 아래 할아버지 댁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강릉 지역 문인들과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써 보라’고 권하였고, 한 출판사 대표도 적극 권유하는 바람에 쓰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주신 물레

이순원은 졸업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면서 10년가량 신춘문예에 응모했지만 무수히 낙선했다. 하지만 1988년 《문학사상》 신인 공모에 〈낮달〉이 당선되어 등단하게 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이순원은 등단 후에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5년에야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순원의 집필실에는 물레가 있는데, 물레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물건으로, 그가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글이 물레에서 실이 나오듯, 술술 풀려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 준 것인데, 이순원은 가끔 글이 풀리지 않을 때 물레를 돌려 본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내 마음의 희망등	《내 인생의 한 사람》에 실린 작품으로, 이순원이 초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과의 일화를 담은 수필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떨어뜨렸을까	이순원이 아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수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야단치는 대신 학교 가는 길의 이슬을 떨어뜨렸을까 어 주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음.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은비령 고개

강원도 인제군 뒤둔리 고갯길 일대. 원래 필레령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 은비령은 허구의 지명이었으나, 소설 《은비령》이 유명해지면서 당시 도로포장으로 이용이 쉬워진 길을 은비령으로 부르게 됨.



▶오프라인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은 강릉 출신인 이순원이 부채 모양의 지형에서 착안하여 만든 이름임.



- 강은교
- 고은
- 고정희
- 공선옥
- 곽재구
- 기형도
- 길재
- 김광규
- 김광섭
- 김기택
- 김만중
- 김소월
- 김소진
- 김수영
- 김숙옥
- 김시습
- 김영랑
- 김용택
- 김유정
- 김종삼
- 김춘수
- 나태주
- 나희덕
- 문정희
- 문태준
- 박경리
- 박두진
- 박목월
- 박완서
- 박인로
- 박재삼
- 박지현
- 박태원
- 백석
- 생태취매리
- 서정주
- 성성문
- 성석제
- 송순
- 신경림
- 신동엽
- 신석정
- 신영복
- 심훈
- 안도현
- 양귀자
- 염상섭
- 오정희
- 유치진
- 유치환
- 윤동주
- 윤선도
- 윤오영
- 윤홍길
- 이강백
- 이규보
- 이근삼
- 이문구
- 이상
- 이상화
- 이순원
- 이양하
- 이용익
- 이육사
- 이철준
- 이태준
- 이호철
- 이항
- 이효석
- 임철우
- 장영희
- 전광용
- 정몽주
- 정약용
- 정지상
- 정지용
- 정철
- 정현중
- 정호승
- 조세희
- 조지훈
- 주오석
- 차범석
- 채만식
- 천양희
- 최인훈
- 최일남
- 피천득
- 하근찬
- 한용운
- 함민복
- 허균
- 헤르만 헤세
- 현덕
- 현진건
- 황동규
- 황순원
- 황지우
- 황진이

이양하 (1904~1963)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자연 예찬 #나무 #영문학자 #월터 페이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

이양하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여 1923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수필가이기도 하지만 연희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검정 교과서, 영한 사전 등을 발간한 영문학자이기도 한데, ‘외국 문학 전공의 변(辯)’이라는 칼럼에서 그가 영문학을 전공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칼럼에 따르면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답게 이양하에게도 한 때 완전히 책에 사로잡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세계에 지나치게 늦도록 머물러 있다가 일생의 업과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기로에 서는 날까지도 지각 없이 책의 세계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문학을 배우기 시작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문학의 다양한 길 가운데 그가 영문학을 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월터 페이터(영국의 비평가. 19세기 말 데카당스적 문예 사조의 선구자)였다. 당시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월터 페이터의 책 《문예 부흥》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주석까지 찾아보며 끈기 있게 읽었지만, 태반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의 결론을 읽던 날 이상하게도 월터 페이터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느꼈고,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양하는 자신에게 문학을 가르친 것은 실제로 월터 페이터였다고 말하였으며, 그를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시와 수필을 사랑한 영문학자

이양하가 문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시와 수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월터 페이터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시와 비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꾸준히 수필을 발표하였다. 시인 이하운은 신변잡기 글과 수필의 구분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논조의 글을 쓰며 “이양하가 수필 문학 연구가 깊고 수필에 대한 진지성이 돋보이며, 이러한 수필가들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수필 문학에 눈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양하는 1948년 첫 수필집 《이양하 수필집》을 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록 예찬>이 수록되어 있다. <신록 예찬>은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작가가 강의를 마치고 학교 뒷산에 올라 5월의 신록을 바라보며 쓴 글이다.

정지용, 운동주와의 인연

이양하는 한 살 아래였던 시인 정지용과 친분이 깊었는데, 1935년 《정지용 시집》이 나오자 시집 출간에 맞추어 〈바라던 지용 시집〉이라는 글을 4회에 걸쳐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서평이라기보다 정지용의 시 세계를 전반적으로 다룬 시인론에 가까웠는데, 정지용의 시집을 처음 대하는 감격과 기쁨을 한껏 드러내었다. 또 정지용의 우격다짐으로 수필 〈글〉을 신문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양하는 시인 운동주와도 인연이 있다. 이양하는 1934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사로 지내다 1942년부터는 연희전문학교 문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그의 제자 가운데 운동주도 있었다. 운동주는 1941년 졸업을 앞두고 자필 시고집(詩稿集) 세 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한 권을 은사인 이양하에게 주었다. 그의 시고를 읽은 이양하는 곧 일본 유학을 떠날 운동주의 신변을 걱정하여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였다. 이후 이양하가 갖고 있던 시고집은 유실되고, 정병욱에게 준 것이 남아 광복 뒤에 출간되었는데 이 시집의 서문은 정지용이 썼다.

교과서 Pick Up

나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성자와 같은 나무의 생태를 보며, 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수필
신록 예찬	5월의 신록을 제재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감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혜택을 예찬하고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적인 내용의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 이양하가 강사와 교수로 재직하며 〈신록 예찬〉 등의 수필을 집필했던 연희전문학교의 후신임.



이용악 (1914~1971)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모더니즘 #북방 정서 #가난 #유미민의 고통 #조선문학가동맹 #월북

북방 정서의 근원지

이용악은 함경북도 경성의 두만강 언저리에서 태어났다. 남쪽으로는 작은 평야와 냇물이 흐르고 서쪽 멀리로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산들이 자리하며, 동쪽으로는 지척에 푸른 동해가 자리한 소읍이었다. 여진을 몰아내고, 세종이 국경을 정비한 흔적이 있던 이곳은 그의 시를 일컬을 때 거론되는 북방 정서의 배경이 되었다.

가난한 고학생의 생생하고 서정적인 시

이용악은 8세 때 소금 밀매업을 하던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국수, 떡, 계란 장사 등으로 어렵사리 생계를 꾸리며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고학으로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22세 되던 해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學] 신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유학 시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졸업할 때까지 도쿄 근교의 해군 도시에서 날품팔이 생활을 하며 군대에서 남은 밥으로 끼니만 간신히 때우는 궁핍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시 <패배자의 소원>을 발표하며 등단하고, 시집 《분수령》과 《낡은 집》을 발표하였다. 《분수령》에서 소년 시절의 가혹한 체험, 고학, 노동, 가난, 고달픈 생활인으로서의 고통 등 자전적 체험을 뛰어난 서정시로 읊었다면, 《낡은 집》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삶의 터전을 잃은 유미민의 참담한 삶과 궁핍한 현실로 확대하였다.

가난한 직장인

1939년 귀국한 그는 《인문평론》의 기자로 근무하며 문인들과 어울렸다. 그와 가깝게 지냈던 시인 서정주의 회고에 따르면 이용악은 가난하여 집도 절도 없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공원 벤치를 숙소로 삼았고, 겨울에는 약국을 경영하던 시인 김상원의 가게에서 밤을 보낼 정도였다. 시를 쓸 안정된 공간이 없어 ‘길을 걸으며, 또는 전차나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거려 가며’ 썼다. 한번은 신진 소설가의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창에 주먹만 한 돌맹이를 던지기도 했고 또 한번은 바에서 술을 마시던 서정주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칼로 그의 셔츠를 죽 찢어 놓기도 했다고 한다. 서정주는 이용악을 “살려는 게 아니라 꼭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회고하였다. 이런 참담한 가난 속에서 나온 시가 <오랑캐꽃>이다.

친일과 북한 체제 미화라는 오점

1941년 《인문평론》이 폐간당하자, 그는 친일 성향의 잡지에 죽음을 미화하며 대한의 청년에게 일제 군국주의의 충실한 전병(戰兵)이 되기를 부추기는 시를 씀으로써, 변절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용악도 그 점을 의식했는지 광복 후의 작품에서 친일적 경향의 시행들을 상투화함으로써 시적 친일의 강도를 약화 혹은 무력화하려 애썼다.

광복 후 서울로 돌아온 이용악은 기자로 일하며 조선문학가동맹 등에 가담하여 좌익 활동에 앞장섰는데, 서정성보다는 사상적이고 직설적인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49년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으나 6·25 전쟁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출소하여 북으로 넘어갔다.

월북 이후 숙청으로 잠시 집필 금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곧 문학적 부역에 동참하였으며 그의 문학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북한 체제 찬양 및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에 헌신한 점 역시 작가 정신을 배반한 행동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과서

Pick Up



그리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낡은 집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탈북네의 가족사를 통해 유이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노래한 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가난한 식민지인의 설움을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 이용악이 미군정에 의해 갇혀 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1987년까지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으로 많은 사람이 투옥되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장소임. (홈페이지: www.sscmc.or.kr)



▶오프라인 한국 시집 박물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 근현대 시기의 시집을 연대기로 전시한 상설 전시실 외에 다양한 체험실과 기획 전시실 등이 있고 희귀 시집 100여 권이 전시됨. '해방 공간의 민족시 공간에 이용악에 대한 소개가 있음. (홈페이지: 한국시집박물관.org)



이육사 (1904~1944)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저항시 #저항 시인 #남성적 어조 #의지적 #상징적 시어 #독립운동

‘이원록’에서 ‘이육사’로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에 수용되었을 때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고 이후 ‘이육사’라는 필명을 쓰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이름은 더욱 다양하다. 이육사의 호적상 본명은 ‘원록’이고 자(字)는 ‘태정’이며, 어릴 때 이름은 ‘원삼’이다. 중국 중산대학 명부에는 ‘이활’로 기록되어 있고, 그가 첫 옥살이 이후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나 《조선일보》에 자신의 첫 작품인 〈말〉이라는 시를 발표했을 때도 ‘이활’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이육사’란 이름은 1930년에 ‘대구 이육사(二六四)’란 필명으로 평론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타나게 된다. 1932년 의열단이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제1기생 명단에는 ‘육사(六四)’가 아닌 ‘육사(陸史)’로 나타난다. 이 필명은 원래 ‘죽일 육(戮)’ 자에 ‘역사 사(史)’ 자였는데, ‘이놈의 육시랄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뒤이어 ‘고기 육(肉)’ 자에 ‘설사할 사(瀆)’ 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안 아저씨인 이영우는 그에게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고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이름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니 좀 더 온건한 표현의 ‘땅 육(陸)’ 자에 ‘역사 사(史)’ 자를 사용할 것을 권하였고, 그리하여 ‘이육사(李陸史)’가 된 것이다. 이러한 필명을 통해 그가 국권 상실로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시대와 맞서서

이육사의 친가와 외가는 모두 일제에 항거한 애국 집안으로, 이러한 가풍 속에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투철한 항일 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육사는 1925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무대로 항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저항의 시작은 곧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다. 1927년,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베이징 감옥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항일 운동과 감옥살이로 보낸 것이다.

이육사가 눈엣가시 같았던 일본 경찰은 이육사의 아내 역시 끊임없이 감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은 그의 아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소박을 맞았으니 자신을 이제 내버려 두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던 와중 이육사는 또다시 투옥되고, 아내는 그를 면회하러 간다. 아내를 본 일본 경찰은 “소박맞았다면서 왜 왔느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소박을 맞아도 위급할 때는 찾아온다.”라고 말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다

이육사는 치열한 정치 활동과 지난한 항일 투쟁 속에서도 40여 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 이육사는 자신의 신념이 분명했지만, 시를 도구로 하여 직설적인 구호를 외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시 속에서 전통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다양한 상징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그의 역경과 인고의 체험을 기다림의 철학과 초인 의지로 승화시켰다. 나아가, 당대 서정시는 이른바 ‘여성적인 감수성’으로 된 작품이 많았는데, 이육사의 시는 이러한 성격에 대륙적 기상과 남성적 의지를 불어넣음으로써 한국 시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교과서

Pick Up



광야	‘광야’라는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신념을 드러낸 시
절정	이육사가 시대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달한, 비극을 초월하려는 정신적 경지를 보여 주는 시
청포도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고국을 바라다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향수, 그리고 암울한 민족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에의 기다림과 염원을 노래한 시
교목	‘교목’이라는 상징적 사물을 통해 가혹한 시대를 견디어 내는 굳은 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육사 문학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 이육사 문학관에는 이육사의 육필 원고, 독립운동 자료, 시집,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음.
(홈페이지: www.264.or.kr)



▶오프라인 이육사 생가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에 위치. 원래 안동군 도산면에 있었으나 안동댐 수몰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짐. 옛 집터에는 <청포도>를 새긴 시비가 있음.





작가 태그

#1960년대 이후 #전통적 정서와 한 #추리 소설적 요소 #시대적 억압과 고통

이청준 (1939~2008)

어린 나이에 목격한 죽음

이청준은 1939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과 자신을 포함하여 열 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그가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세 살 난 막냇동생은 홍역을 앓다가 죽고 반년 뒤에는 만형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부터 2년 뒤에는 큰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마저 죽음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가족의 잇따른 죽음은 어린 이청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소설에 삶과 시대를 고통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나 죽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모두 그의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가난으로 빚어진 고향의 기억

장흥에 살았던 이청준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친척 집에 살게 된다. 도회지로 유학 가기 전날, 그는 어머니와 계를 잡았다고 한다.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계를 잡은 것은, 친척 집에 빈손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청준이 친척 집에 도착했을 때는 계가 이미 상해 버려 고약한 냄새를 풍겼고, 친척 누님은 코를 막은 채로 계가 든 자루를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야 말았다. 이청준은 이 순간 자신이 버려진 듯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에는 집안이 또 한 번 큰 풍파를 겪게 되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청준은 급히 고향인 진목 마을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놀랄까 봐 이미 팔린 집을 지켜서 그를 재워 보낸다. 이청준의 소설 <눈길>은 이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내적 서사로 삼고 있다. 남의 집이 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청준은 오랜 기간 고향을 찾지 않았다. 가난으로 점철된 고향의 기억이 그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혹 서울에서 문학기행단을 이끌고 <눈길>의 현장을 답사하는 길에도, 그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기행단을 기다렸다고 한다. 2006년 무렵, 장흥군에서 그 집을 매입해 이청준의 보금자리로 다시 가꾼 후에야, 그는 그리운 곳에 들어설 수 있었다.

비록 이청준은 한평생 고향에서 떨어져 살았으나, 마음속으로는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의 소설 절반 이상이 고향을 배경으로 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가가 스스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의식하면서 글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에게 고향은 가난의 흔적으로 가득한 아픈 기억임과 동시에 글쓰기의 원천이 된 것이다.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청준은 한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이라는 상반된 사건을 체험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느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그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시대적인 아픔을 담은 작품을 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역사를 뚫고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이청준은 “다시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 누구도 비껴 갈 수 없는 아픔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

교과서 Pick Up

눈길	집안의 몰락으로 인한 피해 의식으로, 어머니를 외면하던 '나'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
병신과 머저리	6·25 전쟁을 체험한 세대인 '형'과 전후 세대인 '나'의 고통과 아픔을 형상화한 소설
당신들의 천국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지도자와 그 원생들 간의 갈등을 그린 소설
서편제	총 8편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집 《남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창작된 작품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남매의 가슴 아픈 한에서 피어나는 소리의 예술을 형상화한 소설
선학동 나그네	삶의 한을 '소리'라는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남도 사람》 연작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서편제》의 소리꾼 여인에 관한 뒷이야기에 해당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청준 생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에 위치. 이청준 생가에는 이청준이 사용한 물건, 집필한 책 등이 보존되어 있음.



▶오프라인 이청준·한승원의 소설길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 이청준과 소설가 한승원의 생가 및 작품 속 배경과 관련된 공간을 탐방할 수 있게 조성한 길임.



이태준 (1904~?)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구인회 #《문장지》 #순수 문학 #상고주의 #월북 작가

양반집 서자(庶子)이자 고아로 자란 어린 시절

이태준은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용담 이씨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는 개혁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가족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지만, 1909년 8월에 병으로 사망하고야 만다.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읜 이태준은 어머니와 함께 귀국길에 오르던 중 여동생의 출생으로 도중에 함경북도 이진에 정착한다.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사망하고 고아가 된 이태준은 용담의 친척 집으로 옮겨 간다. 그러나 양반 가문의 서자인 그에게 친척들의 시선은 고을 리 없었고, 고아로서 겪는 고충 역시 어린 이태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이렇게 친척 집을 전전하던 그의 체험은 대상과의 거리감을 형성하는 서술 기법이나 인물의 형상화 방법 등 그의 소설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가난을 딛고 문학 청년이 되다

이태준은 1920년 배재학당에 응시해서 합격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등록을 포기하고, 야학에 다니다 이듬해 4월 휘문고보에 입학한다. 그는 수업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교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며 학예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문학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학창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동맹 휴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졸업을 1년 남기고서 퇴학당하고야 만다.

비록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친구 김연만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는 1925년 도쿄에서 투고한 단편 <오몽녀>가 《조선문단》에 입선작으로 당선되며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등단 후에도 가난의 그림자는 그를 놓지 않았다. 이태준은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 생활까지 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그는 서정적 문체와 치밀한 묘사, 가난한 민중에 대한 애정, 사회적 약자·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 등을 담은 소설을 잇달아 내놨다. 그 결과, 1929년에는 《개벽》사에 입사하고 결혼도 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았으며,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으로 일도 하고 학교에 강사로 출강하며 작문을 가르치게 된다.

천재를 알아본 천재

1934년 7월 24일, 《조선중앙일보》를 펼쳐 든 독자들은 경악하게 된다. 이상의 〈오감도〉 제1편이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독자들에게 상당한 욕을 먹었다고 한다. 형식과 서술의 난해함은 물론이요, “오감도(烏瞰圖)와 조감도(鳥瞰圖)의 한자 구별도 못하는 어린 녀석에게 신문 지면을 함부로 주느냐.”라는 비난과 항의가 《조선중앙일보》에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 신문사의 학예부장이었던 이태준은 원래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가들은 비난받기 마련이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하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상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것이다. 천재를 알아본 이태준의 능력 덕분인지 결국 〈오감도〉 연작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15편이나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될 수 있었다.

교과서

Pick Up



달밤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이 드러남.
복덕방	1930년대 경성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땅 투기와 그 음모에 빠져 파멸하는 한 노인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궁핍함, 좌절 등을 그린 소설
패강령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지식인들의 고뇌를 다룬 소설. 일본의 야만적인 정책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태준 가옥(수연산방)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 수연산방은 이태준이 1930년대부터 1946년 월북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그는 이곳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집필함.



▶오프라인 이태준 문학비와 흉상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에 위치. 두루미 평화관의 광장 앞에 이태준 문학비와 흉상이 있음. 이태준 탄생 100주년에 맞추어 설치됨.



이호철 (1932~2016)



작가 태그

#1950년대 이후 #분단 문학 #한국 전쟁의 체험 #분단의 아픔 #실향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이호철은 1932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그가 성장하면서 처음 만난 문학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다. 그의 누나는 그에게 자신의 교과서 뒷부분에 실린 <리어왕>을 읽어 주었는데, 그때 겨우 여섯 살이었던 그는 엄청난 문학적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사람 사는 게 이리 복잡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

중학생이 된 이호철은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이때 달 옆에 떠 있는 별을 보고서 처음으로 시를 쓴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의 선생님은 그가 쓴 작품의 행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어 가며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그 순간 이호철은 자신에게 문학적 재능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혼자 남한으로 가게 된다. 고향을 떠나는 어린 아들이 염려되었던 그의 아버지는 이호철의 손에 5,000원을 쥐여 주었다. (당시 북한에서 5,000원이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돈이었지만 남한에서는 담배 네 갑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에서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부두 노동을 하며 삶을 이어 간다.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호철은 아버지가 주신 5,000원을 한 번에 쓰게 된다. 의미가 있는 돈인 데다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망설임은 없었다. 그 돈으로 북에서부터 좋아했던 작가, 안톤 체호프의 희곡집 다섯 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행동을 나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호철은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참전, 포로, 월남, 피난, 그리고 <탈향>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해 이호철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동원령에 끌려가 인민군에 입대하게 된다. 그는 유엔군과 국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던 중에 강원도 양양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북으로 호송되던 중에 기적처럼 매형을 만나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해 12월 9일에 그는 다시 혼자서 남으로 내려오게 된다. 고향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산으로 온 그는 부두 노동자 생활부터 시작해, 제면소 직공, 미군 정보기관 경비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 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문학 창

작에 게으른 법이 없었고, 평소 존경했던 염상섭과 황순원을 찾아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황순원은 그를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문단에 추천할 정도로 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은 1955년 《문학예술》 7월 호에 <탈향>을 발표하면서 등단하게 된다. <탈향>은 전쟁과 피난으로 얼룩진 그의 삶이 밑바탕이 된 작품이다.

이루지 못한 꿈

이호철의 호는 견산(見山)인데, 이는 자신의 고향인 ‘원산 현동리 전산’에서 따온 것으로, 사투리인 전산을 대신해 한자어인 견산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의 사랑과 향수가 얼마나 큰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 계속해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학을 통해서 고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와 같다고 생각하며, 고향에 마음대로 가는 것이 최종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는 여든을 훌쩍 넘긴 2015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꿈꾸어 왔던 통일은 끝내 보지 못한 채 2016년 9월, 숨을 거두었다.

교과서 Pick Up

탈향	6·25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실항민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 홀로 월남하여 부산에서 노동하며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작가의 실제 체험이 담겨 있음.
나상	6·25 전쟁 때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되는 두 형제의 모습을 그린 소설
판문점	1960년대 초 판문점을 배경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남북 간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밀도 있게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임시 수도 기념관

부산시 서구에 위치.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의 생활상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으로,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전쟁 중에 앙드레 지드 1주기 행사가 열렸던 곳으로 묘사됨.





작가 태그

조선 시대 # 유학자 # 성리학
선비 정신 # 도산서원 # 후진 양성

이황 (1501~1570)

한평생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추구하다

이황은 34살 때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문서의 교정을 맡아보던 벼슬)가 되면서 관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혼란스러운 조정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그는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세상을 등진 채 독서에 전념한다.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퇴계(退溪)로 삼았다.

그 뒤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복귀했으나, 그는 부패하고 문란했던 중앙 관직에서 벗어나 줄곧 외직을 지망했다고 한다. 43세 때부터 관직을 사퇴하거나 고사한 일이 20차례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1560년 도산서당을 지은 이황은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며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길러 내기도 했다. 이처럼 속세에서 벗어나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 올곧은 정신은 <도산십이곡>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황은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신념을 지키며 행동했다. 그는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강론했고, 사망하기 나흘 전인 1570년 음력 12월 4일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간 자신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못했는지 자책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조카 이영을 불러 굳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황은 세상을 떠날 날 평소 애지중지했던 매화 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뒤, 단정히 앉은 자세로 사망했다고 한다.

부인의 장애를 사랑으로 보듬은 선비

이황은 21세 때 허 씨 부인과 결혼했으나 7년 만에 사별한다. 2년 뒤, 두 번째 부인인 권 씨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가 재혼한 사연은 이렇다. 당시 이황이 흠모했던 화산(花山) 권주의 맏아들인 권질은 사화로 인해 예산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고, 이황은 그런 권질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던 차에 권질이 이황에게 자신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는 그 청을 받아들여 권 씨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다.

권 씨는 어린 나이에 사화를 겪으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 장애를 겪었다. 그래서 유아 퇴행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황은 그러한 권 씨를 극진하게 대했다고 한다.

하루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가친척들이 모두 종가에 모여 있었는데, 권 씨 부

인이 상 위에 놓인 배를 제사도 지내기 전에 먹어 버렸다고 한다. 일가친척들이 이황을 힐난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는 “제사도 지내기 전에 아내자가 먼저 음복하는 것은 예절에 벗어나는 일이나 조상님들도 손자며느리의 행동을 노여워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이황은 담담하게 권 씨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고, 권 씨는 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아이처럼 대답했다. 그러자 이황은 아내를 위해 손수 그 배를 깎아 먹여 줬다고 한다.

또 한번은 이황이 상갓집에 가려고 흰색 도포를 입으려 했는데, 도포가 해져 있어서 부인에게 기워 달라고 부탁했더니 권 씨가 그만 흰색 도포에 붉은색 천을 덧대어 기워 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황은 부인에게 단 한마디의 꾸중도 않고 그 도포를 입고 상갓집에 갔다고 한다.

이처럼 이황은 부부간의 의리와 예를 다하는 것이 선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권했다고 한다.

교과서 **Pick Up**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속세를 떠나 자연에 취해 사는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마음, 사색에 잠기는 학문 생활 등을 담은 전 12수의 연시조
만보(晩步)	만보는 '저물녘에 걸으며'라는 뜻으로,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염원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회한의 정서를 드러낸 오언 배율의 한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 도산서원은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하여 퇴계 이황이 타계한 후 서원으로 확장 발전한 곳임.



▶오프라인 퇴계 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 원래의 이황 생가 건물은 없어졌는데 이황의 후손이 옛 규모에 따라 새로 지음.



이효석 (1907~1942)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봉평 #자연주의 작가 #서정성

봉평과 평창을 거닐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태어난 이효석은 8세 때부터 평창 읍내에서 홀로 하숙하게 된다. 봉평에서 100리나 떨어진 평창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봉평과 평창 사이를 걷거나 달구지를 타고서 집에 갔다. 그는 이 100리 길 속을 6년 동안 오고 가며 자연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작가의 체험은 <메밀꽃 필 무렵>이나 <산>과 같은 작품 속에 우리나라의 향토를 서정적으로 그려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와 격리되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고 이기적일 정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적 습성을 기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너도 개가 다 됐구나.”

이효석은 이십 대 초반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은 능력 있는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고, 결국 일본인 스승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소개받은 일자리는 공교롭게도 총독부 경무국 검열계였다. 이곳은 한국 작가의 창작물을 무자비하게 검열하던 곳으로, 작가들과 경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심하던 그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경무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문인들은 그에게 민족과 문학을 배반한 변절자라며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이갑기라는 카프 계열의 청년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이효석을 보고 “너도 개가 다 됐구나.”라고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심약했던 이효석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리고 만다. 그는 곧 직장을 그만두고 궁핍한 생활을 하며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기를 겪게 되었다.

당대 인기 가수와 짧은 사랑을 나누다

이효석은 당대 인기를 누리던 왕수복이라는 가수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들은 1940년, 이효석이 34세 때에 도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일제는 우리말 사용 금지 정책을 시작했고, 대중가요에서도 우리말 노래 가사를 쓰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왕수복은 실의에 차 가수에서 은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때 이효석은 아내 이경원과 사별하고 젓먹이 자식마저 잃은 터라 그 충격으로 만주를 돌아

일본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효석의 소설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왕수복은 낯선 땅에서 우연히 만난 그에게 한 눈에 반해 버렸다.

두 사람은 함께 일본에서 평양으로 돌아왔으나 공개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다. 아직 이효석은 아내의 상중(喪中)이었던 터라 왕수복과의 관계를 감추고자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저 다방에 들러 서로 말 없이 잠깐 응시만 하다가 돌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효석의 제자 7명은 왕수복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교수님을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제자들은 이효석이 전 부인과 사별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왕수복은 그럴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불행하게도 이효석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점차 몸이 약해져 뇌수막염을 앓게 되었고, 병석에 누운 지 20여 일 만에 3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야 만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짧게 끝이 났다.

교과서 Pick Up 

메밀꽃 필 무렵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떠돌이로서의 애환과 육친의 정을 그린 소설. 서정적인 문체와 배경 묘사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산	향토적인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의 교감으로 행복해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동화되어, 인위적인 사회 제도, 풍습, 습관, 윤리관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형을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이효석 문화마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 터가 있으며, 매년 9월 이효석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효석 문화제가 열린다.



▶온라인 이효석 온라인 문학관

(www.hyoseok.org)
이효석의 생애 및 문학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학관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트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5·18 민주화 운동 #리얼리즘 #휴머니즘 #5월 작가

임철우 (1954~)

남달랐던 청소년기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난 임철우의 어린 시절은 방황과 일탈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자주 가졌다고 한다. 임철우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그는 전남 도청으로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 광주로 이사한다. 하지만 그는 도시 생활에 주눅 들어 한동안 적응 장애를 보이게 된다. 할아버지의 장롱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돈을 훔쳐 가출하는가 하면, 중학교 때는 퇴학을 당했다가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 친구였던 덕분에 겨우 복학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외로움과 이질감으로 가득했던 유년의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땅>을 비롯한 그의 초기 단편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5월 작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전남대 영문과 4학년에 다니다 한 달 전에 휴학한 상태였다. 임철우는 계엄령이 내린 후 친척 집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거리로 나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의 참가 인원, 시각, 사망자 수, 심지어 그 시각 텔레비전을 통해 한가하게 중계되던 야구 경기의 점수까지. 그러나 임철우는 상대방에게 총을 듣거나 싸우지 않았으며,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주해 들어올 때는 친척 집 다락방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5·18 민주화 운동 동안 그와 가까운 선후배와 친구들은 죽거나 다쳤다. 그러나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지 못했기에 그러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이러한 마음의 멍에는 결국 문학으로 승화된다. 임철우는 등단 이후 즐기차게 광주의 5월을 담은 작품들을 내놓았고, 특히 광주의 5월에 대한 다섯 권짜리 기록 문학인 《봄날》을 집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체험의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5월 작가'라고 불리게 된다. 광주를 통과하며 지니게 된 그의 깊은 죄의식과 그로 인해 치열하게 작품 창작에 매달렸던 오랜 세월이 임철우를 대표적인 '5월 작가'로 만든 것이다.

<사평역>, 인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다

임철우는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제주 4·3 사

건 등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아픈 상처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품을 많이 썼다. 그러나 그는 폭력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서정적 세계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단편 소설 <사평역>에는 그의 서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소설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읽고 영감을 받아 쓰게 된 작품으로, 이 글 안에서 그는 농부, 술집 작부, 범죄자, 미친 여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성진 사투리를 사용해 정감 있게 풀어 나갔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 풍경을 소설 속에 묘사함으로써 사람들 간에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서 Pick Up 

사평역	눈 내리는 겨울밤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 각자의 삶에 대한 상념을 그린 소설
아버지의 땅	현실과 역사의 이중 구조와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역사적 상처의 현재성을 부각한 소설
눈이 오면	1980년대 산업화의 열풍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 내고 있는 소설
봄날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현장 보고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소설. 총 87장으로 나누어진 일화에 따라 당시의 현장을 지켜보는 20여 명의 시점 인물들이 등장함.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평일도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 완도군 평일읍에 딸린 섬으로 임철우가 태어난 곳임. 다도해의 절경이 일품인 아름다운 곳임.



▶오프라인 오월 문학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3층에 위치.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문학인들의 삶과 문학 자료가 있는 곳으로, 임철우의 작품도 이곳에 있음.



장영희 (1952~2009)



작가 태그

#2000년대 #열정의 삶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서강대학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겨 낸 삶의 역경

장영희는 영문학자이자 번역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시대를 대표하는 수필가로 평가받았지만, 장애를 가진 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영희는 첫돌을 앞두고 소아마비를 앓게 된다. 두 다리와 오른팔이 불편했던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다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어머니는 눈이 오면 길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 든 채 딸의 등하곶길을 지켰다. 그래서인지 그가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단어는 ‘엄마’라고 한다.

그는 진학할 때마다 사회의 냉담한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요즘보다 장애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탓에 일반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쉽게 받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딸의 문학적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장영희가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교장실을 찾아가 입학을 간청했다.

계속되는 시련,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삶

장영희는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여러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들며 그에게 시험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한 유일한 학교는 서강대학교였다. 입학 시험만이라도 치르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의 아버지에게 당시 영문과 과장이던 브루닉 신부는 장애인이라고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고 한다.

장영희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모 대학에 면접을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 그는 부모님께 불합격 소식을 전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늦추려고 영화관을 찾아가 <킹콩>이란 영화를 보았고, 그 순간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생겨 눈총을 받는 킹콩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수필 <킹콩의 눈>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좌절한다거나 세상을 향해 불만을 품기보다는 육체 기능이 남들보다 떨어지니 머리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두 발 대신 공부로 이 세상에 발붙일 근거를 마련한 그는 뉴욕 주립대에 들어가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서강대로 돌아와 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민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승옥
김시습
김영랑
김용택
김유정
김종삼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현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삼문
성석제
송순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악
이육사
이철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장영희
전광운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오석
차범석
채만식
천양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꽃이 되다

장영희는 수필을 비롯하여 각종 평론, 번역문 등 다양한 글을 쓰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수로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삶에 대한 그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점차 머릿속에 그의 목발을 지워 갔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가 49세 되던 해에 유방암이, 52세가 되던 해에는 척추암이 연거푸 찾아온 것이다. 장영희는 꽃꽂이의 의지로 병마를 이기고 이듬해 봄 강단에 복귀하기도 했으나,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전이되면서 끝내 사망하게 된다.

그는 비록 생애 대부분을 목발에 의지했고 세 번이나 암과 싸워야 했지만, 그가 보여 준 행보는 위대하고 아름다웠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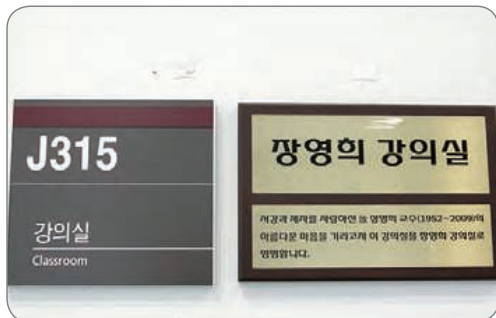
교과서 Pick Up

팬찰아	신체적 장애를 지닌 글쓰기가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수필
속는 자와 속이는 자	타인에게 속은 경험과 속지 않은 경험을 제시하여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있는 수필. 장애를 극복한 글쓰기의 개인적인 삶과 맞물려 있음.
킹콩의 눈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절망했지만, 이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희망의 중요성을 전하는 수필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서강대 장영희 강의실

장영희 강의실은 서강대 인문대 3층 1315호로, 장영희 교수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름 붙인 강의실임. 영문학 전공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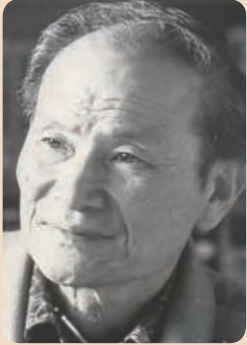


▶온라인 장영희 팬클럽

(cafe.daum.net/DearJang)

장영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로, 그에게 편지를 남기거나 모임을 통해 그의 글을 함께 낭독함.





작가 태그

#1950~1960년대 #풍자와 비판
#꺼삐딴 리 #실향민 작가

전광용 (1919~1988)

평생 안고 살아온 실향민의 아픔

전광용은 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서가 낭독되던 역사적인 날에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성 경제전문학교(현재의 서울대 상과대학)에서 공부를 마쳤으나 다시 진로를 바꾸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다. 이처럼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하던 전광용은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의 셋째 딸인 전수연 씨가 “아버지의 작품에 가족이나 자전적 이야기가 없는 것은 북한에 남은 가족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

간간한 원칙주의자

전광용은 우렁차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심한 함경도 사투리와 반말 투의 어미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면 좌중을 압도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강한 말투만큼 그는 매우 간간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소설을 쓸 때도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찰, 조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소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글을 쓴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등단 작품인 <흑산도>는 흑산도 학술 답사에서, <진개권(塵芥圈)>이란 작품은 휴전선 오지에 있는 미군 쓰레기장에서, <지층(地層)>은 태백산 탄광에서 각각 얻은 소재이다. 그래서 평론가 이시형은 전광용을 “작품의 소재를 앞서 구하는 작가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밭로 쓰는 작가’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광용의 대쪽 같은 성격은 이강석과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이강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 서울대에서 전광용의 수업을 들었다. 그러던 중 시험을 보던 날에 이강석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전광용은 그에게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인물에게 아첨하는 행동은 그의 사전에 없었던 것이다.

1950~1960년대 한국의 자화상을 그리다

전광용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 암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로, 1950~1960년대 한국인의 삶을 반영한다. 특히, <꺼삐딴 리>에 등장하는 ‘이인국’은 그가 표현한 다양한 인물형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기회주의자의 삶을 택해 어떻

게 해서든 살아 나가는 인물이다. 이처럼 전광용은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항하는 의로운 인물을 그리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에 떠밀려 표류하는 인간상을 보여 준다.

혈육과도 같은 친구, 정한숙

전광용에게는 평생을 혈육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소설가 정한숙이다. 두 사람은 홀로 월남한 실향민이라는 점과 소설을 쓴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수년을 함께했다. 그들은 1947년, 대학교 재학 당시 전영경, 정한모와 함께 '주막'이라는 동인을 결성했는데, 그 무렵 대개의 동인이 동인지 발간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주막'은 작품을 써서 돌려 가며 읽은 다음 의견을 주고받으며 비평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주막'의 네 사람은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 흩어지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모여 친분을 다지게 된다. 1955년에는 신춘문예에 네 명 모두의 이름을 올려 문단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의 모교인 서울대와 고려대의 국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교수직과 창작 활동을 병행함과 동시에 문학사나 소설 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교과서 Pick Up

깨빠따리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을 거쳐 6·25 전쟁과 그 뒤로 이어지는 시대를 배경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개인적 영달을 이루어 온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소설
사수	인간이 가진 숙명적 대결 의식과 한 개인이 타인에게 갖는 패배 의식 및 열등감을 조망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남도 남동부에 있는 북청군은 전광용의 고향으로, 남대천(南大川)의 중류와 하류 일대에 자리 잡고 있음.



▶온라인 한국 현대 문학관

(www.kmlm.or.kr)
한국 근현대 문학의 흐름 등을 소개함. 이 사이트에서 전광용에 대한 소개 자료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정몽주 (1337~1392)



작가 태그

#고려 시대 #성리학 #충신 #지조와 절개

정계로의 순탄한 진출

정몽주는 1337년 경상북도 영일에서 태어났다. 고려 인종과 의종 때 추밀원지주사를 지낸 정습명의 후손으로, 대대로 지역의 중소 지주이자 학자 집안이었으며 유복한 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난초 화분을 건네받는 태몽을 꾸고 낳아 이름을 몽란으로 지었다. 후에 어머니가 용이 나무 위에서 노는 꿈을 꾸고 난 뒤 몽룡으로 개명하고, 나중에 주나라 성인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의 몽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유명했던 정몽주는 1357년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한 뒤 1362년 예문검열에 임명되어 관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성균관 박사, 뒤이어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문무에 두루 능했던 성리학자이자 외교가, 동시에 행정가

성균관 박사로 유교 경전을 강의하던 당시 《주자집주(朱子集註)》에 대한 그의 유창한 해석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후에 송나라 유학자 호병문의 《사서통(四書通)》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정몽주의 강의 내용과 일치하자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다고 한다. 정몽주의 스승이었던 이색은 정몽주에 대해 “학문에서 어느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가장 뛰어났으며, 그의 논설은 어떤 말 이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동방 이학(理學, 성리학)의 시조’라고 평가하였다. 정몽주는 도성에 학당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도록 하여 유학 발전에 힘을 쏟았다.

한편, 고려가 명나라와의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몽주가 나서기도 하였다. 두 나라 사이에 생긴 잦은 분란으로 화가 난 명 태조의 생일이 가까워지자 아무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 정몽주가 명 태조의 생일 사신으로 명에 건너가 탁월한 외교술로 무리한 조공도 철회시키고, 유배된 사신들도 귀국시켰다. 그는 일본에도 사신으로 가서 뛰어난 인품과 학식으로 왜인들을 교화하고, 수백 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 외에도 정몽주는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성계의 왜구 토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호 기관인 의창(義倉)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재정의 회복과 훌륭한 인재 등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선죽교에 대나무로 솟아 오른 절개

1392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성계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한 정몽주에게 그를 회유할 목적으로 지은 노래(일명 <하여가>)를 들려주었다.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이방원의 물음에 정몽주는 답가(일명 <단심가>)를 지어 불려 고려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절을 드러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정몽주는 집으로 오는 길에 술을 마신 후 말을 거꾸로 탔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죽을 수 없어 술을 마셨으며, 흥한이 앞에서 흥기를 휘두르는 것이 끔찍하여 말을 거꾸로 탄 것이라고 하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날 이방원은 선죽교를 건너던 정몽주를 해치웠다. 정몽주의 피가 흐른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아올랐는데, 이후 그 다리를 '선죽교'라 부르게 되었다. 고려 왕조에 대한 그의 충절은 곧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로 솟아 올라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교과서 Pick Up

이 몸이 죽어 죽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임(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시조. 일명 단심가(丹心歌)라고 불림.
춘흥(春興)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노래한 한시
음시(吟詩)	시 짓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좋은 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노래한 한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선죽교(善竹橋)

경기도 개성시(휴전선 이북)에 위치. 고려 시대의 돌다리로, 원래 이름은 선지교(善地橋)였으며 다리의 동쪽에 한석봉 글씨의 비가 있음.



▶오프라인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상남도 하동군 정수리에 위치. 정몽주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움. 정몽주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정몽주의 문집 판각 500여 판을 보관하고 있음.



정약용 (1762~1836)



작가 태그

#조선 시대 #실학 사상 #애민 정신 #유배 생활 #수원 화성

영특한 소년의 남다른 어린 시절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정재원과 윤선도의 후손인 해남 윤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정약용은 일곱 살 때 한시를 지었으며, 열 살 이전에 지은 시를 모아 《삼미자집》이라는 제목의 책을 편찬하였다. 삼미(三眉)는 어릴 적 정약용의 별명으로, 천연두를 앓고 난 뒤 생긴 눈썹의 흉터 때문에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다는 뜻에서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어린 시절부터 책에 빠져 살았던 정약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실학 4대가로 불린 이서구가 영평에서 대궐로 돌아오다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당나귀에 책을 가득 싣고 북한사로 들어가고 있었다. 열흘 뒤 소년을 다시 만난 이서구는 의아해하며 소년에게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물었다. 절에서 《강목》을 열흘 만에 다 외우고 내려왔다는 소년의 대답에 깜짝 놀란 이서구는 실제로 책을 외웠는지 시험을 해 보았다. 놀랍게도 소년은 책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정약용이다.

정조와의 만남, 실학 정신의 발휘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한 정약용은 이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에 매진한다.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에 관한 80개조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는데, 정약용이 〈중용강의〉라는 답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읽어 본 정조가 정약용의 답안을 극찬하였다. 이후 정약용은 1789년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정조는 그를 매우 총애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 자세를 지녔던 정약용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등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기술을 천시하던 종래의 유교적 통념을 비판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대 조선은 농경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였다. 정약용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읽어 내고,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직결되는 각종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데, 1792년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를 제작하여 4만 냥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다.

대학자의 밑거름이 된 오랜 유배 생활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날로 심해지던 상황에서 서인들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 정약용을 수차례 모함한다. 정약용을 아꼈던 정조는 그를 보호했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정약용은 위기에 처한다. 결국 1801년 신유박해 때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독서에 몰두했고, 학문에 매진하였으며, 훌륭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정약용의 저서 500여 권 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쓰였거나 초안이 마련된 것들이었다.

정약용은 행정 기구의 개편, 관제, 토지 제도, 부세 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경세유표》,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목민심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저술한 형법서인 《흙흙신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훌륭한 저서들을 남긴다.

교과서

Pick Up



수오재기(守吾齋記)	만형 정약현의 집 이름인 '수오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의 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고전 수필
고시(古詩) 제7수	연못 위에 떠 있는 부평초의 모습을 통해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한시
보리타작[打麥行]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본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
탐진촌요(耽津村謠)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다산초당(茶山草堂)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위치. 다산초당의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유명함. 정약용이 귀양 생활 약 10여 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목민심서》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고, 실학을 집대성함.



▶온라인 다산학술문화재단

(tasan.or.kr/index.asp)
정약용의 저술과 사상 관련 자료, 다산학술상과 출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학술 사업을 소개하고, 경본 《여유당전서》와 관련된 자료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함.





작가 태그

#고려 시대 #서정 시인 #한시
#김부식과의 대립 #서경 천도
#묘청의 난

정지상 (?~1135)

최후만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

정지상은 본관이 서경(西京)이고, 호는 남호(南湖)이며 어릴 적 이름은 지원(之元)이다. 서경 출신으로, 111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사스러운 정보 또한 매우 적다.

반면 정지상의 최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사절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35년(인종 13년)] 김부식이 여러 재상과 상의하기를, ‘서경의 반역에 정지상, 김안, 백수한 등이 가담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서경을 평정시킬 수 없다.’ 하니, 여러 재상들이 그렇게 여기고, 지상 등 세 명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자 은밀히 김정순에게 말하여 무사로 하여금 세 명을 끌어내어 궁문 밖에서 목을 벤 뒤에 비로소 위에 아뢰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식은 평소 지상과 같이 문인으로서 명성이 비슷하였는데, 문자 관계로 불평이 쌓여, 이에 이르러 지상이 내응한다고 핑계하고 죽인 것이다.’ 하였다.”

정지상의 처형 이유는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이 일으킨 난(일명 묘청의 난)에 가담한 혐의였다. ‘지상이 내응한다.’라는 말은 이를 가리킨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다

정지상의 <송인(送人)>은 이별을 제재로 한 우리나라 한시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조법과 도치법, 과장법 등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하는 슬픈 화자의 정서를 애뜻하게 노래하였다. 특히 제4구에서는 해마다 보태지는 이별의 눈물로 인해 대동강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 슬픔의 정도와 깊이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대동강의 부벽루에 걸려 있었는데, 이를 본 청의 사신들이 몹시 감탄하였다고 한다. 후대에 이인로와 김만중도 이 작품을 극찬하였다.

제4구의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보태는 것을)’는 원래 ‘添作波(첨작파, 물결에 더하고 더하니)’였는데 고려 말의 문신이자 정치가인 이세현이 의미가 중복된다고 하여 ‘添作波’를 ‘添綠波(첨록파)’로 고친 것이다.

사후에도 이어진 라이벌 김부식과의 대립

이규보는 《백운소설》에서 김부식과 정지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절에서 경 읽는 소리 끝나니 琳宮梵語罷
하늘빛이 유리처럼 깨끗하네 天色淨琉璃

김부식은 정지상이 지은 이 시구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게 달라 하였으나 정지상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부터 시작된 둘 사이의 갈등은 정지상의 사후(死後)에도 이어지는데, 어느 봄날 김부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버들 빛은 일천 가닥 푸르고 柳色千絲綠
복사꽃은 일만 점이 붉구나 桃花萬點紅

그때 갑자기 귀신이 된 정지상이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치고는 “일천 가닥이니, 일만 점인지 누가 세어 보았느냐?”라고 하며 시를 이렇게 고쳐 주었다고 한다.

버들 빛은 실실이 푸르고 柳色絲絲綠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 桃花點點紅

교과서 Pick Up

송인(送人)	대동강을 배경으로 임을 떠나보내는 애뜻한 마음을 자연과 대비하여 노래한 한시
서도(西都)	봄비가 내린 변화한 서경 거리와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한시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	소래사를 찾아가는 길에 느낀 감정과 산속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읊은 한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부벽루(浮碧樓)

평양시 대동강변 청류벽 위에 위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여 '평양 8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정지상의 <송인>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짐.



▶오프라인 창원 시립 마산 박물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 최치원의 학문 세계를 존경하여 마산과 월영대를 노래한 고려·조선의 대학자 13인의 시비가 있는데, 이 중 월영대를 노래한 정지상의 시비가 있음.



정지용 (1902~?)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모더니즘 #시문학 #순수시 #감각적 이미지 #회화성

반짝이는 가능성을 품은 문학 소년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군 하계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한약상을 경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정지용이 아기였을 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로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살림 탓에 그는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지용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친지들의 도움으로 그는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휘문고보 1학년 때 학교 문예지인 《요람》을 주도하여 간행하고, 2학년 때 《서광》 창간호에 소설 〈3인〉을 발표하기도 한다. 홍사용, 박종화, 김영랑, 이태준 등이 그의 학창 시절 선배들로, 이후에도 문학적으로 교류하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휘문고보 졸업 후 1923년에는 장학생 신분으로 일본 도시사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 고향에 내려가면서 쓴 시가 그 유명한 〈향수〉이다.

모더니즘, 그리고 동양적 관조의 세계

1923년 5월, 정지용은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그는 새로운 세계와 문물을 접하면서 느낀 낯선 감정,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식민지 민족의 비애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창작에 몰두하던 정지용은 1926년 유학생 잡지 《학조》에 첫 작품 〈카페 프랑스〉를 발표하는데, 이국적인 배경과 서구의 문물을 등장시킨 이 작품은 청년 유학생 정지용의 심경을 담고 있는 동시에 당시에 유행하던 서구적 방식의 실험적 시도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29년 조선으로 귀국한 정지용은 휘문고보에 영어 교사로 부임하고, 이듬해인 1930년 박용철, 김영랑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을 결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순수 서정시를 추구한 정지용은 특히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 회화성의 구현에 관심을 가졌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담은 〈유리창 1〉은 이 시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지용은 산을 소재로 하여 동양적인 관조의 세계를 담고자 하였는데, 〈백록담〉, 〈장수산〉, 〈인동차〉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활발한 시 창작 활동 외에도 정지용은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문단에 등단시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민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숙옥
김시습
김영랑
김용택
김유정
김종삼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현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심문
성석제
송수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지진
유지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익
이육사
이철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장영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오석
차범석
채만식
천양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켜 문학계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 조지훈, 박목월 등을 소개·추천하였으며, 해방 후 운동주의 저항 시를 소개하는 한편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분단 이후의 비극, 그리고 복권(復權)

일제 강점기 말, 정지용이 참여했던 《문장》이 폐간되자 그는 절필(絶筆)을 선언한다. 1945년 해방을 맞게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정지용은 납북되었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납북 문인들의 이름과 작품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1988년 3월 남·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解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지용은 대중에게 다시 알려질 수 있었다. 1989년에는 ‘정지용문학상’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정지용의 대표작 〈향수〉가 가요로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교과서 Pick Up

향수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인동차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깊은 산속에서 인동차를 마시며 겨울을 견디는 노주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 낸 시
장수산 1	보름달이 뜬 겨울밤, 눈이 쌓인 장수산을 거닐며 세상사의 시름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시
춘설	봄눈이 내리는 자연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봄을 맞는 반가움과 설렘을 노래한 시
고향	다시 돌아온 고향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던 고향이 아님을 깨닫고 느낀 상실감과 허망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정지용 생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 〈향수〉의 시어에 따라 방안에 소품을 배치하였으며, 집 안 곳곳에 정지용의 시를 걸어 시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

(jiyong.oc.go.kr/html/jiyong/) 정지용의 생애와 작품 소개, 지용제 관련 정보, 정지용문학상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작가 태그

#조선 시대 #서인의 영수 #가사 문학의 대가 #연군지정

정철 (1536~1593)

순탄치 않았던 유년 시절

정철은 1536년 한양 장의동에서 태어났다. 큰누이가 인종의 후궁이 되어 입궐하고, 막내 누이가 계림군 이유의 부인이 되면서 어려서부터 궁중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이때 왕자들과 친교를 쌓았으며, 같은 나이의 경원 대군(慶原大君, 훗날 명종)과는 친구처럼 돈독하게 지냈다.

그러나 정철이 10세가 되던 해인 1545년에 왕실의 외척인 윤원형과 윤임의 대립으로 인한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계림군이 처형당한다. 그 여파로 정철의 집안도 화를 입게 되는데, 만형은 모진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가던 중에 3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고,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관북, 정평, 연일 등지의 유배지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게 된다.

1551년 원자(元子) 탄생의 은사(恩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죄과가 가벼운 죄인을 풀어 주던 일)로 아버지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남도 담양 창평 당지산 아래에 정착하게 된다. 정철은 이곳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여 년을 보냈다.

탄핵의 아이콘

정철은 26세가 되던 1561년 진사사에서 1등을 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는 본래 성정이 곧아서 바른말을 서슴지 않았던 탓에 수차례 삭탈관직(削奪官職,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던 일)을 당한다. 처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서얼 처남을 피어 죽인 뒤 강물에 던져 버린 경양군과 관련된 사건을 조용히 넘겨 달라는 명종의 부탁을 거부한 일,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과 심정 등에 비교하며 김개의 발언을 비난한 일,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한 일 등으로 인해 낙향과 복직을 반복하게 된다. 낙향 생활을 하면서 <사미인곡>, <성산별곡>, <속미인곡> 등의 뛰어난 가사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애주가, 자신의 과음을 반성하다

정철은 당대 최고의 애주가로 알려져 있다. 《선조실록》에는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하고 광망(狂妄)하니 해임하소서.’, ‘예조 판서 정철은 술을 좋아하고 실성(失性)하여 지난날 승진 발탁했던 일에 대해서도 물의가 많으니 개정하소서.’

등과 같은 탄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철을 아꼈던 선조는 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작은 은 술잔을 하사하며 하루 세 잔만 마시도록 당부하였다. 임금의 당부를 어길 수 없었던 정철은 은잔을 망치로 두들겨 펴서 주발로 만든 뒤 술을 가득 부어 마셨다고 한다. 정철은 ‘과음을 반성함[계주문(戒酒文)]’이라는 제목의 글로 자신의 잘못된 술버릇에 대한 회한과 반성을 밝히기도 하는데, 이 마음가짐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다음은 <계주문>의 한 대목이다.

“술이 한창 취할 때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속 시원히 언행을 마구 했다가 술이 깬 뒤에는 다 잊어버리고 취했을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남이 혹 취했을 때의 일을 얘기해 주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 않다가 나중에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고 나면 부끄러운 생각에 꼭 죽고만 싶어진다.”

교과서 Pick Up 

관동별곡(關東別曲)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후 아름다운 경치와 풍속 등을 여정에 따라 읊은 기행 가사
사미인곡(思美人曲)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창평에 가 있을 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입을 생각하는 여인의 애절한 고백 형식으로 풀어낸 가사
성산별곡(星山別曲)	정철이 창평에 있는 성산에 머물며 강호의 처사로서의 삶을 읊은 가사
속미인곡(續美人曲)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임(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곡하게 노래한 가사
장진주사(將進酒辭)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로, 살아 있을 때 풍류를 즐기자는 태도를 형상화한 시조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식영정(息影亭)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위치.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이라 불리며, 정철이 기거하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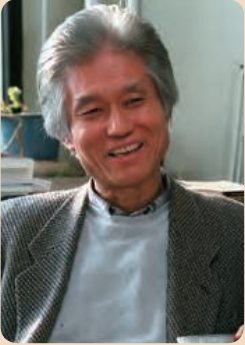


▶오프라인 정송강사(鄭松江祠)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 송강 정철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사당 부근에 송강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며 정철의 연행 기행, 친필 편지 등이 보관·전시됨.



정현종 (1939~)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존재에 대한 물음 #생명력 #인간관계의 소중함 #소통 #공감

문학과 철학, 발레에 심취했던 소년

정현종은 1939년 서울시 용산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관청 병참계 판임관이라는 공직에 있었는데, 세 살 때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화전으로 온 가족이 이사한다.

1953년 서울에 있는 대광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정현종은 화전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한다. 이 무렵 그는 독서에 매진하게 되는데 고전, 대중 소설, 학생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섭렵한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사르트르와 카뮈의 작품을 열독하면서 실존주의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다. 고등학생 시절 정현종은 1953년 장준하 주재로 창간된 월간 종합 교양지 《사상계》를 애독하였는데, 특히 기독교 문필가이자 민중 운동가인 함석헌의 글을 읽으며 많은 감동을 느낀다.

정현종은 사춘기 시절 느낀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고 죄악시하는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그는 우연히 접하게 된 발레에 심취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극복한다. 발레가 보여 주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성적 억압을 떨쳐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사물의 존재 의의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정현종은 대학 재학 시절 교내 신문인 《연세춘추》에 시와 산문을 발표하고, 실존주의 사상가들과 보들레르, 도스토옙스키 등의 책을 읽으며 지낸다. 《연세춘추》에 발표한 시가 당시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던 박두진의 눈에 띄어, 정현종은 대학 4학년 때인 1964년 5월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는다. 이때 추천받은 작품이 〈화음(和音)〉과 〈주검에게〉이다. 그의 초기 시에는 정현종이 고등학생 시절 심취했던 발레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동작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1965년에는 〈독무〉, 〈여름과 겨울의 노래〉로 《현대문학》에서 3회 추천을 받고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이후 황동규, 박이도, 김화영, 김현 등과 함께 동인지 《사계》를 만들어 활동한다.

정현종은 관념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사물의 존재 의의를 그려 내는 데 치중한 작품들을 발표하다가, 1980년대 이후 구체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공감을 주제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친다.

사람과 만남, 소통의 소중함으로 공감을 얻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는 커다란 ‘광화문 글판’이 장식되어 있다. 20여 년 넘게 한 해 네 차례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새로운 글귀가 걸리고 있다. 고은의 시 <낮선 곳>의 한 구절(떠나라 낮선 곳으로 / 그대 하루하루의 / 낯은 반복으로부터)이 걸린 이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문학 작품들의 글귀가 선보였다.

2015년 ‘내 마음을 울리는 광화문 글판은?’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투표에서 나태주의 시 <풀꽃>에 이어 정현종의 시 <방문객>의 한 구절인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시구로 뽑히기도 하였다. 20여 년간 걸린 69편의 후보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랑을 얻었으니, 그 인기를 증명받은 셈이다. <방문객>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요즘 세태에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고 진지한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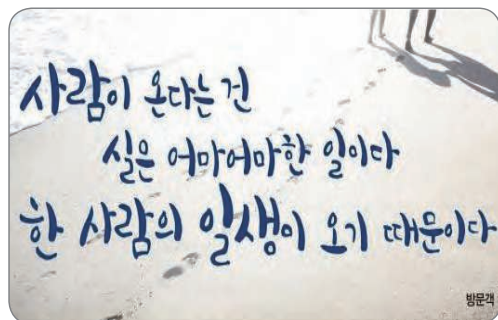
교과서 Pick Up

섬	2행으로 구성된 짧은 작품으로,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소통의 가치에 대해 다룬 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태도를 ‘공’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한 시
모든 순간이 꽃병오리인 것을	과거를 돌이켜 스스로를 반성함으로써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광화문 글판

서울시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걸린 글판.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제안으로 1991년부터 걸리기 시작함. 2011년 여름에 정현종의 <방문객>의 한 구절이 걸림.



▶오프라인 연세대학교 청송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 위치. 연세대 정문에서 백양로를 따라 오르다가 노천극장을 끼고 돌면 마주하는 숲으로, 정현종의 문학적 영감을 키워 준 밑거름이었다고 함.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반시(反詩)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성찰 #대중성

정호승 (1950~)

문학 소년의 어린 시절

정호승은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다. 은행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 후로 대구에서 성장한다. 그가 다녔던 대구 계성중학교는 박목월과 김동리의 모교이고, 대륜고등학교는 이상화, 이육사 등의 문인들이 교직에 있었던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 힘입어 소년 정호승은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게 된다.

중학교 시절 문예반에서 활동했던 정호승은 매달 교내에서 실시하는 문예 현상 모집에 글을 내곤 했는데, 이때 글을 쓰는 재미를 느끼면서 글쓰기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글을 썼으며, 고교 문예 잡지인 《학원》에서 여러 차례 우수작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국 고교생 문예 현상 모집’에서 평론이 당선되어 문예 특기생으로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게 된다. 이때 당선된 정호승의 평론은 ‘전국 고교생 문예 현상 모집’에서 평론으로는 처음 당선된 작품이었다.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고등학생이 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는데, 원고에서 계속 한자를 틀리게 쓰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그 의심을 풀었다고 한다.

시의 본질을 알려 주신 어머니

정호승이 시를 쓰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16~17세 무렵 정호승은 우연히 부뚜막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가계부 수첩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수첩을 뒤적거리던 그는 수첩의 한 귀퉁이에 비뚤비뚤한 글씨로 씌어 있는 어머니의 시 한 편을 읽게 된다.

가네 가네 한 여인이 풍랑 속을 가네.
비바람 세파 속을 헤치며 가네.
기우뚱 기우뚱 풍랑은 쳐도
그 여인 어머니 될 때 바람 잣으리.

마치 소월의 민요조 같은 어머니의 시를 읽으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생계를 꾸려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고스란히 읽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는 재미와 지적 호기심만으로 시를 썼던 정호승은 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품고, 장차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다.

일상의 언어로 오늘의 현실을 노래한 시인

정호승은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가 당선 되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가 당선되어 등단하게 된다. 등단 이후 1970년대를 대표하는 시 동인인 ‘반시(反詩)’에 참여한다. ‘일상의 언어로 오늘의 현실을 노래하는 시를 쓰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관심,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위안을 담은 동시에 성찰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을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정호승은 개인적 서정을 쉽고 간명한 시어와 인상적인 이미지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으며 1990년대 이후 가장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은 시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정호승의 시는 약 40여 곡의 대중가요로 작곡되었는데, 2008년에는 가수 안치환이 ‘정호승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음반을 발표하였으며, 매해 정호승과 함께 콘서트를 열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맹인 부부 가수	눈 내리는 겨울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맹인 부부의 모습을 통해 소외와 무관심까지 포용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
슬픔이 기쁨에게	타인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시
수선화에게	인간의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근원적 속명으로 확대하여, 사랑의 외로움과 쓸쓸함에 대해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정호승 시비(詩碑)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 생태 공원에 위치. 정호승의 대표작 〈수선화에게〉가 새겨진 시비로, 시비 주변에 ‘시인의 길’이 조성되었으며 인근에 시 문학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대구 계성중학교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위치. 정호승의 모교로, 박목월, 김동리 등 훌륭한 문인들을 배출함. 3·1 운동 태극기를 비밀 제작했던 장소인 아담스관이 교내에 위치함.





작가 태그

#1970년대 #리얼리즘 #소외층에 대한 관심 #현실 비판 #상징성 #난쓰공

조세희 (1942~)

등단 이후 오랜 공백기

조세희는 1942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그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였다. 이때 우연히 접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깊은 문학적 감명을 느끼게 되었고, 고전과 대중 소설을 넘나들며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조세희는 작가의 꿈을 키우며 ‘아주 좋은 원고 삼천 장’을 쓰겠다고 결심한다.

1965년, 조세희는 암으로 어머니가 입원하기 직전 썼던 단편 〈돛대 없는 장선〉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한다. 암과 힘겹게 싸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느낀 상실감,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포크너, 보르헤르트, 카뮈 등의 뛰어난 작품에 짓눌린 부담감 등으로 인해 그는 등단 이후 십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킨다.

소외된 도시 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조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조세희가 다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3년 무렵이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1975년에 《문학사상》에 단편 〈칼날〉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은 ‘난쟁이 연작’의 첫 작품이다. 〈피비우스의 띠〉, 〈우주 여행〉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을 차례로 발표하고, 총 열두 편을 묶어 연작 소설집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펴내게 된다.

조세희는 빈곤층의 핍박받는 삶을 직접 목격한 뒤 놓았던 펜을 다시 잡았다. 다음은 《작가세계》에 실린 조세희 인터뷰의 일부이다.

“어느 날 나는 그 시절 최약자들이 몰려 사는 재개발 지역에 가서 집이 헐리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세입자 가족들과 그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반도 못 끝냈을 때 철거반이 철퇴로 대문과 시멘트 담을 쳐부수며 들어왔어요. 그날 지옥의 사자와 같은 철거반과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 집에서 싸우고, 골목 밖에서도 싸우고, 철거민 가득한 동회 앞으로 가 또 싸우고 돌아오다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사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는 그 노트에 ‘난쟁이 연작’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세희의 작품 속 ‘난쟁이’는 도시 빈민이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소외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조세희는 이런 인물의 억압받는 현실과 짓눌린 삶의 모습을 소설 속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대의 기록자로 남고 싶은 작가

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조세희는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통탄해하며 “어느 날 나는 내가 써야 할 많은 말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과 함께 집필 활동을 중단한다. 한편, 1979년 사북 지역의 광산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북 항쟁이 발생하는데, 조세희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때의 사진 작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1985년 사진 산문집 《침묵의 뿌리》를 출간한다.

지난 2005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00쇄 출간을 맞았다. 작가는 ‘200쇄 출간은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억압의 시대를 기록한 이 소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읽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30여 년 전의 불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작가는 펜 대신 사진기를 들고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글로써, 문학으로써 그는 시대를 기록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쟁이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삶과 고통, 좌절을 그려 낸 소설
외비우스의 띠	바깥 이야기인 수학 선생님의 외비우스의 띠 강의와 내부 이야기인 앓은뱅이와 굶주 이야기를 통해 산업화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을 다룬 소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난쟁이 가족의 큰아들 영수의 재판 과정을 통해 자본가 계급의 비윤리성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 주는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조세희 생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 생가가 위치한 묵안리는 가평군의 최남단 마을로, ‘초롱이 등지 마을’이라는 농촌 체험 마을이 조성되어 있음.



▶오프라인 사북 탄광 문화 관광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 사북 광부들이 일으킨 사북 항쟁은 조세희가 《침묵의 뿌리》를 쓴 계기가 됨. 2004년 이후 폐광되면서 관광객에게 공개됨.





작가 태그

#1940~1960년대 #청록파 #지조와 절개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 #민족 정신

조지훈 (1920~1968)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의 성장

조지훈의 본명은 동탁으로,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다. 그가 살았던 주곡리 주실 마을은 양반 가문인 한양 조씨 문중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다. 조지훈의 증조부 조승기는 1885년 을미사변 당시 경북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조부 조인석은 조선 말에 사헌부 대간을 지낸 덕망 높은 선비였으나 6·25 전쟁으로 마을이 공산군에게 점령당하자 자결하였다. 부친 조헌영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이와 같은 가풍은 조지훈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과 투철한 민족정신, 강인한 지조와 절개 등이 그의 시 세계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조지훈은 마을에 있던 월록서당에서 공부하면서 독학으로 중학 과정을 마친 뒤, 혜화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문학청년의 등단과 활발한 활동

조지훈은 16세가 되던 해에 서울로 상경하여 고향의 선배였던 시인 오일도의 집에 머물면서 습작을 해 나간다. 이때 서양의 탐미주의, 상징주의, 모더니즘 등 다양한 서구의 문예 사조를 접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리스 신화와 동양 전통 사상 등을 탐구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 나간다.

대학 입학 후 《백지》라는 동인을 결성하여 〈춘일〉, 〈부시〉 등의 습작 시를 발표하였다. 《백지》 제1집에 〈수휴록(愁休錄)〉이라는 제목으로 쓴 ‘편집 후기’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허리를 펴고 보면 문득 6월의 하늘. 이제 제법 땀을 닦고 피울 줄 모르는 담배라도 태워 보고 싶습니다. 난각(卵殼)을 뚫고 병아리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다리에 힘이 오르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귀여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편집의 성취감에 젖은 19세 청년 조지훈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같은 해 1939년 4월에는 《문장》에 〈고풍의상〉으로 응모하여 정지용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봉황수〉, 〈승무〉 등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민족 정신과 전통에 대한 향수, 불가 사상 등 동양적 전통을 주제로 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1946년에는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지조’ 있는 시인의 현실 인식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시인은 시대적 고통과 비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지훈은 자연으로의 귀의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된다. 작품 속에 동양의 깊은 정신세계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시기에 발표한 작품으로 <풀잎 단장>, <낙화>, <석문> 등이 있다.

한편 조지훈은 한글과 민족 문화 연구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데, 조선어 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도왔다. 해방 이후에는 우익 문학의 이론가로 활동하였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대전으로 내려가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로 종군하기도 하였다.

그의 유명한 논설 <지조론>에서 작가는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 확고한 집념)이요, 고귀한 투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지조’ 있는 시인 조지훈은 자신의 신념을 문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실에 대한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지식인의 삶을 실천했다.

교과서 Pick Up

낙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를 절제된 어조로 표현한 시
마음의 태양	해바라기, 노고지리와 같은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 즉 이상에 대한 의지를 노래한 시
승무	불교적 초인 '승무'를 통해 삶의 번뇌를 승화하려는 여승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려 낸 시
완화삼	암울한 현실에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정한을 애상적 어조로 표현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조지훈 생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위치. 경상북도 기념물 제 78호로 지정됨. 집터를 잡을 때 매방산에서 매를 날려 매가 앉은 자리에 집을 지었다고 전해짐. 생가 인근에는 조지훈이 공부했던 월록서당이 남아 있음.



▶온라인 지훈 문학관

(jihun.yyg.go.kr/jihun)
조지훈의 생애와 작품 세계, 주실 마을에 위치한 지훈 문학관과 매년 5월 개최되는 지훈 예술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사회 비판 #휴머니즘 #사랑 손님과 어머니 #비밀 사내 연애

주요섭 (1902~1972)

사회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은 지식인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주요섭은 형이자 시인인 주요한과 함께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지하 신문을 발간하다 출판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다.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수학한 뒤 중국의 푸젠대학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43년에 일본의 대륙 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월의 형을 받고 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했다.

친일 작품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하던 형 주요한과 달리, 당시 국내 지식인의 변절을 다룬 단편 소설 <의학 박사>와 같이 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발표했다. 광복 이후에도 입시 열풍에 빠진 사회를 비판한 <붙느냐, 떨어지느냐>, 세태 풍자 소설인 <세 죽음>과 <나는 유명이다> 등을 발표하며 사회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뿌리가 된 어느 언론인의 일상

주요섭은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뒤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삭제된 기사를 메우기 위해 본명을 비롯해 ‘여심’, ‘양두식’, ‘용약산인’, ‘멍텅구리’ 등의 다양한 필명으로 많은 글을 썼다.

사내에 있던 몇 안 되는 여성 기자 중 독립운동가 김조길 선생의 장녀인 김자혜와 서로 호감을 나눴지만, 당시 동아일보는 사내 연애에 엄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다 퇴사 후에야 결혼을 했다. 주요섭의 대표작이자 여성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평가받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의 마담> 등은 이 두 사람의 연애 및 신혼 시절에 집필된 것이다.

주요섭은 평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반 잔도 마시지 못하는 주량 탓에 술자리에서 안주만 축내는 편이었고, 만취해 버린 동료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다. 또한, 주요섭의 수필 <미운 간호부>에서 드러나듯 몰인정한 것을 싫어하며, 평소 청렴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을 지니고 있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격이었다.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

주요섭은 언론인이기보다 작가로서 기억되기를 바라며, 71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소설을 창작했다. 1920년대에는 그가 학생 시절을 보냈던 중국 상하이

를 배경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신경향적 성격의 작품들을 창작했다. 1930년대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정을 강조한 휴머니즘 계열의 작품을, 광복 후에는 사회를 향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들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벼알 삼 형제>, <고양이의 심사>와 같은 동화 작품도 여럿 창작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 대부분은 우리 문학사에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피천득이 말하는 '형 주요섭'

1972년 주요섭이 작고한 뒤 수필가 피천득은 '여심'이라는 제목으로 추모의 글을 기고하면서 주요섭은 친형보다도 더한 존재이며,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삽입된 어느 부분은 피천득과 그의 모친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요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주요섭의 호인 '여심(餘心)'의 뜻을 밝혔다. "형은 한 중국 여동학(女同學)과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심(餘心)이라는 아호(雅號)를 지었습니다. 타고 남은 마음이라고."

교과서 Pick Up

사랑 손님과 어머니	어린이의 눈으로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봉건적 윤리로 억압받는 인간적 감정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소설
인력거꾼	중국 상하이에서 8년 동안 인력거를 끌었던 '아쟁'이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하루를 통해 작가가 지닌 하층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인도주의적 자세를 드러낸 소설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주요섭 문학비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 고향 문화 동산에 위치.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중 일부 내용이 새겨져 있음. 주변에 안도현, 김기택 등 경희대 교수 및 동문 시인의 시 34편이 새겨진 돌이 놓여 있음.



▶오프라인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촬영지

수원시 행궁로에 위치. 영화 속 옥희와 어머니가 살던 집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개인이 거주함. 주변에는 또 다른 촬영지인 '한데 우물'과 '화홍문'이 남아 있음.



차범석 (1924~2006)



작가 태그

#전후 문학 #사실주의 희곡의 완성 #전원일기 #연극계의 스승 #한국 연극의 대중화와 세계화

전라남도를 뿌리로 삼은 문학청년

목포의 대지주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차범석은 독서를 즐기며 조용하고 침착한 모범생이었다. 13세 때 목포로 공연하러 온 안무가 최승희의 무용을 보고 감동하여 예술에 눈을 떴고, 일본 유학 시절 외국의 영화와 연극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 꾸준한 습작과 연출 활동을 한 결과 32세의 나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밀주〉가 가작으로 입선하여 등단했다.

연극은 세밀한 관찰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닌 차범석은 그의 터전인 남도의 방언과 어민들의 삶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차범석 스스로도 자신이 써 온 작품들의 뿌리는 남도라고 밝히기도 할 만큼 남도 사람들이라면 알 만한 것들을 소재로 삼았다. 또한, 차범석은 국민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를 1화부터 집필한 초대 작가이기도 했는데, 어릴 적 목포의 중등포 지역에서 겪은 체험들이 드라마 에피소드 집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근대와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연극계의 역사

차범석이 처음 응모한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심사 당시 오영진은 뛰어난 작품이라며 〈밀주〉를 당선작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유치진은 오히려 “이런 작가는 단번에 당선시키면 거만해지니 이번엔 가작을 주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대의 유명 극작가인 유치진과 오영진의 큰 관심을 받은 차범석은 다음 해 신춘문예에 〈귀향〉을 투고했고, 이 작품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차범석은 1963년 극단 ‘산하’를 창단하며 지방 어느 곳의 시민들이라도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연극의 대중화, 한국 창작극의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극단 ‘산하’에서 연기한 그때의 배우들이 현재는 원로 배우로서 현대 연극계를 지탱하고 있다. 강부자는 1966년부터 〈산불〉에 출연했고, 최불암은 〈껌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순재, 나문희, 손숙 등도 차범석의 작품을 연기했다.

차범석은 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칠레 출신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이 〈산불〉을 각색한 창작 뮤지컬 〈댄싱 새도우〉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산불〉의 일본 공연에 쓰일 대본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하는 등 현역 작가로서 한국 희곡의 세계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병세가 악화되어 〈댄싱 새도우〉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대쪽 같은 연극계 큰 어른

차범석은 오랜 시간을 들여 작품을 구상하는 대신, 집필을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탈고하는 극작가였다. 실제로 <산불>은 구상에만 10년이 걸렸고, <옥단어!>는 7년이 걸렸다. 기본과 원칙, 연극 정신을 중시하는 차범석은 팔순을 앞둔 나이에 열정을 지닌 극단이 공연한다면 그곳이 지방이든 해외든 얼마든지 찾아가 연출을 돕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별명이 ‘면도칼’일 정도로 차범석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화를 냈으며, 호불호가 분명했다. 이렇게 호랑이 선생님 같은 면모가 있는 ‘큰 어른’이었지만 동료 및 후배들과 쉬이 어울리고 술자리를 즐겼다. 흥이 오르면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부르고 춤을 곁들이기도 했다. 혹여 가난 하더라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삶에 여유가 있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작가는 평생을 신용 카드, 휴대 전화, 자가용 없이 지내다 하늘로 돌아갔다.

교과서 Pick Up

산불	분단과 전쟁에 희생되는 남녀 간의 원초적인 애육과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으로, 이데올로기의 무의미함과 삶에 향한 욕구를 밀도 있게 그리며 사실주의 희곡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극
성난 기계	기계처럼 비인간적이던 의사가 자신보다 더 비정한 인간에게서 분노를 느껴 인간성을 되찾는 내용으로, 인정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사실주의 극
불모지	높이 치솟은 고층 건물과 대비되는, 한 가족의 세대 갈등과 해체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전후 사회의 모순과 가치관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1950년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는 극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목포 문학관

전라남도 목포시 갯바위 해양관광단지에 위치. 목포에서 활동한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을 기리는 4인 복합 문학관으로, 그들의 작품과 문학적 성과를 만날 수 있음.



▶오프라인 천관산 문학 공원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 천관산 기슭의 자연 숲을 활용하여 건립한 문학비 공원임. 장흥 출신의 문학인은 물론 차범석과 같이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한 문학인들의 문학비도 있음.



채만식 (1902~1950)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리얼리즘 #풍자의 고수 #까칠남 #방황하는 지식인 #가난한 작가 #민족의 죄인 #판소리 문체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

채만식은 일본에서 유학 중에 대학의 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활기차고 어려움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엄청난 부자 계급도 빈궁한 계급도 아닌, 어중간한 재산을 지닌 집안에서 자랐다는 성장 배경 때문에 작가가 남긴 작품들은 계급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대의 많은 지식인이 그렇듯이 채만식은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성장하여 신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은 알지 못했다. 채만식은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못하고 일할 의지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지식인을 가리켜 ‘룸펜’이라고 지칭했는데, 자신도 이 무리에 속한다고 자평했다. 그러한 ‘룸펜’의 속성은 <치숙>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혼(早婚)으로 괴로웠던 사나이

18세인 1920년에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중 갑작스레 시골로 내려오라는 편지를 받고 20세였던 은선홍과 결혼하게 되는데, 채만식은 이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하는 수 없이 뿔도 모르고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결혼 행렬이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거센 바람이 불더니 가마의 뚜껑이 날아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엇인가 불길한 것을 예감했었지요.”

채만식은 신여성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은선홍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는 얼마 못 가 은선홍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원치 않던 조혼으로 겪은 스트레스는 <레디메이드 인생> 외에 여러 작품에 투영된다.

가난이 준 소설과 죽음

아버지가 미두(米豆) 사업에 손을 대고 집안이 몰락한 후, 채만식은 폐결핵으로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과 미두 사업으로 집안이 몰락한 경험은 <탁류> 속 ‘초봉’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가난 앞에서도 채만식은 소설을 놓지 않았으나 병은 더욱 깊어졌다. 평생 원고지를 풍부하게 가져 본 적이 없으니 죽을 때만이라도 한번 머리맡에 원고지를 수북하게 쌓아 보고 싶다는 말을 친구에게 전했고, 죽기 직전에도 ‘양복을 팔아 마이신(항생제)을 맞았다면 지금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예민함과 결벽증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

채만식은 유능한 신문 기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채만식 자신도 그의 성격을 두고 ‘신경질 제3기’라고 표현할 만큼 우울증과 신경질이 가득했다. 결벽증도 있어 남의 집에서 식사할 때 개인 수저를 챙겨 갔고, 빈곤한 생활에도 깔끔한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다녀 ‘불란서 백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매사 비판적이었고, “난 개하구 무식한 사람하구가 제일 무서워. 대체로 경우가 없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여 그와 깊이 교우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남의 환심을 사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주변의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만, 개성 독서회 사건으로 구속되고 유치장에서 벗어나고자 채만식은 여러 편의 친일 작품을 쓰고 ‘민족의 죄인’이 되었다.

교과서 Pick Up

탁류	일제의 수탈로 인해 순수했던 여인이 타락하고 살인자가 되는 과정을 맑은 강물이 점차 혼탁해져 거센 탁류가 되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당시 도시 하층민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한 소설
태평천하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 여기는 윤 직원과 그의 일가가 붕괴되는 과정을 해학과 풍자로 그려 내고, 세대 간의 가치관 갈등과 대립, 당대 사회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소설
치숙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사회주의 운동으로 감옥에 살다 나온 무기력한 지식인과 그를 비판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을 비판하는 소설
논 이야기	해방되면 팔아 버린 땅을 되찾길 기대하는 주인공의 행태를 풍자하면서 역사 의식이 결여된 소시민의 욕심과 해방 후에도 농민들이 땅을 뺏겨야 하는 잘못된 농업 정책을 비판하는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장미 공연장

전라남도 목포시 갯바위 해양관광단지에 위치. <탁류>의 정주사가 일했던 미두장을 공연장으로 보수한 곳으로, <탁류>의 등장인물을 동상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음.



▶오프라인 채만식 문학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 채만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채만식의 유품,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음. (홈페이지: www.gunsan.go.kr/chae/index.gunsan)





작가 태그

#1980년대 #마음의 수수밭 #절망의 승화 #물과 구름 같은 삶 #긍정적 삶의 자세

천양희 (1942~)

자연이 주는 시(詩)

천양희는 부산 사상의 시골 마을에서 산줄기, 구름, 꽃 등의 자연을 보러 산과 들로 놀러 다녔다. 이런 모습은 원로 시인이 된 지금까지도 시상을 찾기 위해 자연 속을 거니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천양희는 평소에도 바람을 좋아하고 등산을 즐긴다. 집에만 앉아 시를 쓰면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닿는 곳으로 떠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보낸다. 교감을 통해 얻은 감동과 착상은 메모지로 옮겨지고 밤중에는 하나의 시로 엮어진다.

〈마음의 수수밭〉도 강원도 지역을 갔다가 우연히 한 수수밭을 발견한 경험에서 쓰게 된 작품이다. 어릴 적에는 쉬이 볼 수 있던 수수밭을 오랜만에 발견한 그는 그곳에서 갑작스레 통곡했다. 몇 시간 뒤에야 울음을 그치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다잡으며 집에 돌아와 〈마음의 수수밭〉을 써 내려갔다.

‘너는 시인이 될 거야.’

천양희는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랑방에서 지방 유지들과 당송 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초등학교 때는 동시 대회에서 상을 탔는데 그때의 담임 교사가 “너는 시인이 될 거야.”라는 말을 했다. 그 짐작이 들어맞았는지 대학 3학년 때인 1965년에 박두진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대학생 시인’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 생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1982년까지 공백기를 보내게 된다.

절망과 죽음을 벗어나 찾은 생(生)의 길

시인으로 등단하고 만나게 된 시인 정현종과 결혼했지만, 이혼의 고통을 겪고 의상실을 경영하며 근근이 살아가다 결핵과 심장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때 겪은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시로 표현하여 1983년에야 다시 문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에는 삶에 대한 절망과 외부 세계를 거부하는 비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 작가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며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강원도의 수수밭과 전라남도 내소사 근처의 직소 폭포를 만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이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바꿔 놓는다.

폭포의 끈은 물줄기 소리를 들으며 울다가 “네가 죽을 만큼 살았느냐.”라는 말이 들리는 듯하여 왜 죽으려 하는지를 돌이켜 보고 자살 시도를 그만두었다. 그리

고 그때 얻은 깨달음은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가 되었다. 자신이 경험한 절망과 고통을 삶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로 승화한 천양희의 시적 경향은 시집 《마음의 수수밭》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작품에 담긴 진솔한 경험과 깨달음은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시 쓰기는 ‘괴로운 기쁨’

천양희는 시를 쓰기 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리고 높은 책상이 싫어서 낮은 교탁상에서만 시를 쓴다. 높은 데 앉으면 평상심이 생기지 않고 교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서란다.

“시인은 안일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물과 구름처럼 떠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천양희는 말한다. 지금까지 천양희가 그러했듯이 그는 자기 목숨에 대한 반성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인이라 여기며 어둠 속의 등불이 되는 시, 장애물을 쓸어 버리는 바람과 같은 시를 쓰고자 기꺼이 ‘괴로운 기쁨’을 감내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참 좋은 말	좋은 말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여 화자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평이한 시어로 표현한 시
새가 있던 자리	역경을 이겨 내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완성이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노래한 시
외길	외길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직소 폭포

전라남도 부안군 내변산에 위치. <직소포에 들다>의 소재가 된 곳이며 천양희가 생을 향한 의지를 깨달은 곳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변산 8경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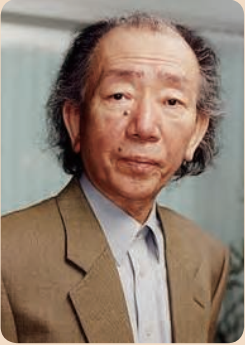


▶오프라인 수락산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위치. 천양희가 이곳에 올랐다가 수락산의 많은 입을 보고 <너무 많은 입>의 시상을 떠올림.



최인훈 (1936~)



작가 태그

#1960년대 #전후 문학 #광장
#10번의 개작 #관념적 #시대에
민감한 지식인 #극작가

청년 최인훈의 등단

2017년 2월 81세의 원로 작가 최인훈은 입학 65년 만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장을 받았다.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6·25 전쟁 중 월남한 그는 전쟁 후 혼란한 현실 속에서 법학 공부에 회의를 느끼고 휴학계를 낸 채 복학하지 않았다. 최인훈은 대학 대신 선택한 7년간의 군 복무 생활이 자신에게는 도리어 참된 대학 생활과도 같았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군 복무 중에 집필한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라울전>을 작가 안수길이 추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된 최인훈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우울과 방황을 작품에 담아낸다.

4·19 혁명과 <광장>

1960년 11월, 25세의 최인훈이 발표한 <광장>은 한국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분단 이후 우리 문학계에서 남쪽과 북쪽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작품은 <광장>이 최초였다. 6·25 전쟁 당시 남과 북의 포로 군인 70여 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인도행 배를 탄 일이 실제 있었는데, 최인훈은 이 사건을 <광장>의 모티프로 삼았다. 이 모티프 속에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명준'이라는 문제적 주인공을 창작해 넣었다. 두 사상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고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명준'의 행동은 당시 한국 사회를 쥐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직접 뒤흔든 것이었다.

1960년 4월 최인훈은 광주에서 직업 군인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의 과정을 신문 기사와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 하지만 청년 최인훈에게 4·19 혁명은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곧 <광장>이 태어나는 밑거름이 된다. 그는 <광장>의 구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4·19 혁명을 통해 잠깐이나마 형성된 자유의 공간과 1945년에서 1950년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광장>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

<광장>을 발표하고 두세 달 지나 전방에서 근무하던 최인훈은 육군본부의 호출을 받는다. 당시 참모총장이 <광장>을 쓴 군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호출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정신적 압박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것은 역시 4·19 혁명의 여파 덕분이었다고 최인훈은 회상한다.

시대에 따라 응답하는 <광장>

<광장>은 처음 발표된 1960년부터 2015년까지 10번의 개작을 거친다. 작품의 분량도 늘어나고 작품의 구조는 물론 내용까지 많은 수정을 거쳤다. 최인훈은 처음 <광장>을 쓸 때는 4·19 혁명 직후 너무 생생한 사건을 역사에 증언한다는 느낌이었지만, 자신의 정신력이 있는 한, 한 글자라도 좋은 모습으로 개정해서 후대 독자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광장>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학으로 소통하는 지식인

최인훈은 <광장> 이후에도 끊임없이 현 시대 속 지식인의 고뇌, 방향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정치, 역사, 철학,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품 속에 풀어놓고 세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이러한 지식인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소설 외에도 <동동 낙랑동>,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등의 희곡도 다수 발표했다.

교과서

Pick Up



광장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개인의 자유와 진정한 인간적 삶을 가로막는 이념 대립의 폭력성을 고발한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남북 냉전 시대인 1970년대의 예술가와 지식인이 지닌 우울한 자의식과 내면을 그려 낸 총 15편의 연작 소설
동동 낙랑동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설화의 마지막 시점부터 시작하는 작품으로, 나라의 대의에 맞서는 인물들의 사랑과 죽음을 최인훈 특유의 시적 대사로 그려 낸 희곡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에 위치. 6·25 전쟁 당시 가장 컸던 포로수용소 유적으로, <광장>의 '이명준'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수용된 상황을 짐작하게 해 주는 자료들이 전시됨.



최일남 (1932~)



작가 태그

#1950년대 이후 #물질 만능주의 비판 #풍자와 해학 #공평한 농촌 #소시민의 삶 #최고의 인터뷰어

언론인들의 교과서가 된 언론인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한 최일남은 1953년 <쑥 이야기>를 발표한 이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했으나 1959년부터는 《민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거치며 언론인으로 활동한다. 1980년에 일본, 미국, 멕시코, 페루 등지에서 취재하던 중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되자 다시 창작 활동에 집중하여 <고향에 갔더란다>, <서울 사람들> 등의 작품을 내놓았다. 1984년부터는 다시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 갔는데,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며 후배 기자들에게는 ‘글쓰기의 전범(典範)’을 보여 주는 선배 언론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1900~1940년대에는 언론인들이 소설가를 겸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일남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1960~1980년대에는 드문 일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현역 소설가로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언론학자들이 꼽는 최고의 인터뷰어

1980년대 후반엔 잡지 《신동아》에서 ‘최일남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한국 언론계에서 인터뷰어의 이름을 내건 첫 시리즈라는 의미가 있다. 최일남은 ‘당대 제일의 인터뷰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의 인터뷰 스타일은 인터뷰 대상을 배려하면서도 속 깊은 이야기를 꼬집어내며, 상대의 이야기에 감정 이입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분석하며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다. 오랜 기자 생활에서 우리나라 통찰력과 사실의 핵심을 파헤치는 능력은 그의 작품 속에서 사소한 일상생활 속 갈등을 면밀히 드러내는 힘으로 발휘된다.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한국 현대 소시민의 삶

최일남은 초기 소설에서 농촌 생활에 대한 묘사를 다수 보여 주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의 공평한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한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세태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을 풍자와 역설로 표현하는 탁월함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채만식의 후예’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얼마간의 공백기 후에는 농촌보다 도시 생활에 집중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도시인들의 비애를 그려 낸다. 한국 사회의 변동으로 인해 벌어지는 세대 갈등과 가치관의 변화도 그에겐 중요한 관심사였다. 언론인 특유의 통찰력을 발

휘하여 타락한 정치 행태와 지식인의 위선적 면모, 언론의 무기력함을 풍자의 수
법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원로 작가의 관심사

최일남은 예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려는 작가이다. “먹는 것 하나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변할 수 있고 옷도 그렇고 사
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라고 말하는 작가는 ‘사람 사는 것’에 늘 관심을 두
고 그것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에도 관심을 두고, 그들의 감각을 얻기
위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필사하기도 한다.

세상은 계속 변해 가지만, 작가는 여전히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 낸 소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글을 쓰고자 하는 열의를 불태
우고 있다.

교과서 Pick Up

흐르는 북	1980년대 서울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중심 소재인 '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과, 속물적 삶과 본 원적 삶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 소설
노새 두 마리	어린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서술하여 급변하는 대도시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이주민들 의 삶과 불행을 그린 소설
썩 이야기	아버지가 노무자로 끌려간 뒤 더 혹독한 가난에 빠진 모녀의 고달픈 삶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보여 주는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각시바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 최일남이 고향인 전주에서
그리워하는 것 중의 하나로, 어릴 적 바위에서 물로 뛰어들
며 헤엄을 치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 곳임.



▶오프라인 완산칠봉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 최일남이 어릴 적 뛰어놀던
곳으로, 시인 안도현이 '완산칠봉'을 글에 쓴 것만으로도 반
가워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장소임.



피천득 (1910~2007)



작가 태그

#1970~1990년대 #인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딸 바보 #서정적 수필 #아이 같은 순수함

어머니와의 인연

피천득은 1910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종각에서 종로5가, 양재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부호였지만 아들의 성장을 보지는 못하였다. 피천득은 10세가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여의게 되어 삼촌 집에서 성장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인연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 그의 어머니는 서화와 거문고 실력이 뛰어났으며, 아들에게는 매우 자애로웠다. 피천득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자주 언급했고, 모자간의 추억은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도 삽입되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각별한 마음을 담아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 격동의 시대 속 인연

피천득의 문학적 자질을 알아 본 이광수는 피천득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문고를 타고 노는 때 묻지 않은 아이’라는 뜻의 ‘금아’라는 호를 붙여 준다. 이광수의 권유에 따라 상해 유학길에 오른 피천득은 도산 안창호와도 만나게 된다. 피천득은 안창호를 많이 존경했지만, 안창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을 늘 아쉬워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안창호의 장례식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고, 피천득은 장례식까지는 갔으나 그곳에 들어가면 몸이 위험해 겁이 나 물러서 있었다. 피천득은 그때 더 용감하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했다.

시의 아름다움을 불어넣은 수필

피천득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1946년부터는 30년간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문 시를 활발하게 번역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편은 완벽에 가깝게 번역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시 번역에도 능했지만, 그는 1930년 <서정소곡>을 발표하여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가 창작한 시 작품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학 경향은 수필로도 이어졌고, 피천득은 생활 속 소소한 소재에서 느끼는 감정을 친근한 표현과 아름다운 문체로 풀어낸 수필 작품들을 발표한다. 특히 수필이 지닌 본질을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라 규정하면서 수필의 문학성을 정립하기도 했다.

수필 속 생활의 뒷이야기

피천득은 딸 서영을 아끼는 마음을 수필 〈서영이〉에 표현했다. 딸 서영의 말소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 그는 딸이 유학을 가자 적적한 마음에 어린 소녀 인형을 사다 ‘난영’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중히 아끼기도 했다.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수필이 유명해진 탓에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천득은 두 아들에게도 평생 ‘아빠’로 불릴 만큼 친구 같고 자상했다.

도쿄에서 마주친 소녀 ‘아사코’와의 인연을 담담하게 쓴 〈인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한 방송사에서 직접 ‘아사코’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천득은 ‘서로에게 환멸을 느낄 것 같다.’라며 거절했다.

물욕 없이 평생 어리고 작고 아름다운 것을 아낀 그는 93세의 나이에도 2002 월드컵의 감동에 겨워 〈붉은 악마〉라는 시를 창작할 정도로 천진하고 열정이 많은 작가이다.

교과서 Pick Up

인연	‘아사코’라는 여인을 20여 년간 세 번 마주치는 과정을 정교하게 축약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한 수필
수필	함축적인 비유를 활용하여 수필의 특성을 드러낸 ‘수필로 쓴 수필론’으로, 수필의 본질과 특성을 구체적이면서도 쉬운 언어로 표현한 수필
플루트 연주자	오케스트라와 플루트의 관계를 통해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표현한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	물질적인 것보다 작고 소박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수필
은전 한 닢	가진 것이 없는 늙은 거지가 은전 한 닢을 갖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여섯 달 동안 노력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욕망의 순수함과 허망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수필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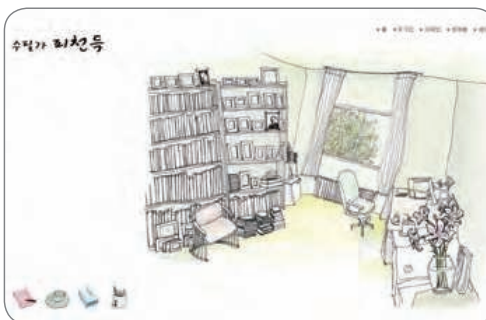
▶오프라인 피천득 기념관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 위치. 피천득의 생애와 관련 영상, 유품을 공개하고 작가의 서재를 재현해 전시했으며, 가족, 지인들과의 인연을 소개함.



▶온라인 금아 피천득 홈페이지

(pichyundeuk.isamtoh.com)
피천득의 연보, 저서, 작품과 책을 공개하며 그의 가족과 인연들과의 일화를 소개함.



하근찬 (1931~2007)



작가 태그

1950년대 이후 # 전후 소설
수난시대 # 전쟁과 농촌 # 민족의 수난 # 내 마음의 풍금

산골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경험

하근찬은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17세 때부터 전주사범학교를 다니고 교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고, 군 제대 뒤에도 교육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사, 잡지사에서 일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가까이한 그의 경험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동들의 대화를 개연성 있게 구성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영화 <내 마음의 풍금>으로 각색되어 주목을 받은 소설인 <여제자>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작가가 어느 산골 학교의 교사로 부임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창작한 작품으로, 짝사랑을 받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짝사랑을 하는 여제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삶을 활취고 간 전쟁의 참상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민의 내면이나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 등을 작품에 다루었다. 하근찬은 그들과 달리, 향토성 짙은 농촌을 배경으로 삼아 전쟁으로 인해 민중들이 수난을 겪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하근찬은 어린 시절에는 일제에 의한 민족의 수난을 경험했고, 더 자라서는 6·25 전쟁의 비극을 겪었다. 그의 작품에도 민중들이 험난한 역사로 인해 겪는 고난과 아픔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다. 특히 하근찬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전쟁의 과정과 양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민중의 삶에 큰 관심을 두었다. 전주에서 교사 생활을 할 당시, 전쟁에 나가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과 그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근찬은 그들의 비애를 쓰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목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근찬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폭력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다. 하근찬이 19세 때 그의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학살당했고, 하근찬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시체가 쌓인 곳을 더듬고 다녔다. 그 당시를 떠올리며 하근찬은 “나는 그때 전쟁의 잔학성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 소름 끼치는 절망을 느꼈었다. 어머니와 둘이서 시신을 찾아 가매장하던 그날의, 마치 지옥의 하루 같던 일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파괴된 운명 속에서 희망을 찾는 민중

일반적인 전쟁 소설 속에서 전쟁으로 삶이 파괴된 민중들은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며 복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하근찬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들의 비극 앞에서 끈질기게 일어나 강한 집념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제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작품의 밑바탕에는 역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담게 됩니다. 작품에서 대부분 시골을 무대로 삼은 것도 전쟁의 살벌함 속에서 물 흐르고 바람 부는 자연의 유장함을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비참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학 속의 슬픔과 웃음 속의 눈물을 그린 것이지요.”

하근찬은 <수난시대>와 <흰 종이수염>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부자간의 애정, 사람 사이의 인정을 통해 역사적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휴머니즘 정신은 지금까지도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수난시대	일제의 징용으로 인해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6·25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을 고발하고 비극을 극복해 나가려는 민중의 의지를 그린 소설
여제자	산골 작은 마을에 부임한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16세 늦깎이 여제자의 순수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
흰 종이수염	전쟁으로 한쪽 팔을 잃은 채, 흰 종이수염을 붙이고 영화를 선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놀리는 아이들과 싸우는 ‘동길’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해학적 수법으로 표현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영천 시립 도서관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에 위치. 하근찬의 고향인 영천시에서 2016년 작가의 유품과 초기 발행본 등을 기증받아 영천 시립 도서관에서 전시 중임.



▶오프라인 <내 마음의 품> 촬영지

전라남도 장성군 금곡영화마을 내 위치. 하근찬의 소설 <여제자>를 원작으로 한 영화 <내 마음의 품> 촬영지 외에도 영화 <태백산맥> 촬영지도 관람할 수 있음.



한용운 (1879~1944)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님의 침묵 #이별의 역설 #독립운동가 #조선 불교의 지도자

조선의 위기 속에 성장한 조선 불교의 지도자

한용운은 임오군란, 동학 농민 운동 등의 사건으로 조선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위기를 지켜보며 성장했다. 14세에 결혼을 했으나 18세에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가 머슴으로 일하다가 출가했다. 1913년에 조선 불교의 침체를 비판한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발표하여 불교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한편, 1918년에 셋방을 얻어 잡지사라는 간판을 걸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청년 계몽 운동 잡지인 《유심》을 창간한다. 이 잡지에는 한용운이 처음으로 발표한 자유시인 <심(心)>이 실려 있어, 국권이 피탈된 조선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용운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완고하고 끈은 성품의 독립운동가

1919년 3·1 운동의 중심에는 한용운이 있었다. 한용운은 주도적으로 민족 대표 33인을 조직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식인 몇몇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 분개했다. 한용운은 거사 전에 다른 민족 대표들에게 ‘변호사를 대지 말 것, 사식을 취하지 말 것,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이라는 3대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투옥 중에도 그 행동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다. 하루는 함께 갇혀 있던 어떤 민족 대표가 자신들이 곧 극형에 처해질 것이란 소문을 듣고 훌쩍였는데, 한용운은 똥통에서 오물을 들어 울고 있던 이에게 던지며 “민족 대표로 서명한 것을 취소해 버려라!”라며 호통을 쳤다.

1933년에 한용운은 성북동에 자택인 ‘심우장’을 짓는다. 한용운은 심우장을 지을 때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고 살기가 싫어 별이 들지 않는 북향으로 터를 잡았다. 그는 냉골인 자택에서 독립을 향한 의지와 민족정신을 담아 <흑풍>, <후회> 등의 소설과 한시, 시조 등을 남겼다.

승려 한용운의 가족

한용운은 조혼으로 얻은 아내가 해산을 앞두고 진통을 겪을 때 미역을 사겠다고 집에서 나와 그 길로 설악산 오세암으로 향했다. 아들의 출생일에 출가한 그는 아들이 장성하여 찾아와도 쫓아냈다. 이후 55세에 간호사로 일하던 32세의 여성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뒤이어 딸을 얻었다.

한용운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승려가 범속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선통감부에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용운은 생활 불교에서는 독신이 아니라 생산적 부부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두 번째 아내와 여생을 함께했다.

한국 현대 문학사 속의 한용운

한용운이 활동하던 시기의 문인 대부분은 동인(同人)으로 모여 동인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거나 외래 문예 사조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창작했다. 그런데 한용운은 이러한 분위기의 한국 문단 속에 있지 않았다. 그가 발표한 시집 《님의 침묵》은 당시 문단에 큰 파문을 던졌으며, 은유법을 활용하여 불교 사상과 민족정신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남긴 뛰어난 시인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겼다.

한평생 조국 독립을 염원하던 작가는 독립 의지로 세운 자택 ‘심우장’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 가다가 조국이 해방되기 1년 전에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교과서 Pick Up

님의 침묵	이별의 상황을 불교의 역설적 인식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강한 믿음을 노래하며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시
알 수 없어요	자연 현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깨닫고 절대자를 위한 희생 의지를 설의법과 반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 시
나룻배와 행인	화자를 이별한 임을 기다리는 나룻배로 비유하여 임을 향한 헌신적 사랑을 바탕으로 기다림을 인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심우장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 한용운이 1933년부터 여생을 보낸 자택으로, 한용운의 글씨와 연구 논문집, 공판 기록 등을 보존하여 전시함.



▶온라인 만해 기념관

(www.manhae.or.kr)
한용운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기념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한용운의 작품과 해설, 일화, 교육 활동지 등을 공개함.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만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수옥
김시습
김영랑
김용택
김유정
김종성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원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성문
성석제
송수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승원
이양하
이용악
이육사
이철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장영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오석
차범석
채만식
천안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함민복 (1962~)



작가 태그

#1990년대 이후 #강화도의 시인 #서정 시인 #자연의 생명력 #가난 #행복 시인 #희망

산골 소년에서 강화도의 갯벌 시인으로

1962년 충청북도 충주 노은면의 산골에서 태어난 함민복은 1996년 우연히 놀러 갔던 강화도 마니산이 좋아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다. 그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에 터를 잡은 이유는 도시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강화도의 시인'으로 불리며, 서해 바다와 갯벌에 매혹되어 강화도의 자연이 전달하는 생명력과 희망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시집 《말랑말랑한 힘》은, 도시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강화도 갯벌의 힘을 전하고 있다. 그의 시는 이웃과 친화하고 자연을 존중하면서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말하며 느리게 쓰라고 말하고 있다.

시인의 삶을 담은 첫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2003년에 펴낸 첫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에서 함민복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문학적 모태가 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산문집에 수록된 작품 중 책의 제목이기도 한 〈눈물은 왜 짠가〉는 1996년에 낸 시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에 수록된 시이기도 하다. 산문 형식으로 쓰인 작품이라 그대로 산문이 되고 시도 되었다. 이 작품은 빗더미에 쫓겨 갈 곳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 댁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들른 설렁탕집에서의 짧은 일화를 담고 있다.

지난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 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에서

함민복의 시에서 가난과 슬픔, 고통과 그리움은 어머니의 원형적이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다. 함민복은 가난과 고단한 삶을 그대로 끌어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 삶을 짓누를 때에도 긍정을 잃지 않고 있다. 소설가 김훈은 함민복을 두고 “그의 가난은 ‘나는 왜 가난한가.’를 묻고 있지 않고, 이 가난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존재하는가를 묻는 가난이다. 그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원초적 조건

속에서 돌아나오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부부란 서로의 높낮이와 걸음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함민복은 마흔아홉 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때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온 제자이자 고향 친구인 박영숙 씨는 힘없이 누워 있는 함민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2011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주례는 등산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훈이 맡았고, 많은 문인들이 이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긴 상이 있다 /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 한 발 / 또 한 발
- 함민복, 〈부부〉

이 시는 함민복이 노총각 시절, 후배의 주례를 맡아 했던 주례사를 시로 만든 것으로 부부와 가족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Pick Up

비린내라노	바닷속 생물의 비린내를 소재로 하여 엉뚱하지만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 주는 시
연필에 새긴 이름	고향 친구를 소재로 하여 어릴 적 좋아했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다룬 산문
독은 아름답다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복어 알, 술을 끊은 친구의 독한 마음 등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비되는 새로운 속성을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강화도의 동막 해변

인천시 강화도 강화군 마니산 남단에 위치. 함민복 시의 배경이 되는 동막 해변은 넓은 백사장과 갯벌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함.



▶온라인 강화 문학관

(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인천시 강화도 강화군 강화를 강화대로에 위치. 강화 문학관에서 함민복이 문학 강좌를 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힘씀.



허균 (1569~1618)



작가 태그

#조선 시대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 #홍길동전 #한글 소설 #허난설헌 #유재론 #호민론 #광해군 #이매창

천재 소년의 어린 시절

허균은 어릴 적부터 기억력이 비상하였고, 10세 이전의 소년기 때에는 글을 잘 지어서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유몽인은 《어우야담》에서 “역적 허균은 총명하고 재기가 뛰어났다.”라고 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허균은 9세에 능히 시를 지었는데 작품이 아주 좋아서 여러 어른이 칭찬하며, “이 아이는 나중에 문장 하는 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모 사위 추연만은 그 시를 보고 “후일 그가 비록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되더라도 허씨 문중을 뒤엎을 자도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균과 매창의 인연

1601년 6월에 허균이 호남 지방의 전운 판관(삼창의 양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직책)을 맡아 부안에 도착한 것은 7월 23일이었다. 그곳에서 허균은 기생 이매창(계랑)을 만나 정신적 사랑을 나눈다. 이매창은 ‘이화우 흠뻑릴 제’로 시작하는 이 별을 노래한 시조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 사랑했던 연인은 천민 출신의 시인 유희경이었다. 매창을 같은 문인으로 좋아했던 허균은 매창이 38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그녀의 고향인 부안에 와서 <애계랑>이라는 애도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 허균은 매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계생(매창)은 부안의 기생이라. 시에 밝고 글을 알며, 노래와 거문고를 잘한다. 그러나 절개가 굳어서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 재주를 사랑하고 허물없이 친하여 농을 할 정도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지나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래도록 우정이 가시지 않았다.”

매창은 허균에게 이성이기보다는 정신적 사랑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음식 해설서 《도문대작》

《도문대작》은 1611년에 허균이 전라도 함열로 귀양 갔을 때 유배지에서 쓴 책으로, 우리나라 팔도의 명물 토산품과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귀양지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전국의 진미를 그리워하던 허균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도문대작’이란 ‘고깃간 문 앞에서 입 다시는 소리를 크게 내며 고기를 씹어 먹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뜻이다. 각 지역의 맛있는 요리를 적은 음식 해설서로서 조리서가 없었던 조선

중기에 팔도 음식을 기록한 것이라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 책의 서문에는 ‘조선 시대 남성 학자들이 식생활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글이 있다.

광해군의 스승이었던 허균의 안타까운 죽음

광해군이 세자일 때 광해군의 스승이었던 허균은 이상 사회를 꿈꾸던 시대의 이단아이기도 하였다. 허균의 스승인 허균의 둘째 형 허봉과 그의 친구 이달은 허균의 누이 허난설헌의 스승이기도 하다. 서자 출신의 이달은 당나라 시에 능통했으며 백광훈, 최경창과 함께 이름을 떨칠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 그러나 서자라는 이유로 출세하기 어려웠는데, 허균은 이러한 스승의 삶을 안타까워했다.

허균은 자신이 서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자의 편에서 뜻을 같이하였다. 허균의 이러한 사고는 <홍길동전>과 <유재론> 등에 담겨 있다. 정치적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던 허균은 결국 1618년 영창 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로 생을 마감하였다. 《광해군 일기》에는 허균의 죽음을 두고 당시 대북 정책의 핵심이었던 이이첨과 한찬남이 허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한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교과서 Pick Up

홍길동전	비범한 재주와 능력을 지닌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적서 차별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부패 행위 등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한 사회 소설
호민론	백성을 향민·원민·호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지만 지배층이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호민이 나타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배층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함을 역설한 글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 허균과 허난설헌(허균의 누이. 조선 중기 최고의 여류 시인)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 허균·허난설헌의 생가 터가 옆에 있음.



▶오프라인 부안 매창공원 안의 허균 시비

전라북도 부안읍 부안읍 매창공원에 위치. 매창의 묘가 있는 곳으로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허균의 시비가 세워져 있음.



헤르만 헤세 (1877~1962)



작가 태그

#1900년대 #독일 #소설가 #시인 #노벨 문학상 #동양 사상 #평화주의자 #인간의 내면 통찰

동양의 정신에 매료된 집안 가풍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 칼프 출생으로,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자 가문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인 요하네스 헤세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포교 활동을 하면서 노자와 관련된 저서를 저술할 만큼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외조부인 헤르만 군데르트 역시 인도에서 다년간 의사 및 교사,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인도의 방언이 실린 방언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인도학의 전문가였다. 그는 서재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수천 권 이상 소장하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헤세는 어렸을 적부터 《논어》, 《시경》 등 동양의 고전을 읽으면서 성장하였다. 이는 헤세의 성장 및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찍이 동양의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인 헤세는 이를 작품 속에 내면화하게 된다. 노년의 헤세는 자신을 있게 해 준 두 가지로 양친의 집안 가풍에 깃든 기독교적이고 세계적인 정신과 중국인들의 지혜에 대한 독서를 꼽은 바 있다.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탄생은 이처럼 동양 문화를 사랑한 가풍과 개인의 재능 및 노력이 함께 빛어낸 위대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헤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1891년 마울브론의 신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헤세의 내면에는 타고난 창조적 열정이 불타고 있었고, 또한 개성이 강했던 탓에 그는 신학교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와 자살을 기도한다. 이후 헤세는 정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지만 결국 퇴학을 하고, 시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때 헤세가 겪었던 정신적 방황은 대표작인 <수레바퀴 밑에서>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후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헤세는 공장을 그만두고 튀빙겐의 서점에서 수습 점원으로 일하면서 작품을 쓰기 시작하고,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하게 된다. 그리고 1899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와 산문집 《자정 이후의 한》이 릴케에게 인정을 받고, 1904년에는 첫 장편 소설 《페터카멘 친트》로 문단에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이후 <수레바퀴 밑에서>, <게르트루트>, <데미안>, <싯다르타> 등의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성공적인 문학인의 길을 걷는다.

정신적 평화와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군국주의와 히틀러의 나치즘을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조국의 배신자라는 언론의 공격을 받고, 그의 모든 저서는 판매와 출판이 금지된다. 여기에 부친의 사망과 아내의 정신병 등 개인적인 불행까지 겹치면서 헤세는 정신 치료를 시작한다. 이때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나면서 인간의 심리 분석에 깊게 심취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문학 창작을 통해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얻게 된다. 헤세는 1920년부터 여러 차례의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자신의 작품에 직접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한편,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알 유희>는 나치즘이 득세하던 1931년부터 1943년에 걸쳐 쓴 작품으로,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야만적 시대 가운데 정신적 평화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지적인 삶의 자세를 그려 냈다.

교과서

Pick Up



공작 나방	나비 수집을 둘러싼 소년들의 갈등과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데미안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를 찾는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	재능 있고 감수성 풍부한 소년 한스가 감압적인 교육 제도로 인해 파멸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헤르만 헤세 박물관

스위스 몬타놀라에 위치. 스위스 몬타놀라는 헤세가 생애의 절반을 보냈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지역임. 헤세의 탄생 120주년이 되던 해에 건립되었으며, 헤세의 수채화 그림 원본 및 문학 작품 초판본, 책상, 안경, 화구 등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음.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소설가 #근대 문학 #아동 문학 작가 #월북 작가, 노마

현덕 (1912~?)

불우했던 어린 시절

현덕의 본명은 현경운으로 서울시 삼청동의 한 별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현홍택은 구한말 궁궐의 수비 대장으로서 종2품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친 현동철이 금광에 손을 대어 가산을 탕진한다. 이후 현덕의 식구들은 각자 친척 집을 떠돌며 살게 된다. 그는 대부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25년 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학비가 없어서 중퇴하였다. 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유일한 희망은 독서였는데, 특히 도스토옙스키 전집 열다섯 권은 그가 읽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였다. 이후에도 그는 화성군 발안 근방의 매립 공사장에서 인부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와 오사카에서 노동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몸이 쇠약해져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학을 하게 되었다.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고무신>이 가작으로 당선되어 문단의 길로 들어선다. 그때 김유정을 만나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현덕은 서울 동대문의 산동네에서 김유정과 각각 경사면을 달리하여 살았다. 그는 김유정의 소개로 안희남도 알게 되는데, 안희남은 현덕의 등단과 문단 활동을 많이 도왔다. 김유정이 죽고 난 뒤 현덕은 인천의 친척 집에 기거하면서 소설 <남생이>를 집필한다. 이때 쓴 소설 <남생이>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된다.

아동 문학에 대한 관심

현실의 암흑을 그리는 것 말고 달리 방도가 없었을 때, 현덕이 가장 관심을 둔 대상은 바로 아동 문학이다. 그는 거의 모든 동화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1938년 중반부터 현덕은 소설과 함께 동화와 소년 소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의 동화에서는 연작 형태로 ‘노마’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유년 세계를 다루고, 소년 소설은 졸업을 앞둔 보통학교 상급생이나 중학생을 등장시켜 소년의 세계를 다루었다. 동화의 세계에서나 소년 소설의 세계에서나 현덕은 확고한 리얼리즘의 정신 아래 작품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리얼리즘 아동 문학을 개척한 작가라고 볼 수 있다.

주목받지 못한 월북 작가

현덕은 등단과 함께 화려한 조명을 받았으나, 일제 강점기에 겨우 2년 정도 활동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가 9·28 수복 때 월북한 이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의 호적에는 1950년 9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신고자는 아우의 처인 이계희). 보도 연맹에 가입했다는 아우 현재덕은 결혼 신고(1950.1.)가 되어 있으나, 현덕은 미혼으로 되어 있다. 현덕은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월북 당시 다섯 살쯤 된 딸과 갓난아이가 있었다. 월북을 하면서 모친과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갔으며, 아우 현재덕도 함께 월북했다. 월북하지 않은 부친과 누이들은 남한에서 사망하였고, 현재덕의 처와 딸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현덕은 월북 후에 전쟁과 관련한 몇 편의 작품을 썼으나 대부분 자연주의 작품으로 호되게 비판을 받았으며, 한동안 이름이 보이지 않다가 1960년 전후에 다시 활동하여 《수확의 날》(1962)이라는 단편집을 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북한 아동 문학과 관련해서는 아우 현재덕의 이름만을 간혹 볼 수 있을 뿐이다.

교과서 Pick Up

하늘은 맑건만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주인공 문기가 친구와 그 돈을 쓰면서 겪는 불안함과 죄책감을 다룬 소설
나비를 잡는 아버지	경환과 바우가 나비를 잡는 숙제를 하면서 겪는 사건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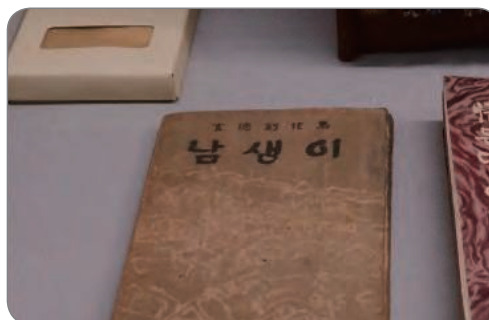
▶오프라인 <남생이>를 집필하던 집

인천시 중구에 위치. 현덕이 <남생이>, <경칩> 등의 소설을 집필했던 고모 집임. 집 안의 시설은 현대적으로 개조했지만, 집 안 내부 구조는 그대로라고 함.



▶온라인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www.icdonggu.go.kr/open_content/museum)
인천시 동구 솔빛로에 위치. 달동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설 <남생이>는 인천항 주변에서 선창 벌어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어린 노마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임.



현진건 (1900~1943)



작가 태그

#일제 강점기 #사실주의 #일장기 말소 사건 #사회 비판 #한국의 체호프

순탄했던 어린 시절

포동포동한 몸에 작은 키, 걸음걸이는 씨암탉 같았던 현진건은 살결이 희고 맑은 예쁘장한 미남이었다고 한다. 그는 1900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우체국장을 지내던 현경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으며, 고향의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12세 되던 해인 1912년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1917년 동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1918년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형을 찾아 상해로 가서 호강대학 독일어과에 입학하기도 한다.

이 시절 그는 독일어 수업을 받으며 독일의 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촌 형 현정건을 만나 항일 의지를 키우게 된다. 현정건의 모습은 그의 소설 <적도>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영화 <밀정>에 나오는 연계순은 기생 출신인 의열단원 현계옥을 모델로 한 것인데 사촌 형 현정건의 연인이기도 하다.

실제 행동으로 애국 운동을 실천한 작가

1919년에 귀국한 현진건은 1920년 9월 <개벽>에 독일의 단편 <석북화>를 번역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에 <희생화>를 창작 발표하였다. 현진건은 체호프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체호프'라는 격찬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단편 소설뿐 아니라 장편 소설과 수필도 썼는데, 특히 <백두산 기행>은 당대의 명문으로 꼽힌다.

한편, 현진건은 언론에도 관심을 가져 1920년 <조선일보>에 들어갔다가 퇴사하고 최남선이 경영하던 잡지사 등을 거쳐 <동아일보>에서 근무하였다.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던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1등을 하고, 남승룡이 3위를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신문에 손기정의 가슴에 붙은 입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을 당한다. 현진건은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과 관련된 입장기 말소 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른 다음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

사실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

1937년 <동아일보>를 사직한 현진건은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으며, 빈궁 속에

서도 친일 문학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양계 사업과 미두 사업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때까지 남긴 작품이 중단편 20편과 장편 4편 그리고 번역 소설 8편이다. 빈곤에 시달리던 그는 1943년, 딸을 일탄 박종화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두 달 후인 1943년 음력 3월 21일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는 김동인, 염상섭과 함께 근대 문학 초기에 단편 소설 양식을 개척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받았다.

교과서 Pick Up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하층 노동자인 인력거꾼 김 침지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통해 당대 하층민의 비극적 삶을 보여 주고 있는 소설
술 권하는 사회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현진건의 자전적 체험이 담긴 소설로, 일제 강점기의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소설
고향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인물의 인생 역정을 통해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
할머니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이기심과 작위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소설
무영탑	신라 시대 불국사의 무영탑 건립을 중심으로 백제 석공 아사달, 그의 아내 아사녀, 신라 귀족의 딸 구슬 아가 사이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현진건 문학비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 1996년 조성된 대구 두류 공원에 이상화, 이상희, 백기만 시인의 시비와 함께 현진건 문학비가 세워져 있음.



▶온라인 대구 문학관

(www.modl.or.kr)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대구 문학관 온라인 사이트. 현진건, 이상화 등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 경북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문학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사이트에는 '현진건' 관련 미디어도 있음.





작가 태그

#1970년대 이후 #국민 연애시
#풍장 #소설가 황순원의 아들
#영문학자

황동규 (1938~)

운동주와 김소월의 시를 읽으며 키운 문학의 꿈

황동규는 1938년 평안남도 영유군 숙천에서 태어났다. 그가 만 일곱 살이 되던 1946년에 가족 모두 달구지를 타고 삼팔선을 넘어 월남하였다. 그때 소련군이 황동규네 가족이 타고 있던 달구지를 멈춰 세웠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 젊은 사람 몇 명만 축구 시합의 인원 수를 채워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고선 정말 축구 시합이 끝난 다음 소련군은 그의 가족이 가던 길로 보내 주었다.

월남 후 황동규의 가족은 서울에 정착하였고, 그는 덕수초등학교에 재입학하였다. 아버지 황순원이 서울고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그의 가족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교내 사택에서 생활하였다. 1951년 1·4 후퇴 때에는 대구로 피난을 가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곤궁한 생활 때문에 소년이었던 황동규는 검팔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운동주와 김소월의 시를 접하고 시 습작을 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짝사랑의 감정이 숨어 있는 <즐거운 편지>

황동규는 대학 2학년 때 서정주가 <시월>, <동백나무>, <즐거운 편지>를 차례로 추천해 문단에 등단했다. 그 가운데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즐거운 편지>는 고등학교 졸업 때 쓴 시로 학교 교지에 실린 작품이다. <즐거운 편지>는 그가 짝사랑하던 연상의 여인을 생각하며 쓴 시였다.

“제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여인은 <즐거운 편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야 좋아하겠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가 짝사랑했던 여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의 언니였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은 처음에 그 시를 읽을 때에는 싫었지만 계속 읽다 보니 나중에는 좋아졌다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삶의 이름으로 죽음을 표현한 <풍장>

<풍장>은 1981년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1995년 7월 <풍장 70>을 끝으로 무려 14년에 걸쳐 마무리한 연작시이다. <풍장 1>은 70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의 맨 앞에 오는 시다. 황동규는 자연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듯 인간의 죽음 또한

소멸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사라짐’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 바람과 놀게 해 주오 - <풍장 1>

황동규는 <풍장>과 관련된 어느 인터뷰에서 <풍장>이 죽음에 관한 시는 아니라고 했다. ‘풍장’은 바닷가나 섬 사람들이 죽으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바람에 맞도록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그 모습에서 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고선 <풍장>이라는 시를 쓰면서 죽음을 생각했고, 그 시를 쓰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장>을 읽는 독자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많이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교과서 Pick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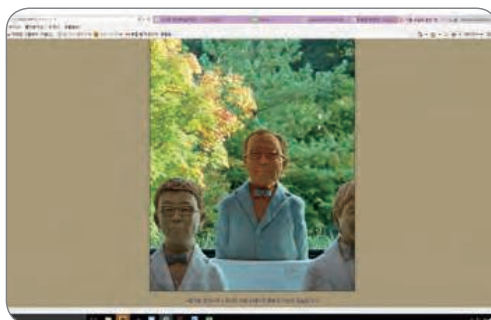
조그만 사랑 노래	1970년대의 자유와 정의가 사라진 암울한 현실을 이별의 상황에 처한 남자의 처지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
즐거운 편지	그대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시
기항지	여행지에서 느끼는 삶의 쓸쓸함과 불안감을 노래한 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부지런히 굴러가야 하는 바퀴의 속성처럼 우리의 삶도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해야 함을 노래한 시
풍장	인간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존재의 소멸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을 노래한 시

작가와 관련된 **곳**으로 

▶**오프라인**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현판
서울시 송파구 잠실 석촌 호수에 위치.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 <즐거운 편지>가 쓰인 현판임.



▶**오프라인** 진아 문학 박물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 세계적인 문호들과 국내 문인들의 테라코타 흉상, 사진, 작품 해설 등을 입체적으로 전시한 곳으로, 이곳에 황동규의 흉상이 있음.
(홈페이지: www.janamuseum.com)





작가 태그

#1940년대 이후 #휴머니즘 #순수 문학 #소나기, 소녀 #순수, 첫사랑 #황동규 #문인계의 얼짱

황순원 (1915~2000)

일제의 탄압에도 문인의 자존심을 지키다

황순원은 1915년 3월 26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때 평양으로 이사하고 2년 뒤 황순원은 평양 송덕소학교를 다녔다. 소학교 시절 그는 스케이트도 타고 축구도 했으며 바이올린 레슨까지 받았다. 화가 이중섭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열두세 살 때부터 체중을 다스리려고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마신 소주를 일흔이 넘도록 마셨을 정도로 애주가였다고 한다.

황순원은 십 대 시절인 1930년부터 동요와 시를 신문에 발표했으며, 잡지 《동광》에 시 〈나의 꿈〉을 발표했다. 송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일본 와세다 제2고등학교 시절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학생 예술좌’를 창립해 활동하면서 시집 《방가》를 출간했다. 이 시집에는 양주동의 서문과 시인의 짧은 머리말, 27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황순원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피하려고 동경에서 시집을 간행했다는 혐의로 평양 경찰서에 29일 동안 구류를 당한다. 일제 말기 창씨개명 즈음에는 친일 소설 쓰기를 거부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글을 쓸 지면을 얻지 못해 작품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나기〉의 원제는 〈소녀〉

황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는 〈소녀〉라는 제목으로도 발표된 적이 있으며, 발표 당시 결말에 네 문장이 더 있었다고 한다. 김동환 한성대 교수는 《문학 교육학》 제26호에 실은 논문 〈초본과 문학 교육〉에서 1953년 11월에 발행된 《협동》에 황순원의 〈소나기〉가 〈소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고 밝혔다. 또 최초로 《신문학》에 실렸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 이외에 네 문장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추가된 부분은 “아마 어린 것이라두 집안 꼴이 안 될 걸 알구 그랬든가 부지요? 끄응! 소년이 자리에서 저도 모를 신음 소리를 지르며 돌아누웠다. ‘재가 여적 안 자나?’, ‘아니, 벌써 아까 잠들었어요. ……애, 잠꼬대 말구 자라!’”라는 네 문장이다. 이 외에도 황순원의 제자인 김종회는 “생전에 선생님께서 직접 〈소나기〉 결말에 소년이 돌아눕는 내용을 넣었다가 원우서 선생의 충고에 따라 뺐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며 “〈소나기〉의 묘미인 결말의 여운을 살리는 데 탁월한 결정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자 하응백은 “황순원 선생님은 작품을 발표하신 후에도 재수록 과정에서 끊임없이 퇴고를 반복하신 작가”라며 “〈소나

기)의 창작과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잇는 문학적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황순원의 이런 기질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맏아들이며 시인인 황동규로 이어진다. 황순원의 장남 황동규와 박목월의 장남 박동규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다. 그 이유는 절친한 사이였던 황순원과 박목월이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똑같이 짓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름뿐 아니라 자식들의 직업을 서로 바꾸어 소설가 황순원의 아들은 시인으로, 시인 박목월의 아들은 소설가로 키우자고 약속할 정도였다. 하지만 박목월의 아들과 황순원의 아들은 둘 다 시인이 되었다.

교과서 Pick Up

학	6·25 전쟁을 배경으로 친구 사이인 성삼이와 덕재의 우정을 그림으로써 비극적 이념 갈등을 인간애로 극복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소설
소나기	시골 소년과 시골로 전학을 온 도시 소녀의 소나기처럼 짧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
물 한 모금	어느 가을날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해 초기집에 모여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베푸는 주인사에서 흐르는 따뜻한 정을 그린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	6·25 전쟁에서 낙오된 세 사람 주 대위, 김 일병, 현 중위의 생존을 위한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 소설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소나기 마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 황순원의 <소나기>를 테마화한 곳으로,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하던 원두막 등 소설 속 공간이 재현되고 있으며 소나기 광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인공 소나기를 체험할 수 있음.



▶오프라인 황순원 문학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 소나기 마을 내에 있음. 황순원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음. 문학관 한쪽에는 200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이장한 황순원 묘역도 조성되어 있음. (홈페이지: www.sonagi.go.kr)



강은교
고은
고정희
공선옥
곽재구
기형도
길재
김광규
김광섭
김기택
김만중
김소월
김소진
김수영
김숙옥
김시습
김영광
김용택
김유정
김종삼
김춘수
나태주
나희덕
문정희
문태준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인로
박재삼
박지원
박태원
백석
생텍쥐페리
서정주
성삼문
성석제
송수
신경림
신동엽
신석정
신영복
심훈
안도현
양귀자
염상섭
오정희
유치진
유치환
윤동주
윤선도
윤영
윤홍길
이강백
이규보
이근삼
이문구
이상
이상화
이순원
이양하
이용악
이육사
이철준
이태준
이호철
이항
이효석
임철우
정영희
전광용
정몽주
정약용
정지상
정지용
정철
정현중
정호승
조세희
조지훈
주오석
차범석
채만식
천양희
최인훈
최일남
피천득
하근찬
한용운
함민복
허균
헤르만 헤세
현덕
현진건
황동규
황순원
황지우
황진이



작가 태그

1980년대 이후 # 민중 시인
해체시 # 냉소와 풍자 # 낯설게 하기 # 광주 # 민주주의

황지우 (1952~)

부끄러운 양심이 낳은 형식 파괴의 시

황지우는 195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55년 이후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광주에서 보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던 그는 광주에 있던 형에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게 된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그는 외신 기자들의 통역을 돕고, 종로에서 광주의 현실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구속되어 고문을 받는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친구를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가 출간한 첫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목격했던 공포, 고문에 못 이겨 결국 친구를 배신했다는 자기 모멸감과 연민, 타락한 시대 현실에 대한 냉소와 풍자 등을 비틀리고 해체된 언어로 표현해 냈다. 그리고 신문의 일기 예보, 광고 문안, 공소장, 만화 등의 대상물들에 시적 긴장을 부여하고, 규범적 언어 관행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형태 파괴의 시’ 형식을 보여 주었다.

5분 만에 탄생한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가 지명 수배되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낮에는 주로 신문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잡지사에서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신문사에 딸린 잡지 부서에 근무하던 선배 시인이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황지우 시인을 발견하고 시를 간단하게 한 편 써 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그는 별 생각 없이, 단 5분 만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써 주고는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는 대학가에서 서점을 하던 친구의 부인에게서 사람들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는 시가 어느 시집에 있냐’고 묻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성우 출신의 김세원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그 시를 낭송한 뒤로 여러 사람이 그의 시를 찾는다는 것이다. 순간 그는 얼핏 수치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쓴 시였지만 아무 고민 없이 쓴 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해 8월에는 서울에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이산 가족 상봉이 있던 날 아침,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50년 동안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이산 가족들을 위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낭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이 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인

198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에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황지우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10년 가까이 침묵을 한다. 과거의 문제의식을 쉽게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을 보면서 침묵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무등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고 조각을 하는 등 한동안 새로운 문학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1998년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를 펴내 김소월 문학상과 백석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시집에는 한때 열정적 민주 투사였던 황지우가 나이를 먹어 가면서 느낀 생의 회한이 가득 담겨 있다. 1990년대 이후 황지우의 관심은 종교와 자연, 일상의 자잘한 소재들로 옮겨 갔으나, 여전히 시대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며 ‘버림받지 않는 책’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

Pick Up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0년대 군사 독재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냉소적 태도, 무력감을 나타낸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형상화하여, 부당한 권력에 맞서려는 의지를 나타낸 시
심인	신문의 사람 찾는 광고를 활용하여, 1980년대의 시대상과 소시민의 무력감을 표현한 시
한국 생명 보험 회사 송 일환 씨의 어느 날	여러 텍스트의 일부분을 콜라주하여,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는 1980년대의 부조리를 비판한 시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학림 다방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 1956년 문을 연 이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과 예술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단골 명소가 됨.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된 학림 사건이 발생한 곳이며, 황지우를 비롯하여 시인 김지하, 소설가 이청준, 김승옥 등이 단골로 다녔던 곳임.



황진이 (?~?)



작가 태그

#조선 시대 #조선의 명기 #작가 #서예가 #음악가 #무희 #화담 서경덕 #송도삼절 #박연 폭포 #예술과 사랑

스스로 기녀의 삶을 선택한 여인

황진이의 출생에 대해서는 황 진사의 서녀(庶女)라는 설과 맹인의 딸이라는 설이 있다. 황 진사의 서녀로 다룬 기록이 숫자적으로는 우세하지만 기녀 신분이라는 점에서 맹인의 딸로 태어났다는 설이 오히려 유력시되고 있다. 용모가 출중하고 예술적 재능과 총명함을 지녔던 황진이였기에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황진이가 기녀가 된 동기는 15세 때, 한동네에 살던 총각의 죽음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그녀를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죽은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자 이를 전해 들은 황진이가 소복 단장을 하고 달려 나가 자기의 치마를 벗어 관을 덮어 주었는데, 그제서야 상여가 움직이더라는 것이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황진이가 기생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편, 황진이는 천한 신분으로 멸시를 받으며 일생을 보내기보다는 봉건적 윤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기녀의 인생을 택하였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화담 서경덕을 사랑한 여류 시인

황진이는 격조 높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한 감성적인 사랑꾼이며 여느 남자 못지않은 담대한 인생관을 가졌다. 특히 인생의 비애와 짙은 애수, 절절한 인생사를 독특한 표현력과 담백한 어조로 풀어내려 한 황진이의 시적 감성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 만큼 격조가 높았다.

한편, 황진이는 대제학을 지냈던 소세양과 10년 면벽의 고승 지족 선사, 명유 서경덕을 유혹했는데 소세양과 지족 선사는 결국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화담 서경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 그녀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화담에게 우주의 삼라만상, 인간의 본질, 삶과 참된 사랑을 배웠다.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세속의 지위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았고, 빼어난 문장력과 깊은 감성이 녹아 든 어조로 달관한 듯한 인생사를 시조로 표현하였다. 그녀를 진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화담 서경덕과 박연 폭포와 함께 송도 삼절(松都三絶)로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생의 비애, 연모를 노래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황진은 이 시조에서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시조에서 보듯 황진의 시에는 기본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이 녹아 있다. 특히 애절한 표현력은 감정을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오로지 달빛만이 고요한 동짓달의 긴 밤이라는 시간을 형상화하여,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내 켜켜이 쌓아 놓았다가 입이 오는 그날에 인위적으로라도 길게 누리고 싶다는 독특한 표현은 한 여인의 연정이 얼마나 애뜻하고 절절한지를 느끼게 해 준다. 이러한 황진이 특유의 문학적 감성과 독특한 표현력은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할 만큼 감동적 울림을 준다.

교과서

Pick Up



산은 옛 산이로되~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
어저 내 일이야~	입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과 애뜻한 심리를 섬세하고도 진솔하게 표현한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	기나긴 동짓달 밤의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입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시조

작가와 관련된 **그곳으로**

▶오프라인 황진이 시가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에 위치. 1982년 황진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묘가 있는 북한 땅 판문군이 건너다보이는 곳에 세움. 시비 전면에는 황진의 대표적인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가 쓰여 있고 뒷면에는 한시 〈박연 폭포〉가 새겨 있음.



